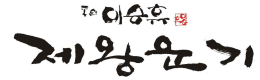


삼척문화교육과정

자 료 집



우리가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 초등학교용 -

2023년 08월

[주관]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후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우리가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 초 등 학 교 용 -

저자 : 김 도 현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I. 공통 교육 내용

1. 삼척의 뿌리 : 태백산과 신령들, 그리고 발길·물길
2. 삼척의 역사 바로 알기
3. 동안 이승휴 선생과 『제왕운기』

II.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1. 이사부, 삼척에서 울릉도를 향해 출발하다
2. 이승휴 선생이 천은사에서 삼화사로 불경 빌리러 다닌 길
3. 삼척 유교 교육의 중심 : 삼척 향교
4. 죽서루와 삼척도호부 관아건물지, 그리고 오십천(五十川)
5. 삼척읍성
6. 목조와 삼척, 그리고 준경묘·영경묘, 재실(齎室) 그리고 능찰 천은사
7. 척주동해비와 대한평수토찬비 그리고 허목
8. 삼척 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
9. 삼척의 전통사찰 신흥사와 문화유산
10. 삼척의 효자비, 열녀비, 효부비
11. 삼척지역 철도의 역사 ; 도계역 급수탑, 도계 스위치백과 근대등록문화재인 하고사리역

Ⅲ. 삼척지역의 민속과 전통지식

1. 삼척기줄다리기 바로알기
2. 삼척시 노곡면 한두골 용소 기우제(祈雨祭)
3. 양야산 봉수와 봉할머니당
4. 삼척지역 '민물김 채취' 전통 지식
5. 삼척 산간지역 가옥 : 두렁집 그리고 통방아
6. 삼척지역 전통 가옥에서 '화티'

Ⅳ. 삼척지역의 자연 유산

1. 환선굴
2. 도계 미인폭포
3. 초곡 용굴과 쫓대바위, 풍화미지형

[참고문헌]

I. 공통 교육 내용

1. 삼척의 뿌리

: 태백산과 신령들, 그리고 발길·물길

1) 태백산에서 모시는 신령들, 산신·천왕·천신

(1) 태백산

하늘에 대한 제사는 고조선 이래 삼국과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제천(祭天)’ 또는 ‘천제(天祭)’로 불리는 하늘제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늘에 대한 제사이자 최고신으로서의 천신(天神)을 포함하는 제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늘제사를 지낸 여러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이 태백산이다. 태백산은 우리나라 지맥의 중심이면서, 경상도의 조종산(祖宗山)이다. 신라 이래 고려에 이르는 시기의 태백산은 국가 제사를 꾸준히 지내던 신성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백산은 국가제사에서 제외되었다. 태백산이 국가제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태백산이 갖는 영험성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배경이 되었다.

태백산은 산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봉우리를 포함하는 폭넓은 권역을 말한다. 그리하여 동쪽으로는 우보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 북쪽으로는 금대봉,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에 이른다. 이처럼 태백산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권역으로 인식되었다.

(2) 태백산 신사(神祠)의 다양한 명칭들

산신·천왕·천신이 머무르는 태백산에 도착하면 그 입구부터 영험한 분위기가 풍긴다. 태백산 초입의 골짜기를 ‘당골’이라 부른다. 이곳에

서낭당이 있는데, 산에 오르기 전에 몸과 마음의 부정을 풀기 위해 부정 풀이를 행한다고 하여 ‘부정당’이라 불렸다. 당골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무당 혹은 민간인의 신앙처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골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장승거리, 반재, 망경사 입구의 서낭당, 태백산 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망경사와 용정, 단종비각이 위치해 있다. 단종비각을 마지막으로 하여 산의 주봉(1,560m)에 이르면 태백산 천제가 베풀어지는 성역에 이르게 된다. 중앙에 천제단을 두고, 그 아래에 장방형으로 쌓은 장군단과 방형으로 쌓은 후 3방향에 계단을 만든 하단이 제단 형태로 건립되어 있다. 높은 하늘 아래의 구름이 제단 주변을 휘감아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태백산은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신앙처답게 이곳을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여,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신사神祠·태백산사太白山祠·천왕당天王堂·태백신사太白神祠·태백사太白祠·천왕사天王祠·태백당太白堂·구령탑·마고탑 등으로 불렸다. 이와 같은 명칭을 통해 태백산 천제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산 정상에 위치한 천왕당은 이곳이 천신을 제사 지내는 곳임을 의미한다. 이 천신은 구령탑의 명칭에서처럼 동양천문사상의 하늘 개념인 구천九天的 주인이다. 태백천왕당, 태백사 등의 명칭은 이 천신이 태백산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천신이기엔 이를 ‘마고’라고 간주한다. 마고탑이라는 명칭은 태초太初에 천지를 이룩한 거인 할머니 마고가 쌓은 탑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태백산의 천제단은 하늘신인 천신의 거처로 각인되어 있다.

천왕당에 모신 신령인 천왕天王은 사전적 의미로는 ‘불교에서 육계나 색계 따위의 온갖 하늘의 임금, 역사적으로 상고上古시대에 수호신’을 이르던 말로 ‘환웅’ 혹은 ‘해모수’를 높여 부르는 말로 이해되어 왔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천왕지신天王地神’이라 쓰인 것은 도교적 성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천신이 아니라 천왕이라 표현한 것은 다양한 종교의 영향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태백산에 위치한 천신의 거처가 현재는 돌탑의 형태로 남아 있지만 다양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는 제당의 형태였다. 1736년에 쓴 이인

상李麟祥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당집에 석불石佛과 함께 천왕이라 불리는 나무상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1953년 사진 자료에는 비록 제단의 돌이 흐트러져 있지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방추형을 띠고 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현재와 같이 돌탑의 형태로 변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당의 형태에서 돌탑의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 같다. 현재 태백산에 위치한 망경사 터에 고려시대 석불과 대좌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태백산사가 아닐까 한다.

천제가 베풀어지는 천제단 이외에 장군단將軍壇과 하단이 있다. 장군단이라 부르지만 그 신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하단 또한 부소단夫蘇壇 또는 구을단丘乙壇이라 부르지만 그 신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천신을 위한 하위의 제신諸神들이 아닐까 한다.

(3) 태백산에서의 제의 전통

① 국가제사로 행해진 태백산제

태백산에 대한 제사는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꾸준히 이어져 왔다. 통일신라에서는 중사中祀에 국토를 수호하는 오악五嶽을 두었는데, 태백산이 북악北岳에 해당된다. 고려에서는 국가차원의 사전에 태백산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방경의 아들 김순이 태백산제를 위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로 파견되었음을 통해 볼 때 국가 차원의 제사가 이어졌다고 하겠다. 성종 이후 유교이념의 도입에 따라 유교제례로 산제가 제도화됨에 따라 외산제고사를 파견하여 봄과 가을에 산제를 지내기도 했다. 비록 외산제고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태백산제가 간헐적으로나마 지속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태백산제가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태백산으로 향하는 상설역인 도심역道深驛을 활용했다. 태백산제를 폐한 후 도심역을 옮겼다. 태백산제를 모시러 가는 관리를 위해 상설역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태백산이 고려시대에 중요한 국가 제장이었음을 반증한다.

조선시대에 태백산에서 국가 차원의 제사가 베풀어지지 않았다. 세조대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태백산을 동진東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에 영험이 있는 곳만을 사전으로 편제하는 원칙에서 볼 때, 태백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험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태백산은 이미 민간 차원에서 종교의 산실로 간주되어 다양한 종교 의례가 베풀어지고 있었다.

② 민간신앙의 중심지, 태백신사(太白神祠)

태백산이 민간신앙의 성소聖所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세종실록』(8년 4월 12일 기사), 『성종실록』(24년 5월 21일 기사), 성현의 『허백당집』(신당퇴우설), 『신증동국여지승람』(강원도 삼척도호부 사묘), 허목許穆의 『미수기언眉叟記言』(퇴우조), 허목의 『척주지陟州誌』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록에서 확인되는 공통점은 지방 관청이 태백산 신사를 관리한 사실이다. 제사를 지낸 후 두고 간 베[布]나 소[牛] 등을 관리가 거두어 사용했다. 관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사사로이 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태백신사의 관리는 삼척도호부 소관이였다. 이곳에서의 종교 행위는 주로 무속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무당이 관리와 함께 제물을 나누었다는 사실은 무당이 태백신사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백신사의 수직무직巫直이라 하겠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관리자로서만이 아니라 의례의 주체로도 등장했다.

태백산권역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태백산은 인근의 삼척도호부를 수호하는 곳이기도 했다. 성현의 『허백당집』 신당퇴우설, 허목의 『미수기언』 지괴조誌怪條 등에 삼척도호부의 향리 집단 등이 4월에 백두옹(白頭翁, 태백의 신령)을 읍에 모시고 와서 성대히 맞이한 후 읍리邑吏의 집에 모셨다가 5월 5일 다시 태백산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오에 열린 오금잠제와 함께 이 지방에서 행한 향리 주도의 고을신앙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백산에서 행해진 신앙의 주체는 여전히 민간인이었다. 허목의 『미수기언』에 “백성들이 태백산에서의 제사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이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에서 태백신사太白神祠를 열고 태백산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는 기록이 확인된다. 백성들이 태백산 제사에 지나치게 몰두하자 태백신사를 폐지했던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음사淫祀로 치부되었기에 음사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태백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신앙의 영험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간의 신앙행위는 산 곁의 삼척도호부를 중심으로 경상도 사람들까지 이어졌다. 관련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봄과 가을에 제사를 했는데, 이때 신좌(神座) 옆에 소를 매어 두고는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난다. 만약에 돌아볼 것 같으면 불공한 것을 신이 알고 죄를 준다. 사흘이 지난 후에 부에서 이 소를 거두어서 이용한다. 이를 퇴우(退牛)라 한다.”

이러한 형태로 거행된 태백신사에서의 치제致祭는 모두 제액除厄과 초복招福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제물로 바치는 소를 아까워하면 귀신이 흠향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바치고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믿음의 증표로 신령에게 바친 헌물이므로 아까워하기보다는 정성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관행과 관련해서 소가 넘쳐나자 관부에서 감고로 하여금 이 소를 거두어들리게 했다. 그것이 퇴우이다.

결국 소의 헌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태백산에 대한 믿음이 쇠퇴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허목의 『미수기언』에는 “사람들이 소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자 지금의 산승山僧 충학沖學이 그 신사를 불질러 요망한 신사가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헌우獻牛의 일도 없다. 감고도 또한 폐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소에 대한 염증은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신앙에 대한 부담을 의미한다. 산승이 이를 없애 헌우의 풍속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의 제사가 천신에 대한 제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의 소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민간의 신앙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기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태백산이 지닌 영험함 속에서 천신의 거처로 다시 부활하였다.

③ 구국의 신앙처, 태백산과 천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한 경상좌도 의병장 유종개가 태백산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 사후死後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면서 태백산은 민족의 종산으로 그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특히 신종교가 일어나면서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지냈다.

동학과 관련한 내용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를 비롯하여 동학 관련 자료집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제천祭天을 중심으로 발흥했기에 설단제천設壇祭天은 지속되었다. 초기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인 이필제李弼濟는 1871년에 영해신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설단제천 했다. 관에 쫓겨 다니면서도 태백산간에서 설단제천 후에 인근 관아를 습격했다. 이외에 정선에 머물던 최시형이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때 “태백산중에 들어 49일 기도드리니, 한울님께서 여덟 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 주셨네.” 라는 시를 썼다. 갈래산은 태백산 권역에 속하였기에 태백산으로 간주하며, 이곳에서 한울님을 만났다. 이처럼 태백산은 천신을 만나는 곳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신흥종교 중에서는 1937년의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에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을 중심으로 탑을 쌓았다.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 기원제를 지냈는데, 이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활동은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속에서 구국救國의 성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구국을 위한 의례적 행위이므로 천제天祭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④ 민간으로 확산된 태백산 치성들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거나 태백산에서 민간 치성을 드리던 전통은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태백산에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만들고 마을 단위로 천제를 지냈다. 태백산 인근의 많은 마을에서 태백산신이 마을의 신령으로 좌정했다는 당신화가 만들어졌으며, 천손족의 첫 후손인 단군을 천신으로 여겨 단군에 대한 치제를 행하기도 한다.

태백산의 신령은 마을에서 모실 때 마을 내의 다른 신령과는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 마을의 주신으로 서낭신을 모시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 밖의 일 중 하늘과 관련한 일은 천신에게 의뢰한다. 천신께 드리는 정성을 모아 기우제를 천제당에서 거행한다. 기후의 조절자인 천신에게 가장 큰 바람으로 비를 청하는 것이다. 마을 단위의 천제는 이처럼 천신의 능력 중 특화된 직능이 부각된다.

(4) 태백산에서 모신 신령(神靈)

각종 기록을 통해 태백산에서 모신 주요 신령은 태백산 산신, 천왕과 함께 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산령(神靈)들을 중심으로 태백산에서의 제의(祭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신(山神)

태백산은 동·서·남해로 흐르는 오십천·한강·낙동강이 발원하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배움을 제공하기에 신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영험함을 바탕으로 태백산신은 태백산 전체를 관장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매우 크고 높은 신성성을 지닌 신령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태백산이라는 큰 범주에서 태백산신을 위한 제의를 행한 것은 고려시대까지 이며, 이후에는 태백산 권역 내의 고갯마루·마을·개인 산당

등에서 태백산신을 상당신으로 위하였다. 이와 함께 18세기 이후에는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여겨 영월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길에 연해 있는 마을 제당에서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모시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말~일제강점기에 태백산신은 태백산에서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길과 밭길에 연해있는 제당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셔졌다. 고갯마루 산령당에서 태백산신을 모신 사례는 태백산 사길령을 비롯하여 느릅재, 피재, 봉화의 냇재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고갯마루에 위치한 산령당에서의 제의를 주관하고, 제당 중수에 참여한 집단은 주로 각각의 고갯마루를 오간 보부상들이었으며, 보부상이 혁파된 이후에는 이들의 재산을 관리한 집단 또는 선질꾼 등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태백산신을 상당신으로 모신 사례는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 주변 마을들, 영월군 상동면 꿀뚜바우 서낭당, 태백시 서학골 사례 등이다. 그리고 태백산 자락에 조성된 개인 산당에서 다양한 신령을 모시는데, 이중 태백산신을 모신 산신당을 가장 중요한 제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으며, 무속인들의 개인 산당에서도 태백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 이곳에서 산기도, 산치성 등 태백산의 정기를 받으려는 많은 정성들이 있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매년 4월 15일(음력) 사길령 산령각, 4월 16일(음력) 느릅재 산령각, 4월 8일(음력) 봉화군 석포면 냇재 산령각, 영월에서 태백 어평 마을을 연결하는 당목재에서 음력 8월 중에 지내는 산령당 등에서 이곳을 지나던 보부상과 그 후손들, 마을 주민들이 행로의 안전과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행한 산신제이다.

이 시기에 태백산 내 개인 기도처나 산당 등에서 행해졌던 개인 차원의 산기도·산치성, 그리고 마을 또는 별도의 공동체 단위로 산신각 또는 산령각에서 지냈던 산신제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② 천왕(天王)

조선시대에는 태백산에 설치된 제당을 ‘태백천왕당, 천왕당, 천왕사(太

伯天王堂, 天王堂, 天王祠)’ 라고 하였는데, 각종 기록을 종합하면 태백산사(太白山祠)는 천왕당(天王堂)이고, 태백사(太白山祠)는 천왕사(天王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당 명칭을 통해 태백산에서 ‘천왕(天王)’이라 불리우는 신령을 모신 제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백산 천왕당에서 모신 천왕의 성격과 관련하여 천왕을 천신(天神)으로 볼 것인지 산신(山神)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부터 단종이 돌아가신 후 태백산신(太白山神)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 및 영월 지역 주민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 내렸으나, 단종대왕을 천왕으로 여기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태백산신과 천왕을 별개로 여겨야 함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등 태백산 자락에 있는 산령각에서 태백산신을 모실 때 ‘천왕’이라 표현한 사례가 없으며, 1735년부터 1737년 사이에 기록된 이인상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천왕과 관련한 다음 기록이 전한다.

… 천왕당에 도착했다. 통금시간까지 도착하기로 약정했는데 드디어 60리 길을 걸어온 것이다. 천왕당 서쪽당에는 석불(石佛)이 있고 동쪽당에는 나무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천왕이라고 한다. …

이는 당시 태백산 천왕당[태백당]에서 모신 신령을 태백산 산신 또는 단종대왕으로 여기지 않고, 천왕으로 여긴 것은 천왕을 산신으로 비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구려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고분 벽화에 천왕과 지신을 표기한 도상이 등장한다. 천왕은 상투를 올린佳人(佳人)이 봉황을 타고 나르는 모습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의 주요 산에서도 ‘천왕’이 등장한다. 지리산 성모천왕을 비롯하여 구월산 삼성사에서 모신 환인천왕·환웅천왕·단군천왕, 속리산 천왕사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천왕을 천신으로 비정하는 것 또한 무리가 따른다.

천왕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리산 성모천왕, 속리산 ‘대자재천왕굴(大自在天王窟)’에서 하위 놀이로 남근 큰 것을 봉헌하는 사례, ‘태백 천왕

당’,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지리산 성모(聖母)는 지리산 천왕이다 ‘라고 한 표현 등을 통해 천왕은 천신이나 산신과는 다른 성격의 신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리산 천왕’이라 표현한 것은 지리산이라는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한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을 한정된 것은 ‘천왕’을 ‘천신’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천신’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모시는 신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산맥이에서 산은 산에 좌정한 조상신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 산맥이를 행하기 위해 찾는 최고의 산은 태백산이고, 거리상의 문제로 못 갈 경우 인근의 근산이나 두타산·원음산 등을 찾는다. 이들 산에 역시 천왕을 모신 천왕사나 조상신을 모신 산당이 존재하였다. 이는 천왕을 영험한 산에 좌정한 시조신(始祖神; 최고의 조상신)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 태백산을 중심으로 최고의 조상신으로 여겨진 천왕을 모신 제의가 폭넓게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을 중심으로 태백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태백산이나 태백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산에 좌정한 조상신을 위하는 산맥이를 행하였다는 사실, 망경사 삼성각에서 산신, 독성과 함께 단군을 모신다는 사실, 태백산 자락에 있는 마을 제당인 소룻골 함백산 성황당에서 태백산신으로 여겨지는 단종과 함께 최고의 조상신인 단군을 모신 사례, 현재 태백산 자락에 있는 단군성전 뿐만 아니라 천신이나 태백산 산신과는 별개로 단군을 모신 산당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태백산에서 천왕을 모셨던 전통이 한말~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③ 천신(天神)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은 4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태백산을 천제 지내는 성소로 여겨서 제단을 쌓아 천제를 지내거나, 천신이 강림하는 장소로 여기는 사례, 둘째,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사례, 셋째, 태백산에 소재한 각종 산당이나 기도터에서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넷째,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시는 사례이다.

태백산을 천제지내는 성소로 여기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하늘을 중시하는 신종교인들이 모여드는 성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 死後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었으며, 다양한 신종교의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지냈다.

동학과 관련한 내용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를 비롯하여 동학 관련 자료집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들을 통해 동학은 하늘[天]을 중시하면서 발흥했기에 설단제천(設壇祭天)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인 이필제는 1871년에 영해신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설단제천 했다. 관에 쫓겨 다니면서도 태백산간에서 설단제천 후에 인근 관아를 습격했다. 이외에 정선에 머물던 최시형이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때 “태백산중에 들어 49일 기도드리니, 한울님께서 여덟 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 주셨네.” 라는 시를 썼다. 갈래산은 태백산 권역에 속하였기에 태백산으로 간주하며, 이곳에서 한울님을 만났다. 이처럼 태백산은 천신을 만나는 곳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 속에서 구국의 성지로 인식된 것과 관련하여 1937년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제수를 준비하여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사례는 한말 이전부터 행해진 전통으로 태백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남

부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태백시 술안마을과 백산마을 사례

태백시 술안마을과 백산마을에는 각각 천제당이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격년에 한 번씩 소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술안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백산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에서 동참하며, 백산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술안 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형태로 천제를 지낸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예전에는 술안마을 또는 백산마을에 속한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 서낭당이 있어 백산 또는 술안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천제와는 별개로 서낭제를 각 하위 마을별로 지냈다고 한다.

[자료 2]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사례

삼척시 도계읍 점리는 7개 정도의 하위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마을에서는 매년 서낭제를 지냈으며, 3년에 한 번씩 마을 천제당에서 7개 마을 주민들 대표와 제관 등이 모여 점리 마을 전체의 안녕과 소통·화합을 위해 돼지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자료 3]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사례

매년 음력 4월 8일 대현리를 구성하는 하위 마을 대표들과 제관들이 대현리 천제단에서 대현리 전체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천제를 지낸다. 물론 하위 마을 단위의 서낭당에서는 하위 마을 자체적으로 서낭제를 정초에 지낸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위 마을 단위로 매년 서낭제를 지내면서 하위 마을들을 아우르는 마을 천제단에서 매년 또는 수 년에 한 번씩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태백산 자락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된다.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모시는 신령보다 상위 신령으로 여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전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천제를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연행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천제단은 여러 하위 마을을 관장하

는 중심 제당으로 기능하여 매년 또는 수 년에 한번 씩 천제단에 모여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있다. 또한 천제단에서 모시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천신과 다른 신령을 함께 모셔 天祭를 지내는 예를 여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 천신만 모시는 예, 천신과 산신을 함께 모시는 예, 천신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예, 비일상적으로 기우를 위해 천제를 지내는 사례,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모셔진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태백산 자락에는 건물 형태의 산당인 윤씨산당, 유복산당, 팔보암, 미륵암 등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산당들이 많다, 이들 산당에서는 태백산신을 비롯하여 단군, 천신, 서낭, 용신 등 다양한 신령을 모신 제의 공간을 각각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움막이나 기타 형태로 태백산에서 산기도나 산치성을 드릴 때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관련 제보는 많다. 이와 같은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태백산 내 대부분의 산당에서 천신을 별도로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한말~일제강점기에 태백산 자락에서 천신을 모신 제의는 태백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천신을 모시는 전통은 각종 산당이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천신을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이전부터 큰 마을 단위로 천신을 모셔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2) 한강 · 낙동강 · 오십천이 시작되는 곳, 태백산

집안이나, 국가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듯이, 우리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은 연중 쉼 없이 용출하는 천연 샘이면서 하류까지 물길이 연결되어야 하고 해당 하천의 시작점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고려와 조선시대에 쓰여진 많은 기록과 고지도(古地圖), 그리고 현지 조사를 통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오십천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하여 한반도의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인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비변사인방안지도〉 강원도 삼척부 지도를 보면 3대 강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동강 발원지와 관련하여 금대봉(金臺峰) 동쪽에 둥근 타원형 형태로 연못을 그려 푸른색으로 채색한 후 황지(黃池)를 부기하였다. 또한 낙동강 발원지로서의 황지(黃池)와 함께 낙동강이 태백산(太白山)과 금대봉(金臺峰)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와 관련하여 태백산 권역인 창죽산(倉竹山)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사미창을 지나 죽령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모아져서 북쪽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그렸는데, 이는 한강의 발원지라 여겨지는 검룡소[용추(龍湫)]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해로 향하는 오십천(五十川)이 백산(白山)과 느룻령[楡岺] 자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백산(白山)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더 길게 그렸는데, 이는 오십천의 실제 발원지가 도계 구사리 백산 8~9부 능선임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표현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동해와 남해, 그리고 서해로 향하는 대표적인 강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소개한 지도이외에도 많은 역사 자료와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태백산 자락이 한국의 중심이면서,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이곳 태백산 자락은 하늘·산·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곳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종 문헌과 금석문, 고지도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태백산 권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강·낙동강·오십천 발원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태고보우비〉와 고지도(古地圖)가 들려주는 한강 발원지, 태백산

한강의 발원지와 관련하여 많은 기록에서 발원지를 여럿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대산 우통수(五臺山 于筒水)를 한강의 발원지라 한 것은

이를 처음 언급한 권근의 「오대산서대수정암중창기(五臺山西臺水精庵重創記)」(1404년)에 실린 기록을 이후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에서 이를 인용하여 한강 발원지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지산 사나사 원증국사 태고보우비(彌智山 舍那寺 圓證國師 太古普愚碑)」(정도전이 1386년에 쓴 글)에 실린 다음 기록은 역사적으로 한강이 태백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양근군은 본시 익화현이었는데, 스님 어머니의 고향이다. 군(郡)의 서쪽에 큰 강이 있는 바 그 이름이 한강이다. 근원이 태백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6백리를 흘러 서해로 들어간다. …

위의 자료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강 발원지가 태백산 권역인 금대봉 북쪽 자락인 검룡소[고지도에 표기된 용추(龍湫)로 추정]임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古地圖)인 <비변사인방안지도>, <조선지도>, <청구요람>, <대동여지도>, <동여도> 등을 보면 태백산 권역 북쪽 산자락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사미창(四美倉)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의 발원지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861년 전후에 만들어진 <동여도>에는 태백산 북쪽 자락에 용추(龍湫)를 표기한 후 여기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사미창을 지나 하장성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에 표기된 용추(龍湫)는 한강 발원지를 표기한 것으로 현재 과학적으로 한강의 가장 긴 발원지인 금대봉 자락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중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대산 우통수 발원설이 오랜 기간 동안 한강 발원지로 알려진 이유는 정도전이 1386년에 쓴 위의 비문이 그가 쓴 『삼봉집』에 실리지 않았고, 각종 지리지에도 소개되지 않았음으로써 그 존재 여부가 잊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백산이 고려시대까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 국가 사전에서 배제되어 이전의 위상이 약해짐으로써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강의 발원지로 인정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태백산에 대한 인식이 다시 높아지면서 조선의 주요 명산으로 지목되었고, 태백산 자락에서 한강이 발원하였음을 암시하는 고지도들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1916년에 쓰여진 『삼척군지』에 금대산 기슭에 있는 소천(小川)에서 한강이 발원함을 기록한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의 전체 지형도를 작성할 당시에 한강의 가장 긴 지천(支川)은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에 있다는 설이 제기되어 발원지의 문제는 역사학적 인식에서 지리학적인 인식으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이형석이 1918년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의 하천 유로에 대한 도상 계측을 근거로 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는 금대봉 북쪽 계곡임을 제안하면서 한강 발원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1986년에는 이형석이 지목한 금대산 북쪽 자락을 김강산이 한강의 발원지로 제안하면서 그 이름을 검룡소[고지도에서 龍湫]로 하였기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5월 당시 한강을 관리하였던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한국하천일람』에서 한강의 발원지를 이형석에 의해 1981년 제안되었던 태백시 금대봉 북쪽 기슭으로 발표함으로써 과학적 발원지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와 함께 1997년에는 검룡소에서 제 1회 한강대제를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문화재청에서 한강발원지로 널리 알려진 검룡소를 국가지정 명승 73호로 지정함으로써 태백산 자락에서 한강이 발원하였다는 사실은 국가에서 인정한 한강의 발원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잉태하여 분출해내는 발원지는 생명의 중심지이다. 태백산에서 발원한 알물이 대한민국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축축하게 적셔줌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이에 한강 발원지인 이곳 태백,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영속하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태백산이 있는 이곳 태백은 큰 의미를 지닌 곳으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한강 발원지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발원지인 검룡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승 제 73호인 검룡소는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에 위치한다.

검룡소는 태백시 창죽동(삼수동) 금대봉 북사면에 있는 용천(湧泉)으로 지하수맥과 연결된 석회암 동굴의 입구가 계곡의 바닥에 노출되어 이에서 용출되는 물에 의해 직경 약 6m 정도의 소(沼)를 이루고 이에서 용출되는 물은 50m 정도 흘러 창죽천으로 유입된다. 검룡소의 위치는 동경 128도 55분 37초, 37도 13분 26초, 고도 954m로 갈수기에도 유량이 관측된다.

석회암 지역에 형성된 소(沼)로 지하수가 하루 5천여톤 가량 용출하고 있으며 솟아나온 물이 30여미터 경사가 완만한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며, 깊이 1~1.5m, 폭 1m의 침식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검룡소에서 용출된 물은 창죽천으로 흘러들며 유로는 침식 하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침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온 30℃가 넘는 7월에도 9℃의 수온을 유지하고 연중 용출되는 수량이 많아 하류의 창죽천까지 유로의 발달이 뚜렷하고 검룡소 부근의 하상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유수의 침식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 침식 하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형석은 근세 한국 1/50,000지형도(1918)의 도상계측자료를 근거로 한강의 가장 긴 물줄기가 있는 곳은 태백시의 금대산(당시 기록에는 어룡산으로 기록하고 있다)이라고 1981년 『월간 산』에 발표하고 이를 한강의 발원지로 발표하였다. 즉, 한강의 최상류 하천은 태백시의 창죽천이고 발원지는 창죽천의 집수역인 금대산(국립지리원의 지형도에는 금대봉으로 표기됨) 북쪽계곡으로 제안하였다. 이 발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발원지를 물의 특이성이나 신비성을 근거로 한 방법에서 특정 기준점에서 가장 긴 유로가 있는 지역 혹은 집수역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태백시의 금대산은 한강의 기점에서 가장 긴 물줄기를 가진 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룡소는 원래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 물이 솟아 나오는 물구덩이가 이곳에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금대봉의 원시림을 베어가기 위해 물구덩이에 돌과 나무를 넣어 메우고 그 위로 산판길[임도]을 닦았다고 한다.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산판 트럭들이 이 길을 통해 금대봉의 원시림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검룡소(儉龍沼)’라는 명칭은 김강산에 의해 명명되어, 1986년 4월 8일

자 강원일보에 소개되었고, 명명자에 의해 한강의 발원지로 제안되었었다.

1986년에는 매몰되었던 곳을 태백시 문화원에서 주도하여 준설하였고, 태백시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곳은 금대봉 북쪽 기슭을 집수역으로 하는 용천으로 석회암 동굴이 지하수맥과 연결되어 있고 동굴이 계곡의 바닥으로 열려 있는 형태이다. 용출수에 의한 흐름이 연중 유지되고, 한강의 본류에서 검용소까지 유로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검용소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서해 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 쪽의 상류 연못을 찾아 해마다 이곳에 이르러 가장 먼 상류의 연못임을 확인하고 이 연못 속에 들어가 용이 되려고 수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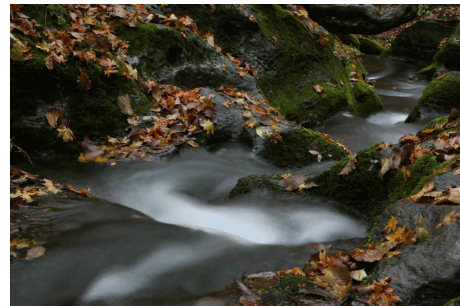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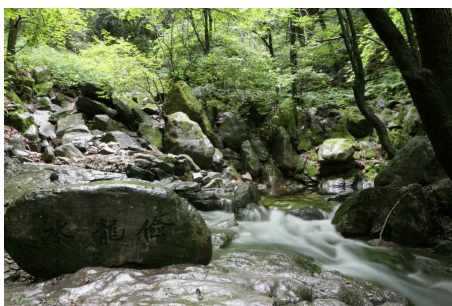
검용소에서 나온 물에 의해 침식된 유로는 그때 이무기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친 자국이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이무기는 물을 마시러 오는 소를 잡아먹어 동네 사람들이 연못을 메워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검룡소’라 명명한 배경은 물구덩이가 금대봉(金臺峰) 자락에 있고, ‘검룡소’ 설화를 만든 김강산 자신의 성(姓)이 김(金)이기에 ‘금(金)’字를 생각하고, 그 물구덩이에서 솟아 나온 물이 용트림하듯 와폭을 이루며 흘러내리기에 ‘용(龍)’字를 생각하여 처음에는 ‘금룡소(金龍沼)’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후 김강산은 당시 창죽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본인이 꾸민 이야기를 하며 그 물구덩이를 ‘금룡소(金龍沼)’라고 불러 줄 것과 금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말을 해 주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르기에 발음이 쉽지 않아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른다는 것을 보고, 발음이 어려운 ‘금룡소’보다는 단군 왕검의 ‘검(儉)’字를 차용하여 ‘검룡소(儉龍沼)’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검’이라는 말이 고어(古語)에 신(神)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룡소(儉龍沼)’라는 지명이 만들어졌으며,

1997년에는 검룡소에서 제 1회 한강대제를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국가 지정 명승 73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백 검룡소 1(심영진 작가 촬영)

태백 검룡소 2(심영진 작가 촬영)

(2) 낙동강 발원지 ; 용소(龍沼) · 황지(黃池), 그리고 천천(穿川)

낙동강 발원지로 잘 알려진 황지(黃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태백산과 연화봉 사이에 있으며, 화전리 용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함께 모여 남쪽으로 30리를 지나 작은 산을 뚫어 생긴 물길인 동점리 천천(穿川)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황지는 연못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거나 가물면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고, 이를 위해 국가에서 제전(祭田)을 내려주었다는 사실과 함께 황부자 전설 또한 잘 알려진 내용이다.

황지를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496.70km이고, 고생대 석탄기 임진층군과 고생대 대석회암층군의 경계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사시사철 지하수가 솟아 나오고 향시 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알려진 황지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기록이나 고지도를 통해 예전 사람들이 황지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본다면 황지는 우리들에게 좀 더 크고,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크기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지도〉 · 〈해동지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 태백산 권역 내에 백두산 천지와 같은

형태와 크기로 황지를 그려 노란색이나 푸른색으로 마감하였다. 이는 낙동강 발원지로서의 의미와 함께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근원이 매우 깊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재항(姜再恒)이 쓴 「황지기(黃池記)」(1719년)에는 그 너비와 세로 길이가 3~4 장(丈) 정도였고, 물은 맑고 깊으며 깨끗하고 조용하였는데, 너무 맑아서 물에 비치는 머리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인상은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1735 ~ 1737년 사이)에서 황지의 넓이는 반묘(半畝) 정도였고, 모양은 마치 바가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았으며 안쪽은 넓고 바깥쪽은 줄어들어 작았다. 물러서 움직이는 진흙탕이 연못 물가 주위에 3장(丈) 너비로 깔려있어 겨울철이 아니면 감히 걸어서 가까이 들어가려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심의승이 쓴 『삼척군지』(1916년)에는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그 크기는 40칸(間)이라고 하였다.

즉, 황지는 물이 고여 있는 50여평 정도 크기의 연못과 함께 그 주변이 높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72년에 제작된 「삼척부지도」를 보면 황지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작은 원으로 표현된 연못을 지나고 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황지 주변에 작은 연못(현재의 중지와 하지)이 있어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지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첫째 이야기는 “연못물이 이따금 흐리게 변하여 바로 황색으로 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연못 속 신룡(神龍)이 용궁(龍宮)을 청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연못에 ‘(황)黃’ 字가 들어간 이유를 설명한 윤선거가 쓴 『파동기행(巴東紀行)』(1664년)과 이보(1629~1710년)의 「유황지기(遊黃池記)」에 언급된 내용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의 옛 집터이기 때문에 ‘황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 송병선(1836~1905년)의 「자봉화입태백산기(自奉化入太白山記)」와 심의승의 『삼척군지』(1916년)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지의 못은 세 개가 있다. 상지(上池)는 둘레가 100m로 전설에 황씨의

집터요, 중지(中池)는 둘레가 50m로 황씨 집안의 방앗간 자리이며 하지(下池)는 둘레가 30m로 가장 깊은 못이며 변소 터라 이른다. 수량은 무한하여 대한(大旱)시기나 우기의 대홍수 시기나 수량의 증감을 모르는 항상 동일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름은 차고 겨울은 따뜻하다. 물밑까지 맑고 투명하여 어족이 전혀 살지 않는 못이니 황지라 하여 더욱 유명하다. 상지의 남쪽 언덕에 큰 구멍이 있는데 수심을 알지 못하는 수굴이다. 황지에 대한 전설은 이러하다. 옛날에 황씨 성을 가진 부자가 많은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았으나 돈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의 표본이요 노랭이었다. 하루는 황씨가 마구간을 청소하는데 태백산의 한 노승이 시주하기를 청했다. 주인이 꾸짖으며 백미 대신 소똥을 가래에 퍼 던져 주며 “이거나 받아 가라”고 하였다.

노승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받아 가는 것을 보고 있던 그 집 며느리가 민망스럽게 여겨 백미 한 되를 떠서 시부모 모르게 뒤쫓아가서 노승에게 주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노승이 며느리보고 말하기를 “이미 이 집의 운이 다하였으니 아기를 업고 속히 소승의 뒤를 따르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하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곧 집을 나서서 구사리 산마루까지 갔을 때 천지가 진동하고 큰 우렛소리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 집쪽을 돌아다보니 자기 시가는 둘러 빠지고 큰못이 되었더라고 한다. 며느리는 시부모와 가족을 생각하고 울며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측석에서 석불이 되고 말았다. 이 못이 황지의 세 못이며 미륵불은 지금의 구사리 산마루에 있는데 높이 9자에 아기를 업고 뒤를 돌아다보는 모양을 하고 길가 숲속에 우뚝 서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황지’라는 명칭은 원래 연못에 용이 있어 청소하는 과정에 물이 이따금 흐려지기에 ‘황지’라 하였는데, 19세기 이후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터로 이야기되면서 현재 많이 알려진 ‘황부자 전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실제 지형을 조사하여 낙동강이 시작된 곳이 황지가 아닌 천의봉 자락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작성된 각종 고지도

와 지리지를 보면 황지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황지보다 상류에 있는 화전동 용소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해져서 낙동강을 형성하였다고 하였지만,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라는 점은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발원지는 심산유곡보다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왕래하는 곳 이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부를 형성하는 조산(祖山)이나 당대의 문화 자산을 간직한 산의 가슴에 해당하는 곳을 발원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송병선은 “황지가 있는 장소가 태백산의 가슴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겹겹이 쌓인 성난 마음이 이곳에 도착하니 확 풀렸는데, …” 라고 하였다.

태백산의 가슴이면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는 진정 낙동강의 발원지라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다. 태백산이 지닌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의미와 함께 각종 기록에 나타난 황지를 생각한다면 이곳은 진정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지(聖地)로 여겨야 할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발원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용담(龍潭)

고지도(古地圖)인 〈상백본 척주지〉의 태백산과 黃池(1870년 경)에는 현재의 太白山 소도 당골 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所道池를 타원형으로 그려서 푸른색으로 채색하였는데, 所道池에서 黃池로 연결되는 물줄기가 있으며, 黃池에서는 黃池 북쪽에 있는 黃池山에서 발원한 물과 합류하여 太白山 남쪽의 穿川[구문소]을 지나 안동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표기하였다.

1916년 자료에 의하면 이 연못은 소도리 당곡동(唐谷洞)에 있었으며, 당시 못의 둘레는 15칸[間]이며 그 깊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현지조사 결과와 지도에 표기된 위치를 종합해 보면 所道池는 현재의 太白山 소도 당골 내에 있는 청원사 경내의 용담으로 볼 수 있다. 용담과

관련하여 전하는 정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이 산다는 용담[용소]은 옛 삼척군 황지읍 소도리에 있는 청원사의 용담에 얹힌 전설이다. 옛날 낙동강 하류 지방에 편모를 모시고 3형제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어머니가 병을 얻어 시름 시름 앓아 눕더니 어머니의 하반신이 차츰 용으로 변하여 갔다. 3형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백방으로 물어보고 약을 써 보았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아들 3형제를 불러 놓고 “이 강줄기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태백산이란 명산이 있다. 그 산 중턱에 용소라는 큰못이 있으니 나를 그곳에 데려다 달라.” 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난데없이 용마가 나타나서 집앞에서 엉엉 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말에 태우고 태백산 중턱 용소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매우 만족하고 기쁜 낯빛으로 아들 3형제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이 용소에 들어가 살터이니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길만이 나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조금도 섭섭히 생각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돌아가라.” 고 당부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벽력이 울리며 폭풍우가 쏟아지더니 용마도 어머니도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다만 용마의 발굽에 달렸던 말편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말편자는 현재 청원사(淸源寺)에 보관되어 전해지고 있다. 용소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 3형제는 서운한 마음으로 태백산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중 유복자인 막내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냉정하게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간 참혹한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다가 마침내 태백산 중턱에서 돌미륵이 되어 버렸다. 이 돌미륵은 지금도 용소를 멀리서 굽어보면서 인용이 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용담에는 지금도 인용이 서식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로 1년에 두 번 씩 수질이 변한다고 한다. 청정하던 물이 갑자기 흐린 물로 변하여 어떤 때는 약 2일 동안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태백시 소도동 구 합태광업소 자리에서 약 5백m 지점, 태백산의 중턱에 청원사라는 절이 있다. 경내에는 아름다운 석탑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다. 이 절은 원래 탐원사라는 옛 절터에 새로 건립했다. 절 앞에 많은 수량이 솟아 나오는

용담이라는 깊은 소가 있다. 수원은 태백산에서 발원, 지하로 스며들어 이곳에서 용출한다. 이 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황지를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이 소를 용담 또는 용소라 부른다.



청원사 내에 있는 소도연[용담]과 극락보전 전경 (2009년)

■ 천천(穿川 ; 구문소[孔淵])

황지와 화전동의 용소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철암에서 이어지는 물줄기와 만나는 곳이 천천(穿川) 유역이다. 이 지역은 산지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하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천천(穿川) 하나 뿐으로 여겨왔다. 그 상류는 세 곳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화전리의 용소(龍沼)에서 발원하고, 둘째는 황지리의 황지에서 솟아 오르고, 셋째는 혈리의 석굴(石窟)에서 흘러나와 동점리에서 석문(石門 ; 구문소[孔淵])을 지나 철암천과 합류하여 경상도 낙동강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낙동강 상류이다. 즉, 황지에서부터 태백산 동쪽의 수많은 계곡물이 모여 구문소까지

쏟아져 왔지만 산이 가로 막혀 더 이상 흐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를 통과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져서 산을 뚫은 냇물이라는 뜻을 지닌 穿川[구문소]이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穿川의 양쪽 언덕에 마주보고 솟아있는 돌벽을 석문이라 불렀다. 천천(穿川)은 구멍 연못[孔淵]으로도 불렸으며, 현재는 ‘구문소’를 이른다. 이곳은 그 형상이 돌로 만든 홍예문과 흡사하여 이 지역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관에서 제전(祭田)을 설치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보(李簾)의 「유황지기(遊黃池記)」와 강재항(姜再恒) 「황지기(黃池記)」에는 천천(穿川[구문소])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다시 구문소로 가서 이리저리 마음껏 구경했다. 하천은 황지에서부터 태백산 동쪽의 수많은 계곡물을 모아 모아서 이곳까지 쏟아져 왔지만 산이 가로 막혀 더 이상 흐름이 단절되었는데 하류로 통하게 구멍이 뚫려서 커다란 구멍하천이 만들어졌다.

구문소 안을 살펴보니 구멍의 넓이는 십보(十步) 정도이고 높이는 수십장(數十丈)쯤 된다. 활같이 휜 모양으로 된 안이 넓은 집[아치형집]이 하나 지어져 있고 구멍[竇] 안팎으로 수십은 바닥을 알 수 없으며 구멍 상류와 좌우는 모두 암석이었고 가파르고 깊숙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때는 아직 하천의 얼음이 아직도 단단하게 얼어있는 날씨였기 때문에 빙판 위를 걸어서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니 마치 유리로 만든 전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말하는 소리와 구멍이 상응한 메아리는 금석(金石)이 나오는 것 같았다. 구멍 안 빙판 위에는 커다란 나무 한그루가 걸쳐 눕혀있었다. 내가 채찍으로 두드리니 북소리인 듯 천둥문의 큰 북 같았으니 모두 구멍이 도운 바다.

구멍 물길 동쪽 벽 귀퉁이에는 굴이 있었으니 입이 딱 벌어져서 수염만 문지를 뿐이다. 컴컴하고 어두워 측정을 할 수 없는데 사람들 말이 이 굴은 위로 산 정상과 통한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천지간 조화의 흔적이 이와 같이 광대하고 기이하니 큰 신령이 도끼로 뚫어놓은 굴이

아니겠는가 …

… 황지의 물이 연화봉 아래로 흘러가서 그 곳에서 산 동쪽의 여러 물과 합쳐져 이른바 아흔아홉 개 하천이라고 하는 데 처음에 이것들이 동쪽으로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남북으로 가로막은 산 때문에 남쪽으로 흘러갈 수 없었는데, 그 후 산허리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똑바로 흘러가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산을 뚫은 냇물이라는 뜻의 천천[穿川: 구문소]이 되었다.

그 옛날 물길은 산을 돌아서 남쪽으로 흘러가다 다시 동쪽으로 꺾고 북쪽으로 흘러들어 갔지만 지금은 진흙으로 메워진 채로 있다. 천천의 양쪽 언덕의 돌벽은 마주보고 솟아있는데 높이가 각각 사람 키 10키쯤 되며 석문이라고 부른다. …

이인상(李麟祥)의 『능호집(凌壺集)』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실려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 사람이 말하기를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황지(黃池)의 물이 예전에는 산 뒤쪽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갔지만 용이 이 구멍을 뚫어 물길이 바뀌었는데 물 밑바닥에는 용이 아마도 엎드려 숨어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황지에서부터 태백산 동쪽의 수많은 계곡물이 모여 구문소까지 쏟아져 왔지만 산이 가로 막혀 더 이상 흐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를 통과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져서 산을 뚫은 냇물이라는 뜻을 지닌 穿川[구문소]이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천천(穿川)의 양쪽에 마주 보고 솟아있는 돌벽을 석문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구문소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 삼척군 장성읍 동점리(洞店里)에 엄종한(嚴宗漢)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식생활이 곤란하므로 매일 구문소에서 낚시와 그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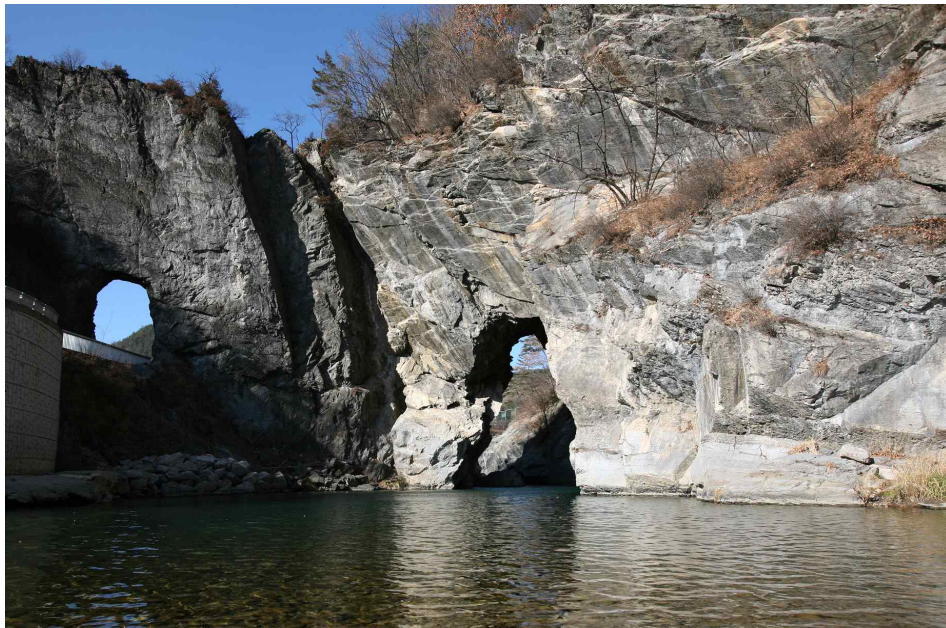
고기를 잡아 십여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그물을 쳐 놓고 이튿날 아침 일찍 그물을 건지려다가 실족하여 물 속에 빠져 정신을 잃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용의 배에 자기 몸이 찢리는 것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자기는 죽었구나 하는 체념과 살아 헤어 나가야겠다는 결심등 착잡한 심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눈을 감고 물밑을 기어 다시 큰 물 속을 들어가니 물깊이가 몇천 길이 되는 것 같았다. 위를 쳐다보니 중앙에 한 동천굴로 통하는 하늘이 보이는데 대낮의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고 평평한 모래밭이 십리나 되는데 돌이 태반이요 큰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인적은 없어 고요하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구중궁궐이요 용왕의 궁중이라 생각하고 환하고 평평한 모래 길을 따라 건다가 제일 큰 대궐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대궐 안을 살피니 문 위에 두개의 그물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잃어버린 자기의 것이기에 이상히 여겨 기웃거리며 만져 보는데 돌연 안에서 백발 노인이 나오더니<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왔으며 그것을 왜 만지는가?>고 물었다. 그는<그물을 잃어 찾다가 실족하여 이곳까지 왔나이다.>하고 사실대로 말했다. 노인은 말하기를<내 어린 두자식이 놀러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을 뻔하여 화가 나서 그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두고 병이 나서 앓고 있다가 오늘에야 완쾌되었다. 지금은 사냥을 가고 있는데 곧 돌아 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거라.>라고 말했다. 엄중한은 당황하여<길을 몰라 갈 수 없습니다.>고 하니 노인은 염려 말라고 하면서<흰 강아지 한 마리를 줄 터이니 강아지를 따를 것이요 가는 도중에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소매 속에서 흰떡 한 개를 주면서 길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흰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달려가니 어느덧 바다 깊은 곳에 이르렀다. 오는 도중 강의 좌우 풍경이 절경이었다 한다. 큰 파도가 일며 물 중간이 열리며 갈라져 큰 길이 나타났다. 자꾸 걷는 도중 배가 고파 흰떡을 먹으니 마음이 상쾌하고 배가 부르며 길을 걸어도 조금도 고달프지 않았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어느 한 곳에서 강아지가 멈추므로 살펴 보니 그곳이 바로 그물을 쳤던 곳이라 강아지와 함께 바위 위에 올라가 자기 집을 바라보니 무당의 굿소리가 나며 조문객이 오락가락 하였다. 엄중한은 이상

히 여겨 알아본즉 자기가 익사하여 행방이 묘연한지 벌써 3년이 되어 두 아들이 부친의 탈상을 겸한 3년상에 영혼을 위로하는 무당의 굿소리라 하였다. 길을 인도하던 강아지는 즉시 죽고 흰떡은 흰 돌이 되었다. 강아지의 시체는 천천 뒷산에 매장하고 백병석(흰떡)은 엄씨가 잘 간직하여 가보로 모셨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점점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3년만에 엄중한이 죽어 흰 강아지 무덤 근처에 매장하였다. 그 뒤 경북 대현사람 조성이란 자는 엄씨의 사위로 집이 가난하여 장인이 백병석을 가보로 하여 천금의 부자가 된 것을 탐내어 여러 차례 딸에게 물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듣지 않고 깊이 숨겨 두었는데 장인이 죽은 뒤에 훔쳐 갔다고 한다. 엄중한의 묘는 지금 천천 뒷산에 있고 묘앞 비석에는 그 사적이 적혀 있으며 백병석은 안동 방면 조씨 가문 중에 보관되어 유물로 전하고 있다 한다. 이 이야기는 문집 [유계집]에 실린 것이 세상에 퍼졌다 한다.



孔淵[구문소] 전경 (철암천에서 황지천 방향)

(3) 오십천,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되다.

오십천은 강원도 태백시와 삼척시의 경계인 백병산에서 시작되어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50여 번을 굽이쳐 흐르면서 삼척시를 동서로 양분하기에 이 하천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시킨다. 발원지는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백병산 북서쪽 능선 가까이에 있으며, 고위평탄면 상에 나타나는 고산 습지이다.

오십천 발원지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척주지』(허목, 1662년), 『여지도서』, 『삼척군지』(심의승, 1916년) 등의 기록을 보면, 오십천(五十川)이 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라진 별도의 산인 우보산(牛甫山) 혹은 유현(楡峴)에서 발원(發源)하는데 그 발원지를 구사홀(九沙屹)이라 하며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미인 폭포]이고, 이 물이 동쪽으로 백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오십천’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부 기록에서는 부에서 물 근원까지 마흔 일곱 번을 건너야 하므로 대충 헤아려서 오십천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 제작된 많은 고지도에 태백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을 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변사인방안지도(奎12154)>에는 동해로 향하는 오십천(五十川)이 백산(白山)과 유현(楡峴) 자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백산(白山)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더 길게 그렸는데, 이는 오십천의 실제 발원지가 도계 구사리 백산 8~9부 능선임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표현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한강과 낙동강이 현재의 태백시 권역 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비해, 오십천은 행정 구역상 삼척시 권역 내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태백시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는 태백산의 권역을 태백산에 한정함으로써 나타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보(李簾)의 「유황지기(遊黃池記)」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

간의 기운이 태백산에 이르러 동해·서해·남해에 까지 이어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대간 줄기와 함께 태백산 권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오십천을 이루어 동해에 닿으며, 한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는 서해에 닿고, 황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남해에 이르고 있음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태백산은 산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봉우리를 포함하는 폭 넓은 권역을 말한다. 그리하여 동쪽으로는 우보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 북쪽으로는 금대봉,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에 이른다. 이처럼 태백산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권역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함께 이인상(李麟祥)이 쓴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를 보면 이산의 높은 봉우리로는 천의(天衣)·상대(上帶)·장산(壯山)·함박(含朴) 등이 있고, 물에는 황지(黃池)·공연(孔淵)·오십천(五十川) 등이 있으며 신(神)으로는 천왕(天王)과 황지(黃池)의 신이 있다고 하였다. 즉, 태백산 자락에서 오십천이 시작됨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목의 『기언(記言)』 「태백산기(太白山記)」를 보면 ‘태백산은 신라 때의 북악(北嶽)으로 문수(文殊)·대박(大朴)·삼태(三台)·우보(虞甫)·우검(虞檢)·마라읍(摩羅邑)·백산(白山) 등이 모두 큰 산이며 동이(東曉)의 진번(眞番) 땅에 자리 잡고 있다.’ 라는 글이 보인다. 즉, 오십천이 시작되는 백산을 태백산 권역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백산의 권역을 위와 같이 인식한다면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십천 지형을 살펴보면 심한 곡류를 하면서 삼척시를 동서로 양분하며, 하구로부터의 거리는 56.33km이다. 이 하곡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시킨다. 오십천 발원지는 고위평탄면 상에 나타나는 고산 습지로써 해발고도는 1,148.3m로 매우 높지만 발원지 주변의 경사는 17.3°로 산지 능선 부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급사면에 비해 완만하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지역을 습지 또는 늪지로 인식하며, 빗물이나 이슬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아 보이며, 지하수 용출에 연속성이 있기에 유로의 발달이 항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태백산 권역을 폭넓게 인식한 기록을 바탕으로 오십천이 태백시와 삼척시의 경계에 있는 백병산 북서쪽 능선 가까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동해안으로 향하는 가장 긴 물줄기가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동해·남해·서해로 흘러드는 가장 긴 강이 모두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백산 권역을 대부분 아우르고 있는 태백시는 진정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큰 기운과 힘이 솟아나는 심장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3) 사통팔달, 태백산에서 외부로 향하는 길

태백산에서 외부로 향하는 길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열려있다. 동쪽으로는 유령[느릅령]을 통해 삼척 도계와 연결되며, 통리를 통해 삼척 도계와 삼척 가곡-원덕으로 연결된다. 서쪽으로는 두문동재와 만항재·싸리재를 통해 정선과 연결되며, 화방재를 통해 영월지역과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새길령을 통해 천평-봉화로 이어지고, 낙동강이 이어지는 강 유역을 통해 구문소-봉화지역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는 피재를 통해 삼척 하장·정선·강릉으로 이어진다.¹⁾

이와 같이 태백지역에서는 사방으로 연결된 길이 나 있어 태백을 에워싼 모든 지역에서 태백으로 올 수 있으며, 또한 태백에서 모든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지역이 바로 태백이다.

이와 관련하여 1911년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리지』(강원도 편)를 보면 上桶洞에 龍井幕, 鐵岩洞에 식터쥬막과 구무쇼쥬막, 禾田洞에 嚴木亭幕, 黃池洞에 橋峴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上桶洞의 龍井幕은 황지에서 느릅령을 지나 삼척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는데, 느릅

1) 피재를 통해 상인들이 태백지역과 하장·정선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하였으며, 이들의 행로 안전과 상업 번성을 위해 제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지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는 사실은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익승, 『삼척군지』, 하장면 적각리조, 1916. <… 직치(稷峙)에 산령각(山靈閣)이 있는데 1890년대에 상인들이 자금을 거두어 건립하였다.…>

령을 전후한 위치에 주막을 만들어 이를 오가는 상인들이나 민간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鐵岩洞에 있었던 식터주막과 구무소주막은 당시 경북 내륙의 낙동강 유역에 형성된 길을 통해 ‘봉화 - 구문소 - 철암’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있었던 주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禾田洞에 있었던 嚴木亭幕은 황지에서 피재를 거쳐 하장과 정선으로 향하는 이들을 위한 주막이었으며, 黃池洞의 橋峴幕은 황지를 중심으로 정선·삼척·봉화·영월을 연결하는 길이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있었던 주막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막을 통해 1911년 당시 태백사에서 외부로 연결된 주 도로가 어디였는지와 사람들이 주로 지나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각종 유산기나 고지도에 표현된 길을 보아도 태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遊山記를 통해본 옛길

태백산과 황지를 보기 위해 다녀간 사람들이 쓴 유산기를 보면 당시 태백을 중심으로 봉화지역과 연결되는 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태백지역 내의 이동 경로도 파악할 수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능호집(凌壺集)』에 실려있는 이인상(李麟祥)이 쓴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를 보면 봉화에서 태백산 - 황지 - 철암 - 봉화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봉화 - 50리 - 각화사 - 상대봉 - 태백산 천왕당 - 소도리점(素逃里店)[소도 내] - 20리 - 황지 - 소뢰현(素耒峴)[송이재] - 철암(홀로 우뚝 솟아 있는 산봉우리는 높이가 수십 장(丈)이나 되고 마치 투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음) - 10리[백산] - 방허촌(方墟村)[방터골] - 공연(孔淵)[구문소] - 50리 - 홍제암(洪濟菴) - 60리 - 봉화’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였다.

즉 필자는 현재의 봉화 - 태백산 - 소도 - 황지 - 송이재 - 철암 - 백산 - 방터골 - 구문소 - 봉화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태백산 천왕당과

황지, 구문소를 본 후 다시 봉화로 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길 중의 하나인 낙동강 유역을 통한 봉화와의 연결로와 태백산에서 상대봉을 거쳐 봉화로 이어지는 길을 알 수 있다.

강재항(姜再恒)의 글을 모은 『입재유고(立齋遺稿)』에 실린 「황지기(黃池記)」를 보면 봉화에서 천평을 지나 새길령, 혈리 동굴, 황지, 철암, 구문소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춘양현(春陽縣) - 각화사(覺華寺) - 도심촌(道深村) - 자우동(雌牛洞) - 10여 리 - 소공산(召公山) - 웅유령(熊踰嶺) - 천평촌(川坪村) - 10여 리 - 조도령(鳥道嶺) - 박외촌(博隈村) - 공암(孔巖) - 황지(黃池) - 서하동(瑞霞洞) - 본적동(本寂洞) - 황지 앞 하천 - 노령(弩嶺) - 철암(鍊巖) - 편의령(便宜嶺) - 자지산(紫芝山) - 동점(銅店)을 바라봄 - 천천(穿川) - 왔던 길을 찾아 따라가서 - 자지산(紫芝山) - 황지 - 천평(川坪) - 고적령(高積嶺) - 봉화’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였다.

즉 현재의 봉화 - 도심촌 - 천평 - 새길령 - 혈리 동굴 - 황지 - 노령 - 철암 - 구문소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 중의 하나인 ‘태백 - 혈리 - 새길령 - 천평 - 고적령 - 봉화’로 이어지는 길을 알 수 있다. 이 길은 봉화에서 태백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였으며,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각종 고지도에도 이 길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보가 쓴 「유황지기(遊黃池記)」를 보면 봉화에서 구문소 - 철암 - 황지 - 혈리 - 천평 - 봉화 도심촌으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감동(高甘洞)[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 마전령(麻田嶺) - 용혈사(龍穴寺) - 고선촌(高鮮村) - 홍제암(洪濟庵) - 월암(月巖) - 미암(微巖) - 구문소 - 山 바깥쪽 평탄한 길 - 소야곡(蘇野谷) - 십여리 - 철암촌 - 손이령(孫伊嶺) - 황지 들판 - 본적사 있는 절골 - 민가에서 잠자리 - 황지 - 서학동(瑞霞洞) - 박외동(朴外洞)[바위굴을 구경] - 박외촌(朴外村) - 業平

村[어평마을] - 신절령[新節嶺] - 川平村[천평마을] - 고적동(苦積洞) - 도심촌(道心村) - 각화사(覺華寺) - 춘양(春陽)’ 으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였다.

즉 현재의 봉화 - 구문소 - 철암 - 송이재 - 황지 - 서학골 - 혈리 - 어평 - 천평 - 봉화 도심촌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이었던 ‘태백 - 혈리 - 천평 - 고적령 - 봉화’ 로 이어지는 길과 태백에서 구문소를 지나 낙동강 유역을 통해 봉화와 연결되는 길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유산기를 통해 태백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인 새길령을 통해 천평-봉화로 이어지는 길과 낙동강 유역을 통해 구문소-봉화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지역 내에서 ‘혈리 - 소도 - 황지 - 송이재 - 철암 - 구문소’ 로 이어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古地圖를 통해 본 옛길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를 보면 태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연결된 옛길을 알 수 있다. 이들 지도에는 주로 빨간색이나 노란색, 또는 검정색 실선으로 길을 표기하였으며, 주로 고갯길과 하천 옆으로 난 길을 표기하였다. 대표적인 고지도 3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745년에서 176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변사인방안지도(奎12154)〉 강원도 삼척부 지도를 보면 태백산과 함백산 사이에 난 고갯길을 통해 봉화·영월과 연결되며, 이 길은 ‘황지 - 느릅령’ 으로 이어져 삼척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옛길을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이었던 ‘태백 - 혈리 - 사길령 - 천평·어평 - 봉화’ 로 이어지는 길과 태백에서 느릅령을 지나 삼척으로 연결되는 길을 알 수 있다.



〈비변사인방안지도(奎12154)〉강원도 삼척부 太白山과 黃池(1745년에서 1760년 사이)를 중심으로 한 옛길

1795 ~ 182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古4709-37)〉 강원도 지도를 보면 태백산 서쪽 자락에 난 길을 통해 봉화·영월과 연결되며, 낙동강이 이어지는 유역을 통해 구문소 - 황지 - 느릅령 - 삼척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알 수 있고, 옛길을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이었던 ‘태백 - 혈리 - 사길령 - 천평·어평 - 봉화’로 이어지는 길과 봉화에서 구문소를 지나 황지 - 느릅령을 지나 삼척으로 연결되는 길을 알 수 있다.



〈여지도(古4709-37)〉강원도 太白山과 黃池(1795 ~ 1822년 사이)를 중심으로 한 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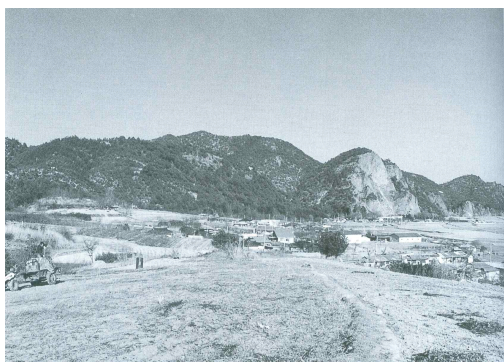
특히 봉화와 태백을 연결하는 주요 고개였던 사길령은 현재 태백시 소도동 혈리의 정거리에서 천평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 강원도에서 경상도 춘양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고갯길에 있는 신앙 공간은 산령각과 함께 국수당이 있으며, 신수(神樹)로 모시는 엄나무가 있다. 조선 후기에 이 고개를 넘나들던 보부상들이 이 고개를 넘나들며 안전을 기원하면서 상업의 번창을 위해 산령각을 짓고 매년 음력 4월 15일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느릅령은 백두대간 줄기인 피재에서 백두대간과 갈라진 줄기가 낙동정맥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에 나타나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경북과 영서지역 사람들이 태백을 거쳐 삼척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고개를 넘나들던 사람들은 고개가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든 데다 짐승, 특히 호랑이가 득실거려 호랑이의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이에 고개를 넘을 때에는 무서워서 혼자 넘지 못하여 여러 명이 모여 넘었고, 어떤 때에는 짐승을 쫓기 위해 징과 팽과리를 치며 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느릅령 정상에 산령각을 지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 고개를 넘나들며 안전을 기원하면서 상업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16일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2. 삼척의 역사 바로알기

1) 선사시대의 삼척

원덕읍 산양리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삼척지역에도 10만여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²⁾ 이후 옥원리유적, 갈천동유적, 증산동유적 등 여러 지역에서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찌르개, 찌개, 밀개, 격지 등 여러 점의 뿔석기(구석기 유물)가 발견되었다. 이웃한 동해시 지역에서 다수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삼척지역의 주요 대소하천 유역의 구릉지나 동해안에 연접한 해안단구상의 평탄면에서 구석기시대 관련 유적이 보다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³⁾ 이를 통해 삼척의 폭넓은 지역에서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생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



산양리유적 전경



산양리 출토 주먹도끼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는 최근 증산동유적 발굴조사에서 결합식 낚시와 석부 등 유물 몇 개가 수습되어 그 존재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양양 오산리유적을 비롯하여 울진과 동해시 지역에서 다수의 신석기유적이

2) 홍영호,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1)」, 『박물관지』제6호, 강원대중앙박물관, 1999.

3)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4) 아래 산양리 구석기시대 유적 관련 사진은 다음 논문에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홍영호,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1)」, 『박물관지』제6호, 강원대중앙박물관, 1999.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삼척지역의 주요 하천 유역의 사구지대나 주변의 구릉지에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생활유적(生活遺蹟)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⁵⁾

청동기 시대 유적·유물의 경우 인근 동해시 지역에서 지석묘·석관묘 등의 유적과 반달형 돌칼·마제석검·마제석촉·마제석부·민무늬토기·어망추 등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삼척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원덕읍



산양리 출토 굽개

호산리에서 마제석촉 1점, 1960년대 봉황산 서편에서 석부와 석착(돌끌), 교동 뒷산에서 석부(돌도끼)와 석촉(돌화살촉), 월암산에서 석부, 1965년경 남산절단공사 절개지에서 마제석검 1점, 1967년 원덕읍 장호리에서 석검 1점, 석촉 4점, 1994년 교동 택지개발지구와 종합운동장 사이의 구릉지에서 화살촉 1점과 다량의 민무늬토기 조각, 성북동 갈야산 서쪽 기슭에서 석부 1점과 마제석검조각을 수습한 적이 있다.

그리고 출토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근덕면 교가리 도원동에서 석검조각 1점, 원덕읍 옥원 3리 송실마을에서 반달돌칼로 보이는 석기 1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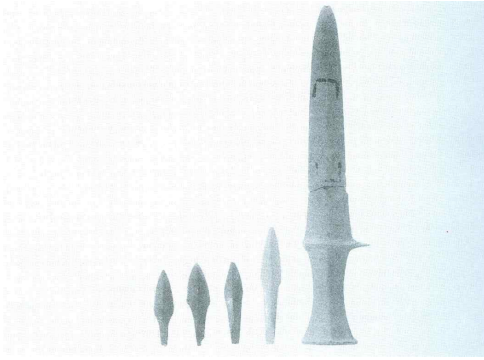
향후 삼척의 주요하천인 오십천, 마읍천, 추천, 용화천, 호산천, 가곡천 등 하천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청동기시대의 삼척지역 문화 양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⁶⁾

5)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6) 아래 청동기시대 유적 관련 사진은 다음 보고서에 각각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호산리 LNG산업단지내 유적 발굴 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장호리 출토 간돌검 및 돌화살촉



호산리 1호 주거지내부 위석식 노지

삼척지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철기시대 유적지로 주요 하천인 오십천 하류역의 오분동유적, 마읍천 하류역의 하맹방리유적, 가곡천 중류역의 노경리유적 등이 알려졌다. 이중 1992년 삼척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근덕면의 하맹방리유적은 마읍천 하류역의 북쪽에 형성된 사구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영동 남부지역에서 최초로 철기시대 여(呂)자형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으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향후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삼국 형성 이전의 실직국과 그의 영역에 속한 여러 읍락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⁷⁾⁸⁾



하맹방리 철기시대 여자형 주거지



호산리 철기시대 4호 주거지 유물 출토

7)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8) 아래 철기시대 유적 관련 사진은 다음 보고서에 각각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관동대박물관, 『삼척 하맹방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35책, 2004. ;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호산리 LNG산업단지내 유적 발굴 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그리고 철기시대에 들어서 동해안에 창해 3국이라 불리는 군장국가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릉의 예(濊)국, 삼척의 실직국(悉直國), 울진의 우유국(優由國) 혹은 파단국(波旦國)이 그것이다. 문헌상의 기록은 없으나 당시 세 나라 사이에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져 실직국이 파단국을 합병하고 이어서 실직국은 다시 예국의 침공을 받아 마지막 임금이라고 전하는 안일왕(安逸王)이 울진으로 피난하여 산성을 쌓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실제로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 안일왕산성이라 불리는 산성터가 남아있고 관련된 지명과 말이 지금도 남아있다. 통고산, 복두괘현, 왕피리, 병위동, 포전, 임광터, 핏골, 거리곡, 왕피천 등의 지명과 “예 나온다 그쳐라” “예 쳐온다 그쳐라” 등의 말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삼국·남북국 시대의 삼척

삼척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는 실직국이 문헌상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3년(102년)이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파사이사금 23년(102년) “가을 8월에, 음집벌국(音汁伐國-경북 안강)과 실직국국이 경계를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판결해 주기를 청했다. 왕은 이를 어렵게 여겨 금관국 수로왕이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함으로 불러서 물었는데, 수로가 건의해서 다투던 땅을 음집벌국에 속하게 했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게 했는데, 다섯 부는 모두 이찬(伊飡, 신라의 17관등 중 제2 관등)으로써 주관하게 하였으나 오직 한기부(漢祗部)만이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써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수로왕은 노하여 종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주(漢祗部主) 보제(保齊)를 죽이고 돌아갔다. 그 종이 달아나서 음집벌주 타추간(陶鄒干)의 집에 의지해 있었으므로,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가 보내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음집벌국을 정벌하니, 그 왕은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했으며, 실직과 압독(押督-경북 경산) 두 나

라 임금도 행복해 왔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5년(104)에는 “가을 7월에 실직이 배반했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쳐서 평정하고, 그 남은 무리들을 남쪽 변경으로 옮겼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신라가 본격적인 영토확장 정책을 편 것은 지증왕 때부터인 것으로 이해되는 만큼, 파사왕 당시에는 실직국의 영토를 실제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조공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지리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직국의 세력권은 삼척지방에서 남으로는 경상북도 영덕 남쪽 청하까지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하 이북의 영덕, 영해, 울진 지방이 모두 고구려 땅이었다고 했고, 경덕왕 때 한화정책에 따라 지명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 일대의 지명이 모두 고구려식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라가 지증왕 6년(505년)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군주로 파견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고구려 세력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삼척을 중심으로 남쪽의 청하까지 그 세력권으로 삼았던 실직국이 점차 쇠퇴하면서 고구려 세력과 신라 세력의 각축 속에 한 때는 고구려의 영향도 받다가 지증왕 이후 확실히 신라의 영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 내용으로, 내물왕 40년(395년) 가을 8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했으므로, 군사를 내어 그들을 실직의 언덕에서 크게 깨뜨렸다.

눌지왕 34년(450년) 가을 7월에 고구려 변방의 장수가 실직(悉直)의 언덕에서 사냥하니 하슬라(何瑟羅) 성주 삼직(三直)이 군사를 내어서 엄습하여 죽였다. 고구려왕이 이를 듣고서 화를 내고 사신을 보내어 일러 말했다.

“내가 대왕과 사이좋게 지냄을 지극히 즐거워하던 터인데, 이제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경에 있는 장수를 죽이니 이 무슨 뜻입니까?”

이에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범했으므로 왕이 말을 낮추어 그 것을 사과하니 그제야 돌아갔다.

자비왕 11년(468년) 봄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의 실직성을 습격했다. 이와 같은 해인 장수왕 56년(468년)에는 봄 2월에 왕이 말갈군사 1만 명으로 신라의 실직주성을 쳐서 빼앗았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이 일대가 그 때까지 확실히 어느 한 나라의 영토로 정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선덕여왕 11년(642년)에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키자 고구려의 구원을 청하기 위하여 사신으로 갔던 김춘추에게 고구려왕이 출병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죽령(竹嶺)은 본시 고구려의 땅이니, 그대가 만약 죽령의 서북쪽 땅을 되돌려 준다면 군사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한 사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의 소국에 지나지 않았을 실직국이 과연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장악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1세기경의 동해안의 정세를 보면 북쪽에는 옥저와 동예가, 남쪽으로는 사로국(신라의 전신)을 비롯한 소규모의 군장국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기에 실직국은 해상활동 등을 통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직국의 중심이었던 삼척은 뒤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지증왕 13년(512년)의 우산국 정벌 때의 출항기지로 추정될 만큼 오십천 하류에 뛰어난 조건의 자연 항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에 필요한 넓은 연병장, 조선(造船)에 필요한 좋은 목재 산출 등의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실직국은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하여 주변 소국들과 교역하는 한편 동해 남부 해안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중간 거점으로서 울진, 영덕, 청하 등지의 주요 요소에 그 세력권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실직국은 파사왕 이후 신라의 영향 아래 신라문화권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로 이 당시의 유물이 모두 신라식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실직이 확실한 신라의 영토로 된 것은 지증왕 6년(505년)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지증왕 13년(512년)에는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복종하여 따르게 함으로써 동해안 일대는 완전한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이후로도 실직은 동해안의 정치·군사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니 법흥왕11년(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된 울진봉평신라비에 보이는 형 집행의 총책임자로서의 실지도사의 관명과 통일 이전 신라의 군사조직인 6정의 하나인 실직정이라는 군단이 설치되었던 점 등이 그 증거라 하겠다.

그 후 태종무열왕 5년(658년)에는 선덕여왕 8년(639년)에 북소경으로 삼았던 하슬라 땅이 말갈과 붙어 있어 백성들이 편안할 수 없다하여 소경을 없애고 주(州)로 삼아 도독을 두어 다스리게 하는 한편 다시 실직을 북진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삼척이 그만큼 중요시되었던 증거라 하겠다.

이어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삼척의 실직주와 강릉의 하슬라주를 합쳐 명주(溟州)라고 이름을 바꾸고, 실직주의 소재지는 삼척군으로 개명(改名)하여 태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이후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삼국사기』 제35 지리2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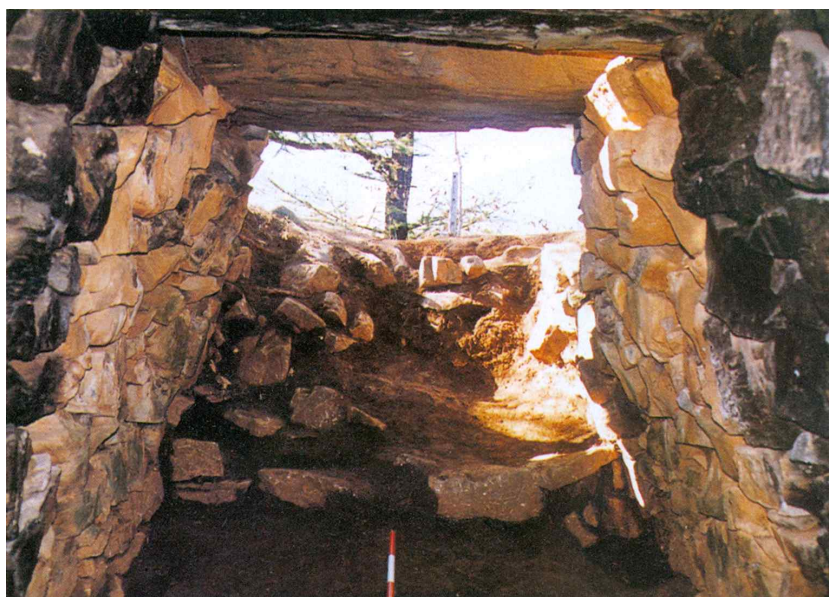
“삼척군은 본래 실직국인데 파사왕 때에 항복하였다. 지증왕 6년에 주(州)로 만들어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고,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 그대로 부른다. 그 아래 소속된 현은 넷으로 죽령(竹嶺)현은 본래 고구려의 죽현(竹峴)을 개명하였으나 지금은 미상이고, 만경(滿卿, 또는 滿鄉이라고도 함)현은 본래 고구려의 만약(滿若)현을, 우계(羽谿)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곡(羽谷)현을, 해리(海利)현은 본래 고구려의 파리(波利)현을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은 미상하다.”고 하였으니 당시의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천상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 지역에 크고 작은 초기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생겨나던 당시에 우리 고장 삼척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직국이라는 강력한 세력권을 유지했던 군장국가가 성립되어 한 때는 주변 소국을 병합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먼저 팽창을 시작한 신라의 조공 관계적인 복속을 받았고, 한때는 고구려의 영향하에 놓였다가 마침내 신라에 완전히 병합되고 말았다.

지금도 실직국의 치소였던 삼척에는 실직(悉直)에서 음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직(史直)과 어정(御井, 임금이 마시던 샘)에서 유래했다는 ‘어물리’라는 지명과 당시의 고분군 그리고 실직국 때의 성터라고 전해오는 갈야산성(葛夜山城) 등의 유적이 남아있어 당시의 위상을 말해주는 듯하다.⁹⁾



갈야산 고분군 출토 유물 토기류



삼척 사직동 고분군 1호 내부

9) 삼척지역에 진출한 신라와 관련한 아래 사진은 다음 보고서에 각각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김일기, 「三陟 葛夜山 出土 新羅土器」『江原史學』4輯, 강원대학교사학회, 1988.

관동대학교 박물관, 『三陟 城北洞 葛夜山 古墳群』, 학술총서 13책, 2003.

관동대학교박물관, 『三陟 史直洞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학술총서 13책, 1994.

3) 고려시대의 삼척

고려시대 초기 삼척의 행정 변천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지방호족들의 자치에 맡겼던 듯하며, 성종2년(983년)에 12목과 병마사제도가 마련되면서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삼척은 동북면병마사의 관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다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성종14년(995년)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강원도는 함남, 경기, 경북의 일부를 포함하여 삭방도(朔方道)라 했다. 이 때 원주와 그 속현인 영월과 평창의 일부는 중원도라 하여 오늘날의 충청도에 속했으며 원주가 강원도에 속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도 아래에는 고을을 그 크기에 따라 도단련사(都團練使), 단련사(團練使), 자사(刺史) 등을 두어 다스리게 했는데 강원도는 회양, 철원, 강릉 그리고 삼척(당시의 지명은 척주)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어 다스렸다.

현종9년(1018년)에 다시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되어 4도호(都護).8목(牧).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의 외관조직을 갖출 때는 삼척현이 되었는데 이 때 지금의 옥계인 우계현(羽谿縣)이 명주로 이관되었다. 공민왕22년(1373)에는 현령 대신 안집중랑장(安集中郎將)이, 우왕3년(1377)에는 다시 군으로 승격하여 지군사(知郡事)가 다스렸다.

이처럼 현종9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현으로 강등되었던 삼척이 공민왕 말년에 들어서 다시 그 지방장관의 위상이 다소 높아졌고 이어서 우왕 때 군으로 승격된 것은 동해안에 왜구의 출몰이 잦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나는 동해안의 왜구 출몰 기록을 보면 공민왕7년(1358년), 공민왕23년(1374년), 우왕7년(1381년), 우왕8년(1382년), 우왕12년(1386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는데 그 때마다 삼척이 그 침범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해류의 흐름이 삼척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왕10년(1384년)에 삼척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지군사로 하여금 수군을 지휘하는 만호(萬戶)를 겸직하게 한 것도 왜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을 것이다.

4) 조선시대의 삼척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를 보면 도의 관찰사 밑에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으로 나뉘어 있었다. 강원도에는 최고위직인 부윤(府尹종2품)은 없었다.

영동지방의 경우 대도호부사가 파견된 곳은 강릉뿐이고 삼척과 양양 두 곳에만 도호부사가 파견되어 다스렸다. 참고로 영서의 경우 대도호부사가 파견된 곳은 없고 원주에는 같은 정3품이나 한 단계 낮은 목사(牧使)가 그리고 춘천에는 도호부사가 임명되었다.

조선시대 삼척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태조2년(1393년) 목조(穆祖)의 외향이라 하여 삼척부(三陟府)로 승격되었고 태조6년(1397년)에 각 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鎭)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소속된 부근 고을의 병마를 거느려 수어(守禦)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강원도에는 삼척과 간성에 각각 진을 두고 부사가 첨절제사를 겸직하게 하였다. 태종13년(1413년) 삼척부(三陟府)를 삼척도호부로 개명하고 종3품의 관원이 부사로 임명되었다. 세종3년(1421년)에는 삼척진의 첨절제사를 병마사로 개명하고 도호부사가 겸직하였다. 세종4년(1422년) 삼척진의 병마사를 다시 병마수군첨절제사로 개명하고 부사가 겸직하였고 이로부터 삼척진은 강릉진관(江陵鎭管)에서 분리되었다. 세조12년(1466년)에는 부사가 겸직하고 있던 삼척진병마수군첨절제사를 분리하여 단독 진장(鎭將)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삼척포가 수군첨절제사 진(鎭)으로 편성될 때 고성포, 안인포, 울진포, 월송포 등 4개의 만호영(萬戶營)을 거느린 것으로 되어있다.

성종6년(1475년) 강릉·삼척·울진·평해의 16개역을 관장하는 교통행정구역인 평릉도의 소재지를 평릉역에서 교가역으로 옮겼다.

인조9년(1631년)에는 도호부 관내를 9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는데 매곡, 부내, 노곡, 덕번, 북평, 박곡, 미로, 소달, 장생의 9개리가 그것이다.

조선 후기 강원도의 군사조직은 관찰사 밑에 4개의 영(營) 두었다. 철원부사가 겸임한 방어영(防禦營), 춘천부사가 겸임한 좌영(左營), 횡성현감이 겸임한 중영(中營), 그리고 삼척의 우영(右營)이 그것이다. 삼척에

는 영(營)을 지휘하는 영장(營將)을 따로 두었으며, 처음으로 배치한 것은 현종13년(1672년)의 일로 삼척포첨절제사가 겸직하게 하여 영동 9개 군 즉 통천, 고성, 흡곡, 간성, 강릉, 삼척, 울진, 평해, 월송의 수륙군의 병권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음해인 현종14년(1673년)에는 삼척영장이 토포사를 겸직하게 하여 영동 9군과 울릉도의 치안도 담당토록 하였다.

영조14년(1738년) 다시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져 관내의 9개 지역을 12개 면으로 나누었으니 말곡, 부내, 노곡, 근덕, 원덕, 미로, 소달, 상장성, 하장성, 견박곡, 도상, 도하의 12개면이다.

5) 현대

태종13년(1413년) 전국을 8도로 나눈 이래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은 커다란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고종32년(1895년) 이른바 을미개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다. 전국을 23부 331군으로 고쳤는데 이 때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분리하여 영동지방은 강릉부(江陵府)가 설치되어 영동 9군 즉 강릉, 삼척, 울진, 평해, 양양, 간성, 고성, 통천, 흡곡을 관할하였다. 영서지방은 춘천부(春川府)가 설치되어 영서 13군 즉 춘천, 양구, 인제, 남천, 김화, 금성, 회양, 평강, 철원, 홍천, 횡성, 양근, 지평을 관할하였다. 이 때 삼척은 삼척도호부에서 삼척군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고종33년(1896년)에 23부제를 폐지하고 다시 전국을 13도로 개편하였는데 이 때 삼척에는 행정적인 변동은 없었으나 영동 9군의 군무를 총괄하던 삼척포진과 영동의 교통행정체계인 평릉도 제도가 폐지되었다.

삼척포진은 고려 우왕 때 수군 기지가 설치된 이후 고종33년(1896년) 폐지될 때까지 500년 이상에 걸쳐 동해안을 진수하는 중심 기지가 되어 왔다. 그것은 삼척의 오십천 하구는 수심이 깊고 자연 방파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수의 공급, 연병장, 조선을 위한 우수한 재질의 목재 산출 등 수군기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항구였기 때문이다.

1914년 관내 12개 면(面)중 부내와 말곡을 합하여 부내면으로 도상·도

하.견박곡을 합하여 북삼면으로 하였다. 부내면은 1917년 삼척면(三陟面)으로 다시 1938년 삼척읍(三陟邑)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북삼면에서 읍(邑)으로 승격되었던 북평읍이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통합되어 동해시로 분리되었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하여 태백시로 분리되었다.

1986년 삼척읍이 삼척군에서 분리되어 삼척시(三陟市)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삼척군과 삼척시(三陟市)를 합하여 삼척시로 개편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동안 이승휴 선생과 『제왕운기』

국가사적 제421호

소재지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은사 내(內)

1) 시대 배경 (고려후기 사회)

고려 후기 사회는 무인정권과 몽골의 침입 그리고 충렬왕대에 확립된 원의 정치적 간섭과 공민왕대의 반원적 개혁 정치라는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기이다. 이는 당연히 신분제의 변동과 더불어 조세 수취방식의 변질 등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특히 일반 백성들에게는 공민왕과 우왕의 통치기에 이르러 이미 극복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곧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흉년이 들어서 굶어죽은 자가 절반이나 되었으며, 길가에 버린 시체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한적인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승휴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존의 귀족문화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때에는 강계의 난, 몽골의 침략과 몽골에의 복속으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와 신분 계층간의 변동기에 중앙 관계로 진출하려는 일군 사인(士人)이 있었다. 이들은 ‘능문능리(能文能吏)’의 교양과 능력을 토대로 사회 변혁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면서 그 시대를 계도해 간 신진사대부였다. 이들은 유학을 정신적 근간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광세재민하고 들어와서는 수신제가하는 의식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승휴와 같은 초기 신진 사대부는 그들의 불안정한 정치적 위치와 미숙한 사상으로 인해 불교적인 사회풍토를 개혁하는 배불론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과 행동체계를 구체화하였다.

2) 이승휴 선생의 생애

고려말의 유명한 학자이자 충신인 이승휴가 민족의 역사서인 『제왕운기』를 지으신 곳이 바로 두타산 자락에 있는 미로의 천은사였다.

『제왕운기』는 당시 지금의 천은사 자리에 ‘용안당’이라는 초막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이승휴는 몽고의 지배 아래 자주성을 잃고 허둥대는 집권층과 그 가운데 고통받으며 점점 나약해져 가는 고려 백성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높은 뜻을 품고 지은 것이다.

이승휴는 최씨 무신정권이 극에 달하던 고종 11년 1224년에 태어나 몽골의 침입에 몸소 저항도 하고, 무신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몽고의 지배를 직접 겪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참으로 훌륭한 대기만성형의 선비였다.

처음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 나이 29세 되던 해 봄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늦은 나이였다. 그나마도 직접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가 급제의 기쁨을 안고 홀어머니가 계시는 외가인 삼척으로 내려온 동안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인 강화도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다.

이 때 이승휴는 삼척 지방 주민들과 함께 요전산성에 들어가 몽골에 대항하였다고 그의 저서인 동안거사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이승휴 자신이 울릉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소감을 시로 남겼으니 바로 ‘무릉도를 바라보면서’라는 제목의 시이니 무릉도는 지금의 울릉도를 말한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가지 못한 채 두타산 아래 구동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12년간을 머무르던 이승휴가 비로소 관직에 발을 내디딘 것은 그의 나이 41세 때였다. 첫 관직인 지금의 강릉인 경흥도호부의 서기를 시작으로 식목록사, 원행 사신의 서장관, 합문지후, 감찰어사, 우정언, 우사간, 양광, 충청도 안렴사, 전중시사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요직을 거쳤다는 점이 아니라 술한 질시와 반대로 파면과 복직을 거듭하면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도를 지켰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전중시사로 있던 나이 57세 때인 1280년에는 당시의 왕인 충렬

왕의 실정과 세력가인 부원배들의 횡포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면 되기도 하였다. 파면당한 이승휴는 미련없이 관직을 버리고 외가인 삼척으로 돌아와 두타산 아래 구동에서 머무르며 -위진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의 구절에서 따온 이름의 초막인 용안당을 짓고 유유자적인 생활 속에 독서와 저작을 즐기며 살던 중 뜻한 바 있어 불후의 명저인 『제왕운기』를 쓰셨으니 낙향한지 7년 뒤인 1287년 나이 64세 때의 일이었다.

한편 원행 사신의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원나라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의 행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당시 이승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라서 재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행 명단에서 빠졌다. 이를 안 원종 임금의 예전 선생의 충성스러운 일을 보고 그의 이름을 벼루 갑에 적어두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친히 술과 안주를 내리시며 간곡히 권유하실 뿐만 아니라 집이 가난함을 아시고 백금 3근을 여비에 보태라며 하사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이승휴의 재주와 충성심과 청렴결백한 성품을 알 수 있다.

이승휴는 원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 그때 이승휴가 지어 원나라 황제에게 올린 글이 얼마나 명문장이었던지 황제가 무려 세 번이나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최고 학자로 불리던 한림학사 후우현을 비롯한 원나라 조정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입을 모아 문장이 중국을 감동시켰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일행이 돌아오자 원종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집무실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고 후한 상을 내리시고 최고 사신을 특진시키고 이어 이승휴가 지은 글을 직접 읽어보시고는 관직이 없이 따라갔던 이승휴를 잡직서령 겸 도병마녹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3) 이승휴 선생의 『제왕운기』 소개

이처럼 고려말의 유명한 학자요 관리인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쓴 목적과 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대내적으로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국왕과 신하들이 바른 정치

를 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지배와 간섭으로 허물어져 가는 나라와 백성들의 자주성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승휴는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역사를 중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를 무대로 활약하던 우리 조상들이 세우셨던 여러 나라들의 관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정립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 역사에 포함되지 못했던 발해사를 처음으로 우리 민족사에 당당히 올린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득공이 쓴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무려 5백년 가량이나 앞선 것이다.

『제왕운기』란 책이름의 뜻은 제는 황제의 제로 중국을 나타낸다. 그리고 왕은 우리나라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나타낸다. 그리고 뒤의 운기라는 말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시나 노랫말 식으로 적었다는 뜻이다.

『제왕운기』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제왕운기』는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신화시대인 반고와 삼황오제부터 하·은·주의 삼대와 진·한·위·진·송·제·양·진·수·당·5대·송·금에 이어 원에 이르기까지 7언시로 썼고, 하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2부로 나누어 전반부인「동국군왕개국연대」는 지리기를 시작으로 단군의 전조선·기자의 후조선·위만조선·진한, 마한, 변한의 삼한과 이를 계승한 신라·고구려·백제의 3국과 후고구려·후백제·발해까지 7언시로 썼고 후반부인「본조군왕세계연대」는 고려의 건국에서부터 충렬왕 때까지 5언시로 썼으니「동국군왕개국연대」의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며「본조군왕세계연대」의 본조는 본 왕조의 준말이니 당시의 고려를 말하며 세계는 대대로 이어진다는 뜻이니 쉽게 말하면 고려 왕조의 역사란 뜻이다.

4) 동안 이승휴 선생의 불교관과 간장사(看藏寺)

고려후기의 거사들을 정의한다면 도(道)에 관심을 갖고 수행에 힘쓰며 생활하였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불교신자(在家佛教信者)는 공경대부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가불교신자들의 활동이 내포한 사회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승휴의 불교관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실을 중심으로 한 재가 신자들은 국가·사회의 어려움을 타결하는데 핵심이 되는 각종의 불교 의례를 주관하였다. 고려시대에 불교 의례가 개설되었던 목적은 불교가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점에서 벗어나 인간사의 구체적 관심사에 대응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왕경』과 『금광명경』에 의한 의례의 개설 목적을 보면 고려 사회의 제 문제를 불교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휴의 『동안거사집』에 수록된 「간장사기」에 실린 불교에 대한 인식은 당시 거사 불교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이승휴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가·사회적인 면에서 재가불교신자(在家佛教信者)들은 재시(財施 : 재산을 사회에 나눠주는 활동)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여기서 재시(財施)는 재가불교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단합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간장사기(看藏寺記)」에 보면 이승휴가 약 10년간 삼화사에서 1000상자의 불경을 빌려 읽은 후 71세인 충렬왕 20년(1294)되던 해에 홀연히 용안당(容安堂) 간판을 간장사(看藏寺)로 개칭하고 승려가 주석할 발을 희사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용안당을 간장사로 바꾸면서 이승휴는 왕실이 평안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또한 국왕이 성세를 누리며 승평의 곡조가 연주되는 것을 길이 즐기도록 축원하였다는 기록은 그가 국가·사회적인 면에서 재시(財施) 활동을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셋째, 이승휴는 삼화사 불경 열람을 마친 후 간장사를 만들고, 그가 읽은 불경 내용 또는 불서 해제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내전록』을 충렬왕 24년(1289년) 무렵에 저술하였다. 내전(內典)은 유교 서적인 외전(外典)에 대비되는 의미이므로 불교 서적 목록을 정리한 서적일 가능성이 크며, 저술한 배경은 재가불교신자로서 하여야 할 사회·문화적 책무라 여기고,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 여겨서이다.

넷째, 「간장사기」를 작성할 당시에는 현실 문제 해결과 역사 인식에서 불교에 의탁한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었으나, 몽산덕이가 법어를 내려준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한 시를 통해 참선을 중시하는 이승휴의 불교 인식이 말년에 좀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참선, 자기 수양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몽산덕이와 교류한 이승휴는 몽산덕이와의 교류 이후 참선과 화두를 기저로 한 불교 인식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천은사 내 동안사에서 거행된 동안대 제에 참석한 분들



이승휴 다례제에서 최선도이사장님 헌화(獻花)

이승휴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 기반하여 종교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였고, 이를 통해 그의 불교관은 고려 후기 재가불교신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승휴를 비롯한 재가불교신자들의 불교 인식과 활동은 고려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동력으로 기능하였고, 비록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창된 이후에는 그 영향이나 활동이 축소되어 갔으나,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5) 간장사[看藏寺(看藏庵)]의 위치

현재의 천은사(天恩寺)가 이승휴가 편액을 건 간장사(看藏寺)와는 별개라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天恩寺는 이승휴와 관련되는 간장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음은 위에서 논증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동안거사집』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천은사는 현재 이승휴 유허지와 관련하여 국가 사적 4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기록으로는 충렬왕 때 고쳐야할 폐단 10개조를 올린 후 파직된 이승휴는 삼척에 내려와 두타산 자락인 구동 즉, 현재의 미로면 내미로리 天恩寺 경내에 용안당을 세우고, 경진년(1280년) 10월에서 기축년(1289년)까지 약 10년간 삼화사에서 1000상자의 불경을 빌려 읽은 후 71세인 충렬왕 20년(1294)되던 해에 홀연히 용안당(容安堂) 간판을 간장사로 개칭하고 승려가 주석할 발을 희사하였다는 내용이 실린 「간장사기(看藏寺記)」, 그리고 이승휴의 아들에 의해 중수된 후 둘째 아들인 담육의 요청으로 최해가 쓴 「간장암중창기(看藏庵重創記)」가 전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각종 지리지에 이승휴·간장사[간장암]와 관련한 기록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간장사기」와 「간장암중창기」를 원용하고 있다.

「보광정기(葆光亭記)」에 용안당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 1]

구산동을 가로질러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용계다. 용계 양쪽 가를 따라 밭 2경이 있으니, 이것은 동안거사 외가에서 전해오는 시지이다. … 잘록한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심용슬지이안’이란 글귀를 취하여 ‘용안당’이라 이름했다.

「간장사기」에 간장사와 용안당과의 관련성, 절의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자료 2]

간장사란 옛날 용안당이요, 용안당이란 동안거사가 해장을 열람하려고 지은 것이다.

이 절은 경역이 마을과 접하여 그다지 외로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

「간장암중창기」에 실린 ‘간장암’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 지금은 이를 희사하여 인사(仁祠 ; 절)가 되었으니, 어찌 증축하여 높이지 않으랴’하고, 이에 서로 더불어 역량을 모아서 건물을 좀 더 크게 넓히고 단청도 영롱하게 하여 옛날보다 사치스러워졌다.

「병과시(病課詩)」에도 이승휴가 거주하였던 장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자료 4]

두타산 구동 용계(龍溪) 곁에 모옥(茅屋)을 지어 살면서 직접 밭 갈며 어머니를 모셨다.

위에서 소개한 [자료 1], [자료 4]를 통해 이승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말년에 용안당을 지었던 장소가 삼척에 위치한 구동(龜洞, 龜山洞) 용계(龍溪) 부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왕선은 이에 대하여 동해시 무릉계에 용추가 있기에 무릉계곡을 용계로 비정하여 현재의 삼화사가 위치한 곳을 구산동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비정할 지명으로 신왕선이 소개한 대문수, 포포천, 용추, 구산 등의

지명을 확정할 만한 논리보다는 조선시대에도 언급된 적이 없이 최근에 회자되는 지명을 소환하여 전개한 추론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명을 현재 사용한 사례를 신왕선이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왕선의 주장이 공인되기 위하여 용계와 구동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용계와 구동[구산동] 관련하여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서 현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은사 입구에 있는 일주문 우측 산 비탈에서 ‘구(龜)’자가 새겨진 바위를 본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그리고 천은사에서 선음산에 오르는 길은 계곡인데, 이 계곡을 마을에서 ‘용소골[龍沼谷]’이라 부른다. 이 용소골에 있는 용소에서 선음산에 올라가기 힘든 마을 주민이 산맥이를 한 사례도 확인하였다.



천은사에서 선음산으로 오르는 길 옆의 용소골 용소에서 산맥이를 하는 장면(2007년)

이승휴가 용안당을 지었고, 이후 간장사라고 편액을 건 곳이 현재의 천은사임을 위에서 앞선 항목에서 논증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 2]를 보면 당시

간장암이 마을 근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은사 경내에서 청자 도요지가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현 주지스님 거처인 용안당 건물 뒤편의 동북쪽으로 난 당시의 암자인 화엄암과 부도군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편인 산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가마유구는 전체 1개소로 북서-남동향의 자연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구는 길이 남-북 320cm, 동-서 440cm의 규모로 평면 장타원형의 소규모 가마이다.



천은사 내 청자 도요지 전경

가마의 벽체는 대부분 유실되어 완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북벽은 2단~3단 정도의 높이 66cm로 벽체에 사용된 석재들이 조금 남아 있는 편이다. 남벽은 거의 유실되어 윤곽선만 남아있다. 서벽은 두께 38~54cm, 높이 38cm로 모서리 부분의 석재들은 불먹은 흔적이 완전하다. 입

구부는 대나무숲과 계곡에 바로 접하고 있는 관계로 확인을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물들과 소토들이 입구쪽과 소성실 중앙부에서 확인되었다.

이 가마는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장타원형의 가마로서 그 구조는 소성실이 1개인 단실요이며 바닥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지하면을 약간 파서 조성하였고 천정은 남아 있지 않지만 등요와 같은 지상 토축일 가능성이 높다. 소성실의 바닥면은 진흙을 깔아 처리하였으며 경사가 거의 없는 편이고 고온의 불길이 닿아 비교적 굳게 익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청자요 유구의 원형이 대부분 상실된 관계로 그 구조의 정확한 양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강원도 지방에서 확인된 최초의 청자 가마터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습된 유물들 중 대접이 가장 많으며 그 외의 접시, 완, 도지미 등이 있다. 이들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이 가마는 12~13C에 사용한 가마로 추측된다. 이것으로 보아 이승휴가 이곳에 용안당을 짓고 은거하며, 불경을 읽는 등 불교에 심취해 있을 때에도 사용되었던 가마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 그리고 현재 전하는 지명과 위치, 그리고 현재의 천은사 경내에서 발굴된 청자 도요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승휴가 불경을 읽으면서 지낸 용안당(이후 간장사)은 현재의 천은사 사역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논증하기 위해 ‘중대’, ‘대문수’, ‘포포천’ 등의 위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6) 동안 이승휴 선생 활동 요약

- **관료로서의 활동** : 감찰·언관의 역할을 특히 많이 함.
/ 백성들 편에서 행정 처리
- **외교 활동(서장관)** : 중국(원) 치켜세우면서도, 노구교 칭송하면서도
고려의 자주 의식 강조

· 『제왕운기』

: 중국 역사 서술에서 자치통감 류의 의식 (춘추 + 정통의식 강조)

→ 단군을 국조로 이후 이어지는 초기 국가들

→ 신라·발해 →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 의식

· 불교 : 수선사 계열(지눌 / 사굴산파 - 삼화사 연결)

/ 실천 강조하는 계보임.

7) 동안 이승휴 선생이 지닌 정신 요약

· ‘민족 + 백성’ 위한 지식인으로서의 실천하는 자세 중시

(관료로서 행동 중시 → 動安居士, 動安居士行錄)

· 백성을 중시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많이 보임.

· 자주성 강조 + 정통 의식 + 부패 관료와 척신 척결 의지

⇒ 국가와 민족, 백성을 위하자

(그가 생각한 세상을 열기 위해)

→ 왕권 안정 필요

→ 고려의 정통성 확보, 부패 관료 척결 의지,

원에 대한 일정 부분 타협, 왕실 권위 확보 노력

→ 이러면서도 발전적인 방안 고민 (선진 문물 등에 대한 찬양)

→ 사상적 기저 : 도교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경향 드러냄

(유학에서의 실천성, 불교에서의 실천적 불교 경향)

Ⅱ.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1. 이사부, 삼척에서 울릉도를 향해 출발하다

일본은 2014년 아베정권 아래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장과 이의 교과서 기재, 국민 홍보 등을 통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이다.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정벌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되었다. 왜냐하면 울릉도 내수전(안평전이라고도 하며 해발380m)에서 맑은 날이면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져 우뚝 솟아있는 모습의 독도를 그들이 와서 직접 본다면 그들은 또 어떤 역지를 부려 그들의 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면 이사부 장군과 삼척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경주 지방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던 신라가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영토 확장에 나선 것은 지증왕 때부터이다. 이때 처음으로 지방행정체제인 주·군·현을 정하였는데 최고 행정단위인 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실직주뿐이었으니 바로 우리 고장 삼척이다. 그리고 이 실직주의 책임자인 군주(軍主)로 임명된 첫 인물이 앞서 말한 이사부 장군이었다. 이사부 장군은 신라의 왕족이었다. 그리고 군주(軍主)란 관직명은 행정은 물론 군대에 관한 일까지 도맡았던 직책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까닭은 삼척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해안의 지형을 보면 대체로 좁고 긴 형태의 해안평야이다. 그러나 그 중간쯤에 위치한 삼척은 해안 가까이까지 높은 산이 내뻗어 있는 산악지대이다.

따라서 삼척을 차지하면 쉽게 다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는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오랫동안 고구려가 차지하였던 삼척이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된 것은 지증왕이 즉위할 무렵의 일로 짐작된다. 그리



이사부가 울릉도 정벌을 위해 출발한 곳으로 추정되는 오화리산성과 오십천하구 전경

울릉도가 뵈히 바라다보였다고 한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젊을 적 봉황산에 올랐다가 울릉도를 보았다고 하시며 그 중에는 여러 번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 옛날 이사부 장군도 울릉도를 바라보며 저 곳을 신라의 영토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치밀한 준비 끝에 실행에 옮기셨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치고자 하였으나 울릉도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 힘으로는 항복받기 어려우나 꾀로써 정복할 수 있다 하고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나누어 싣고 울릉도 해안에 이르러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뱉아 죽이겠다.”

하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고 이 공을 포상하여 이사부 장군을 주(州)의 책임자(이 때 지금의 강릉인 하슬라주의 군주로 영전한 듯함)로 삼았다는 이야기 말이다.

이 이야기는 이사부 장군이 왕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직주의 군주(軍主)가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말해 준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이사부 장군의 슬기와 용맹을 알게 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진흥왕이 즉위하자 이사부는 최고 관등인 이찬으로서 병부령이라는 최고

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라 최초의 주(州)인 실직주를 설치하고 왕족인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임명한 것이다.

한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울릉도에서 맑은 날이면 독도가 바라보이듯이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고장 삼척에서는 날씨가 아주 맑은 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의 관직에 오르고 국사 편찬의 필요성을 왕에게 건의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케 하였으니 이는 이사부 장군이 싸움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학문에도 뛰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라가 영토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이 무렵에 세워진 단양의 적성신라비는 신라군의 최고사령관이 바로 이사부 장군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오화리산성내 석축

아마도 실직주의 군주(軍主)로 있을 동안 쌓은 울릉도 정벌, 가야 정벌 등의 공로가 인정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당시 실직주의 영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넓었으니 남으로는 최소한 울진군 죽변까지가 실직주의 영역이었다. 그 까닭은 삼척에서 7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죽변 시내로 들어가기 직전 오른쪽 넓은 포장도로를 따르면 뜻밖의 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나오는데 사실은 비상시나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비상 활주로 시설로 이 활주로 남쪽 끝에서 수백 미터를 더 가서 다시 내륙 쪽으로 꺾어져 수백 미터를 들어가면 울진봉평 신라비라 불리는 비석이 있다. 그 내용은 당시 이 지방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진압한 뒤 그에 대해 처벌한 결과를 기록한 것인데 그 주체로 실직주의 관리 직함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실직주가 얼마나 중요시 되었으며 그 영역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랫말에 나오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오십천 하구에 설치된 이사부 출항지 기념 상징물

2. 이승휴 선생이 천은사에서 삼화사로 불경 빌리러 다닌 길

1) 천은사(天恩寺)의 역사

천은사는 천년 고찰로서 불자들을 위한 신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지니고 법등을 이어 왔다. 구체적으로 천은사가 지닌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천은사 경내에서 출토된 금동약사여래입상은 통일신라 최전성기의 양식을 계승한 유물로서 영동 남부지역의 불교문화사에서도 최고(最古)의 유물이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약사신앙이 전파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최초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목조아미타삼존불(木造阿彌陀三尊佛)은 복장물(腹藏物)로 발견된 중수기(重修記)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양식 또한 고려 후기 단아양식의 불상을 계승한 조선전기의 불상에서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식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둘째, 나름대로의 민족의식과 역사적 정통성을 내포한 이승휴의 대표적인 저서인 『제왕운기』를 저술한 곳이 용안당(容安堂), 즉 간장사(看藏寺)이고, 이는 현재의 천은사이다. 따라서 이곳 천은사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이승휴 선생이 10여년 이상을 머무르며 『제왕운기』를 저술한 유서 깊은 사찰이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제왕운기』에는 중국의 역사를 상권에 먼저 기록한 후 하권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점이라든지, 단군조선의 시작을 중국과 같은 B.C 2333년으로 서술한 사실들은 그가 유학자이고 역사가이기 이전에 그의 생애와 생존했던 시기(1224 ~ 1300)가 민족 사상의 일대 격변기에 위치한다는 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¹⁰⁾

10) 김도현, 「이승휴의 생애와 관련 유적」, 『이승휴와 제왕운기』, 동안이승휴사상선양사업회, 2004, 31쪽.

셋째, 천은사는 인근의 준경묘와 영경묘를 수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축 후 조포사(造泡寺)로 지정되어 제수(祭需)를 준비하는 등 원찰(願刹)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은사는 법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준경묘와 영경묘의 수축 이후 1899년에 능침수호사찰로 지정되었으며, 치제(致祭)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준비하는 조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승휴 선생과 삼화사

이승휴가 함문지후를 거쳐 감찰어사, 우정언, 우사간에 올라 언론·감찰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왕과 관리들에 대한 비판, 탄핵하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일선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왕이 덕을 갖추 것을 요구하는, 폐단 10가지를 상소하는 등 현실 개혁 방안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에 결국 충렬왕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고 말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승휴는 삼척으로 돌아와, 앞서 살던 두타산 자락의 계곡 옛터에 용안당을 세우고 은거에 들어갔다. 이후 경진년(1280년) 10월에서 기축년(1289년)까지 약 10년 동안 삼화사로부터 빌려온 불경을 읽는데 몰두하는 한편, 불교 관련 저술인 『내전록(內傳錄)』과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찬술하였다.

이 때 이승휴가 기거하였던 곳이 현재의 “천은사” 터인데, 이곳에서 저수 고개를 넘어 삼화사로 가서 불경을 빌려와서 탐독하였다. 이승휴가 삼화사로 불경을 빌리러 다녔던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이승휴 선생이 삼화사로 다닌 옛길

돌머들 - 흥태골 - 저수 고개[지시 고개] ; 국시 - 작은 당골<고양댕이 - 횃골> - 서낭댕이 - 정거리 - 옛 삼화사 터



돌머들에서 천은사, 저수고개 가는
갈림길



저수고개 국시(돌탑) 자리



서낭당에서 저수고개가는 길



삼화동 서낭당이 돌탑과 상춘서낭당

(2) 옛길과 관련한 지명 유래

- 돌머들 [독머들, 석탄동] : 방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현재 천은사 기실비가 있다. 천은사 기실비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면 천은사이고, 오른쪽의 흥태골로 들어서면 지시고개를 넘어 옛 삼화사터로 갈 수 있다.
- 흥태골 [택골] : 돌머들에서 지시고개로 들어가는 골짜기이다. 흥태골로 들어서다가 왼쪽으로 나타나는 골짜기는 너재골이라 부른다.
- 저시 고개 [저수 고개, 지시 고개] : 돌머들에서 흥태골을 지나 삼화리로 가는 고개이다. 고개 정상부에는 예전에 참나무와 “국시”라 부르던 돌무지가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이승휴가 삼화사로 불경을 빌리러 다닐 때 이용했던 고갯길로서 80년대까지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

리 주민들이 북평 삼화장을 보러 다니거나, 삼화동 방면으로 갈 때 이용한 길이다. 돌머들에서 고갯 마루까지 걸어서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지나 삼화동 방면으로 있었던 작은 당골과 정거리를 지나 옛 삼화사 터나 삼화장으로 갈 수 있었다. 정상부에 있었던 “국시”는 “국수”라고도 불렸으며, 약 3m 이상의 높이였다고 한다. 주민들이 이곳을 지나며, 침을 뱉거나 돌을 얻어 놓고 무사안녕을 빌었다고 전하며, 국시에는 실타래와 폐백 올린 종이를 걸어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미로면 내미로리 주민들이 이곳에서 마을 단위의 정기적인 고사를 지낸 적은 없다고 한다. 지금은 이곳에서 삼화동 방면으로 쌍룡 자원개발의 석회석 광산이 있어 옛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작은 당골 : 널둔지로부터 허악골을 지나 산두골 입구까지의 평지이다. 이곳에 예전에는 5가구가 살았는데, 현재 쌍룡개발 사무실 앞이다. 당골은 서낭당이 있는 고을이라 한데서 추정한다.
- 널둔지 : 옛 삼화사 터에서 계곡 건너편에서 남산 밑과 음짓말 언덕의 둔지이다. 약 2만 평의 넓이에 감자를 많이 재배했었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채석장이다.
- 허악골 : 방현동 상촌 서낭당터로부터 남쪽의 계곡을 이른다. 이곳에 뽕나무가 많았는데, 지금은 채석장으로 변하였다.
- 횃골 : 삼화사 옛터에서 남쪽으로 1.5km 되는 지점에서부터 삼형제봉 산 및 기슭 계수현 골짜기를 이른다. 횃가루가 많아 붙은 이름인데, 1970년대 쌍룡양회 채석장으로 개발되었다.
- 고양댕이 : 옛 삼화사 터에서 남쪽 횃골을 지나 삼척시 미로면으로 가는 옛 길의 언덕이다. 허악골 좌측 동쪽에 절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앞재와 접하고 있다. 고양나무와 회양목이 많아 관상수로 반출되었는데, 현재 채석장으로 변하였다.
- 앞재 : 작은 당골 남쪽 끝 산두골 서쪽과 고양댕이 사이의 언덕이다. 쌍룡양회의 채석장 중심이다.
- 서낭댕이 : 탐거리 남쪽에 빈내골과 무릉계곡 물이 합수되는 지점의 서낭당이 있는 곳이다. 선음산과 삼척시 미로면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이승휴 선생이 삼화사로 다닌 옛길

3. 삼척 유교 교육의 중심 : 삼척 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102호

소재지 : 삼척시 교동

16세기 이후 향교가 지닌 교육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제향기능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후 향교는 지방 유림의 정치·사회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때부터 문묘[대성전]는 정치 교화의 기본이념인 유교의 성묘(聖廟)로 여겨지게 된다.

향교에는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성균관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 명륜당 및 중국과 조선의 선철, 선현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를 두었다. 향교는 각 지방관청의 관할 아래에 두어 부·대도호부·목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삼척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 기관으로써 삼척부의 관할 아래에 두어 7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유교 경전을 주로 하여 시와 문장을 교육한 곳이다.

삼척향교의 창건·중수와 의례 관련 연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¹⁾

1398년(태조 7)에 고사음곡(古寺音谷)에 향교를 창건하였다. 1407년(태종 7)에 부사 권전(權堧)이 옥서동(玉瑞洞)에 옮겨 건립하였다. 1439년(세종 21)에 향교 앞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웠다. 1468년(세조 14)에 부사 권종손(權宗孫)이 교동(校洞) 북정산(北亭山) 동쪽 기슭으로 옮겼는데, 먼저 동재

11) 삼척향교 연혁은 『三陟校志』(1956년)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척주지』(1662년), 『척주선생안』, 배재홍 교수가 번역한 『국역 삼척교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허목, 『척주지』, 1662.

김구혁 外, 『陞州先生案』

심지항·최만희·홍종범, 「建置沿革」, 『三陟校志』 권1, 삼척향교, 1956.

배재홍 옮김, 『국역 삼척교지』, 삼척시립박물관, 2019.

(東齋)와 서재(西齋)를 건립하였다. 1470년(성종 1)에 대성전(大成殿)을 건립하였다.

1471년(성종 2)에 교생(校生)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렸고, 1472년(성종 3)에 남루(南樓)[명륜당(明倫堂)]를 건립하였다. 1492년(성종 23)에 처음으로 위판(位板)에 궤독(櫃櫝)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1498년(연산군 4)에 처음으로 찬탁(饌卓)을 제작하였다.

1612년(광해군 4)에 오현(五賢)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는데, 공간이 좁은 것이 불만스러워 대성전(大成殿)을 더 늘려 지었다.

1625년(인조 3)에 제기(祭器) 보(簠)·궤(簋)·작(爵)을 갖추었다. 1656년(효종 7)에 부사 이지온(李之溫)이 성묘(聖廟) 앞에 계단을 쌓고 앞길에 대소인원개하마비(大小人員皆下馬碑)를 세웠으며, 망예석함(望瘞石函)을 만들었다.¹²⁾ 그리고, 1661년(현종 2)에 부사 許穆이祭器인 簠과 豆를 만들었다.

1665년(현종 6) 3월에 부사 김진표(金震標)가 대성전(大成殿)을 중수하고 또 동서재(東西齋)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동서무(東西廡)를 새로 건립하였다. 이에 재실(齋室)은 약간 아래쪽에 옮겨 짓고 동상방(東廂房)·서상방(西廂房)이라 하였다. 그러나 대성전 중창은 끝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벼슬이 갈리어 떠나 1666년(현종 7)에 부사 정창도(丁昌燾)가 준공하였다.

1682년(숙종 8)에 부사 유송제(柳松齊)가 중수(重修)한다는 명목을 핑계대고는 마음대로 건지동(蹇芝洞)에 옮겨 건립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잡혀가 신문(訊問)을 받았다. 간사(幹事) 최동흙(崔東屹)도 강릉에 잡혀가 갇혔다가 다음 해에 풀려났다.

1683년(숙종 9)에 우계(牛溪)와 율곡(栗谷) 두 선생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때 전내(殿內) 위판(位板)은 최호(崔浩)가 개제(改題)하였다. 1700년(숙종 26) 1월에 부사 심단(沈檀)이 향교를 이전하는 일을 조정(朝廷)에 알렸는데, 임금이 옛터에 옮겨 세우라는 분부를 하여 10월에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 1701년(숙종 27) 4월 10일에 부사 박행의(朴行義)가 건지동(蹇芝洞)에서 다시 교동 북정산 기슭으로 옮겨 건립하였는데, 승려 혜연(慧衍)의 말에 따라 옛터보다 약간 아래쪽에 건립하였다. 3년이 걸려 완공하였으며 제기고(祭器庫)도 건립하였다.

12) 허목, 『척주지』, 1662.

1792년(정조 16)에 부사 윤속(尹肅)이 제복(祭服)을 새로 장만하여 갖추었다. 1808년(순조 8)에 부사 홍경두(洪景斗)가 대성전(大成殿)·동서무(東西廡)와 제기고(祭器庫)를 중수(重修)하였다. 1852년(철종 3)에 부사 정재용(鄭在容)이 성묘(聖廟)와 동서재(東西齋)·제기고(祭器庫)를 고쳐 수리하였다.

1854년(철종 5) 겨울에 홀기(笏記)를 고쳐 다시 만들었고, 1855년(철종 6)에 김구혁이 『횡당실기(橫堂實記)』를 작성하였다. 1858년(철종 9)에 부사 이휘부(李彙溥)가 성묘(聖廟)를 중수(重修)하였다. 1860년(철종 11) 7월에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를 중수(重修)하였다. 8월에 부사 이항진(李璜進)¹³⁾이 제복(祭服)을 가리켜 귀복(鬼服)같다고 농담하였다가 사론(士論)이 일제히 일어나 감영(監營)에 보고하는 바람에 곤장을 맞고 파직되었다. 1862년(철종 13)에 돛자리와 양관(陽冠)·제복(祭服)을 다시 장만하여 갖추었다.

1864년(고종 1)에 성묘(聖廟)를 중수(重修)하였고, 1865년(고종 2)에 제복(祭服)을 다시 장만하여 갖추었다. 1867년(고종 4) 봄에 제복(祭服)을 새로 장만하여 갖추고, 겨울에 성묘(聖廟)를 중수(重修)하였다. 1872년(고종 9)에도 제복(祭服)을 다시 장만하여 갖추었다. 1874년(고종 11) 8월에 제기고(祭器庫)를 중수(重修)하였고, 1881년(고종 18)에 성묘(聖廟)를 중수(重修)하였다. 1889년(고종 26)에 부사 정대무(丁大懋)가 성묘(聖廟)를 중수(重修)하였다.

1911년 10월에 향교 재산을 군청(郡廳)에 이관(移管)하였다. 1914년에 문묘(文廟)를 중수(重修)하고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執事)의 이름을 쓴 방문(榜文)을 내다 붙였다. 1918년에 제복(祭服)을 다시 장만하여 갖추었고, 1925년에 문묘(文廟)를 중수(重修)하고, 장의(掌議) 선거제를 시행하여 12원(員)을 두었다. 1930년에 문묘(文廟)와 명륜당(明倫堂)을 중수(重修)하고 제복(祭服)을 새로 장만하여 갖추었다. 1932년에 재복(齋服)과 차일(遮日)을 새로 장만하여 갖추었다.

1938년에 전무(殿廡)와 명륜당(明倫堂) 그리고 여러 행랑(行廊)을 고쳐 세웠고, 1939년에 성전(聖殿)과 동서무(東西廡)의 단청(丹靑)을 입히고 신문

13) 『삼척교지』(1956년)에 이항진(李璜進)으로 되어 있으나 박항진(朴璜進)이라야 맞다.
배재홍 옮김, 『국역 삼척교지』, 삼척시립박물관, 2019, 44쪽.

(神門)을 다시 고쳐 세웠으며, 성묘(聖廟)의 위판(位板)을 개제(改題)하였다. 1944년에 서무(西廡)를 중수(重修)하고 성균관에서 동춘당(同春堂)이 쓴 심잠(心箴)을 모사(模寫)하여 명륜당(明倫堂)에 걸었으며, 신문(神門) 뜰 안에 석분(石粉)을 사용하여 벽돌을 깔았다.

1945년에 상희(象犧)·준작(尊爵)·산뢰(山罍)·보궤(篋簋)와 늦쇠로 만든 그릇을 왜구(倭寇)에게 모두 빼앗겼다.

1947년 7월에 직원(直員)을 고쳐 전교(典校)라 하였다. 유작(鑪爵) 50좌(座)와 사기로 만든 산뢰(山罍) 7좌를 제작하였다. 1948년에 신문(神門)과 제기고(祭器庫)·취반소(炊飯所)를 중수(重修)하였다. 삼척향교실기(三陟鄉校實記)가 완성되었다.

1949년에 성균관에서 문묘(文廟)의 위판(位板) 수를 줄인다는 통고문이 내려왔으나 삼척군은 줄이지 않고 이전대로 두었다. 1955년에 제복(祭服)을 새로 장만하여 갖추었다.

현재 삼척향교 뒷면에 대성전과 동·서무가 놓이고, 그 앞에는 지반을 한 단 낮추어 명륜당과 동·서재를 두고, 그 외에 장판실과 숙청재, 부속건물 등이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과 동·서무에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현들의 신주를 모시어 삼척유림회 주관으로 음력 4월과 8월에 석전제를 올리고 있다.



삼척 향교 전경



2008년 춘계 석전제

삼척향교의 문묘에는 공자, 4성(聖), 10철(哲), 송유(宋儒) 6현(賢), 동방

유현(儒賢)을 향사한다. 감사와 수령은 부임하면 반드시 알묘(謁廟)를 한 다음 공무를 보기 시작하였는데, 향사한 대상¹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위(正位) : 문선왕(文宣王)
- 배향(配享) : 증자(曾子), 맹자(孟子)[서], 안자(顏子), 자사(子思)[동]
- 전내종향(殿內從享) : 10철, 송대 유현 6위
- 동서무종사(東西廡從祀) : 공자의 기타 제자 70위(位), 한당 이후의 중국 역대 유현, 우리나라 역대 종사자 18현(賢)
- 우리나라 종사자 18현 : 고려 현종11년(1020)-최치원, 고려 현종 13년(1022)-설총, 고려 충숙왕 6년(1319)-안향, 조선 중종 12년(1517)-정몽주, 광해군 2년(1610)-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숙종 8년(1682)-이이 성혼[숙종 15년 출향, 숙종 20년 복향], 숙종 43년(1717)-김장생, 영조 32년(1756)-송시열 송준길, 영조 40년(1764)-박세채, 정조 20년(1796)-김인후, 고종 20년(1883)-조헌 김집

위에서 소개한 향사 대상을 모신 석전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향 인물은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성현들이다. 이들을 모신 석전제의 제의 일시는 서울의 성균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다. 이에 봄가을로 2회 열리는데, 봄에는 양력 5월 11일, 가을엔 9월 28일 열린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102호로 지정된 삼척향교 내에는 의례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유적이 있다. 이 중 망료례와 관련하여 1656년(효종 7)에 부사 이지온(李之溫)이 설치한 망예석함(望瘞石函)과 省牲을 설행하는 의례와 관련한 ‘省牲石’이 있다. 釋奠祭 절차는 홀기(笏記)에 의해 진행되며 『國朝五禮儀』의 규정을 그 원형으로 하고 있다.

가. 삼척향교 省牲石과 省牲儀

『三陟校志』(1956년)에 의하면 석전제 전날 省牲儀를 설행한다고 소개하

14)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는 문선왕을 비롯한 문묘 배향자는 불상처럼 소상(塑像)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선 초 이후 점차 밤나무로 만든 위패로 대체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였다. 牲看品 또는 犧牲儀, 省牲禮, 充膳禮로 불리우는 省牲儀는 享祀 전 날 제관들이 제물로 살아 있는 짐승을 성생단 위에 올려놓고 품평을 하는 의례이다. 즉, 犧牲을 검사하고, 살펴보는 절차이다.

제향에 쓰이는 살아있는 짐승(소, 양, 돼지 등)을 犧牲 또는 牲牢, 牲이라 하며, 犧牲을 검사하는 壇을 牲壇 또는 省牲壇, 省牲臺, 省牲位, 犧牲臺라 한다. 삼척향교에서는 文廟略圖에 이를 ‘省牲石’¹⁵⁾으로 표기하였다.

省牲壇의 위치는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사청이나 제물 준비하는 공간 인근에 위치하는데, 도동서원 성생단은 중정당·사우·고직사 세 건물 사이에 위치한다. 안양향교에는 내삼문 앞, 서재와 문루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남해향교와 함양향교에는 명륜당 우측에 있다.

삼척향교 성생석은 현재 동재와 서재 사이에 놓여있다. 1956년에 발간된 『삼척교지』에 실린 문묘약도에는 명륜당 앞 오른쪽인 東夾門 앞에 설치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삼척향교의 省牲石은 별도의 지대석이 없고, 연자방아 형태의 원형으로 치석한 돌로 만들었다. 앞 부분에 눈·코·입·귀를 도드라지지 않은 양각 형태를 띤 선각으로 마감한 거북 머리 조각이 있어 대부분 방형인 다른 지역 省牲壇에 비해 특이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조각을 배치한 이유는 삼척향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나쁜 악귀를 쫓아내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¹⁷⁾

15) 심지항·최만희·홍종범, 「文廟略圖」, 『三陟校志』 卷首, 삼척향교, 1956.

16) 『삼척향교지』(2016)를 보면 성생석 한쪽을 장식한 조각을 해태의 머리로 서술하였다. ‘선악을 가려내고 화기를 억누르려는 영물로 알려진 해태상을 통해 영역 내에서 선악과 진리를 깨우치라는 의미와 향교 앞쪽에 석벽으로 이루어진 봉황산과 주변의 지세를 감안 하여 화재와 재앙을 물리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였다.

17) 거북의 머리로 볼 것인지, 해태의 머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형의 몸체와 함께 건물 내에 화재 방지를 위해 거북 조각을 배치한 사례들이 많기에 삼척향교 내의 성생단 조각을 거북머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상량의례에서 마루의 들보에 상량문을 적을 때 문장 좌우에 수신인 ‘龍(용)’과 ‘龜(귀)’를 적고, 대문 문미나 빗장을 거는 문돌쩌귀를 거북 모양으로 장식하여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거북을 장수의 동물 이전에 화재를 잡아주는 수신으로 여기기에 수원 영동시장의 거북신당도 시장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경북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기단의 중앙에 계단을 만들고, 그 양쪽 기단 아래에 돌로 만든 거북 머리가 정면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다. 머리와 앞발 부분만 노출돼 있는데, 마치 대웅보전을 거북 두 마리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 거북은 불영사가 있는 자리가 ‘



삼척향교 성생석 1



삼척향교 성생석 2

나. 삼척향교 望燎石函[望瘞石函]과 望燎禮

望燎禮¹⁸⁾는 ‘望瘞’라고도 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望瘞’라 표기해 행사의 잔여물을 구덩이를 파고 묻도록 하였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뒤 제작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는 행사의 잔여물을 묻는 대신 태워 없앴으로써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望燎’라고 하였다.

망료와 망예의 의식과 절차에는 차이가 없고, 묻고 태우는 것이 다르다. 문헌에 의하면, 문묘·종묘·사직·왕릉 등 왕이 친제하는 행사에서 행사가 끝나면 찬자(贊者)의 구령에 따라 축관이 철상(撤床)을 한다.

『삼척교지』(1956년, 1980년) 「문묘약도」·「향교약도」에 망료례를 설행하는 장소를 ‘望燎坵’이라 표기하였다. 삼척향교에 처음 望瘞石函[望燎石函]을 설치한 사람은 부사 이지온이다. 허목이 쓴 『척주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656년(효종 7년, 丙申年)에 만들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지온 부사가 만들었을 때 그 명칭을 ‘望瘞石函’이라 하였는데, 1938년 최상찬이 쓴 「향교중수기」에 ‘望燎位를 계단 밖으로 옮겼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 ‘望燎石函’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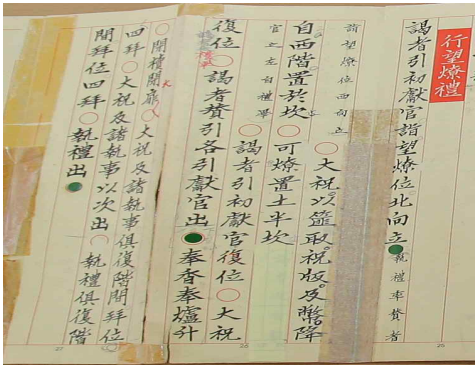
화산(火山)'이어서 그 불기운을 누르기 위한 비보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정연학, 「화재막이」, 『한국의식주생활사전(주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19.

영남일보 2020년 6월4일자 기사(<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603010000380>)

18) 「望燎禮」,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례 후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었다. 영조대에 폐백을 땅에 묻어서 발생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望燎하도록 지시하여 태우게 되었다. 『太學志』에 실린 내용을 보면 ‘望瘞禮’를 정조대에 다시 복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종대에 이르러 편찬된 『大典會通』禮典 등에 ‘望瘞’가 아닌 ‘望燎’를 규정하였기에 이후 望燎禮가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척향교 석전제 망료례홀기



망료를 위해 망료위에 대기 중인 초헌관과 집사

4. 죽서루와 삼척도호부 관아건물지, 그리고 오십천(五十川)

죽서루 : 보물 213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三陟 竹西樓와 五十川) : 명승 제28호

소재지 :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

죽서루는 보물 213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三陟 竹西樓와 五十川)은 명승 제28호, 죽서루가 위치한 삼척도호부 관아지 (三陟都護府 官衙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은 송강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삼척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오십천에서 가장 절경지로 알려진 곳으로 죽서루에서 내려다보는 오십천 경관과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죽서루와 절벽부의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오십천은 삼척시 도계읍 백병산에서 발원하여 삼척시를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가는 동해안에서 가장 긴 감입곡류하천으로 오십천 협곡의 암벽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생성되어 오랜 기간 하천작용으로 퇴적 변형되어 현재의 다양한 석회암지대 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0여 번을 굽이쳐 흐르면서 삼척시를 동서로 양분하기에 이 하천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시킨다. 발원지는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백병산 북서쪽 능선 가까이에 있으며, 고위평탄면 상에 나타나는 고산 습지이다.

오십천 발원지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척주지』(허목, 1662년), 『여지도서』, 『삼척군지』(심의승, 1916년) 등의 기록을 보면, 오십천(五十川)이 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라진 별도의 산인 우보산(牛浦山) 혹은 유현(楡峴)에서 발원(發源)하는데 그 발원지를 구사흘(九沙屹)이라 하며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미인 폭포]이고, 이 물이 동쪽으로 백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오십천’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부 기록에서는 부에서 물근원까지 마흔 일곱 번을 건너야 하므로 대충 헤아려서 오십천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보(李簾)의 「유황지기(遊黃池記)」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기운이 태백산에 이르러 동해·서해·남해에 까지 이어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대간 줄기와 함께 태백산 권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오십천을 이루어 동해에 닿으며, 한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는 서해에 닿고, 황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남해에 이르고 있음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서루가 위치하는 곳은 오십천의 협곡이 끝나려 하는 부위로 오십천과 주변 협곡, 죽서루 절벽 배후의 카르스트 지형과 길게 늘어진 송림 등이 태백산지와 함께 어우러져 절경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다.

오십천(五十川) 충암절벽 위에 세운 죽서루는 자연암반을 초석으로 삼고 암반 높이에 맞춰 길고 짧은 기둥을 세운 5량구조의 팔작집인데 공포에서는 익공계수법과 다포계수법이 혼용되었는데 천장구조로 보아 맞배집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조선 후기까지 여러 번의 수리로 많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액(書額) 중 '제일계정(第一溪亭)'은 현종3년(1662년) 부사 허목¹⁹⁾이 쓴 것이고,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는 숙종 37년(1711년) 부사 이성조가 썼으며,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戱之所)'는 현종 3년(1837년) 부사 이규현이 쓴 것이다. 이 밖에 숙종, 정조, 율곡 이이 선생 등 많은 명사들의 시액이 걸려 있다.

죽서루는 관동팔경 가운데 유일하게 강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고려 명종 때의 문인 김극기의 죽서루 시(詩)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1190년 이전부터 이미 죽서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누각은 1403년 삼척부사 김효손이 옛 터에다 새로 지은 이후 10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며, 누 동쪽에 죽장사(竹藏寺)라는 절과 명기 죽죽선녀(竹竹仙女)의 집이 있어 죽서루(竹西樓)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1) 삼척도호부 관아 건물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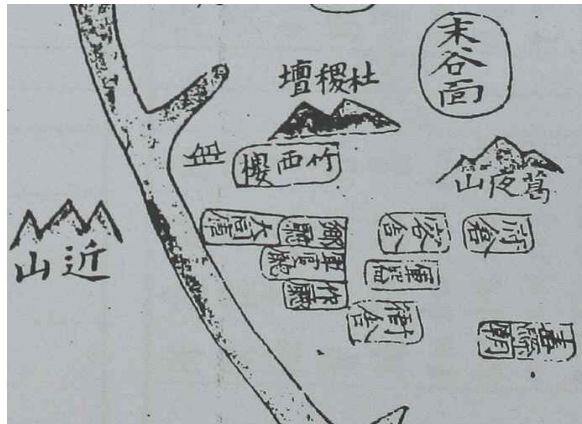
삼척도호부 관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삼척관련 관찬·사찬지리지와 척주선생안, 조선시대에 제작된 삼척도호부 단위의 고지도,

19) 허목이 쓴 사실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현재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정선·김홍도·강세황 등이 죽서루를 소재로 하여 그린 회화 등을 통해 그 대략을 알 수 있다.²⁰⁾

지리지에서는 주로 단묘·공해·창고조(壇廟·公廨·倉庫條)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조대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183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동지』에 소개된 관아건물 중 읍성 내에 위치하였던 시설들을 소개하였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 중 삼척도호부 읍성 내의 관아를 가장 자세하게 소개한 고지도는 『관동읍지』의 삼척도호부 내용에 첨부된 고지도이다. 여기에 소개된 읍성 내 관아 건물은 죽서루, 대동고, 향청, 객사, 부창, 군기청, 군기, 작청, 아사와 함께 羣神廟인데, 표기된 고지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도호부 읍성 내 관아 배치(『관동읍지』)

위에서 소개한 고지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지도는 죽서루와 동헌, 창고 위주로 소개하였는데, 읍성 내에 표기된 관아를 도표로 정리하고, 관련 고지도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삼척 관련 고지도의 읍성 내에 표기된 관아

고지도명	발간 시기	읍성 내에 표기된 관아	비 고
비변사인방안지도	1745~1760년 사이	죽서루, 客, 衙, 倉	
해동지도	1750년대 초	죽서루, 客, 衙, 倉	

20) 삼척지역 관련 지리지와 척주선생안 관련 내용은 다음 자료 참고

김도현, 「歷代 地理誌의 三陟郡 敘述에 대한 一考察」, 『江原文化史研究』第 2輯, 江原郷土文化研究會, 1997.

배재홍, 『국역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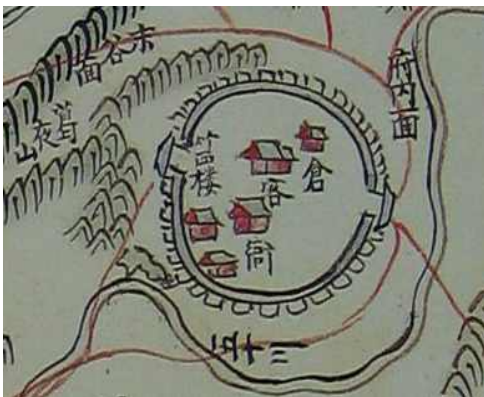
여지도서	1757 ~ 1765년 사이	죽서루, 衙舍, 府倉	
관동지	1830년 전후	객사, 죽서루, 邑	
관동읍지	1871년	죽서루, 대동고, 향청, 객사, 부창, 군기청, 군기, 작청, 아 사와 함께 蠡神廟	
삼척부지도	1872년	邑基, 府倉, 죽서루, 남문	
삼척진영지도	1872년	邑基, 府倉, 죽서루, 남문	



여지도서(삼척) 관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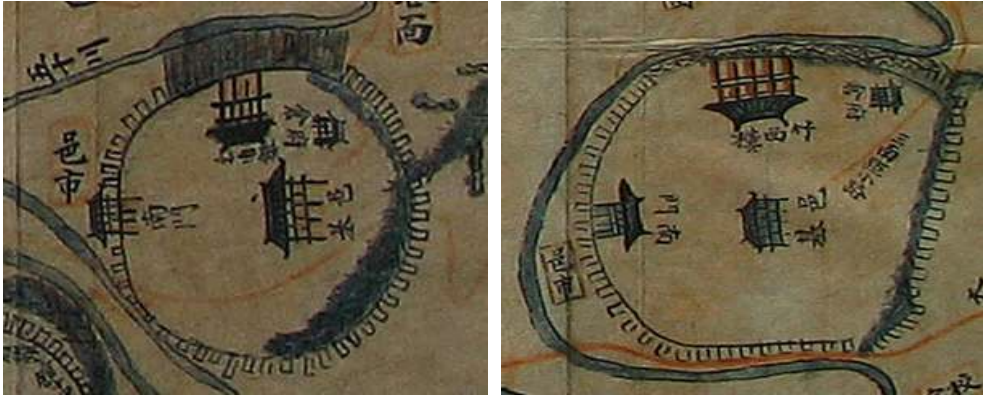
비변사인방여지도 중(삼척 일부) 관아 배치



삼척부(해동지도) 내 관아 건축



관동지(삼척) 중 삼척관아 배치 전체



삼척진영지도 중 읍성 내 삼척관아 배치 삼척부지도 중 읍성 내 삼척관아 배치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삼척도호부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관리들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여지도서』 삼척도호부 관직조(官職條)에 기재된 관직명과 인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사 문음으로 종3품을 배치한다. 부사에 속한 관원은 다음과 같다.

좌수 1인, 별감 3인, 창감관 2인, 행수군관 1인, 병방군관 2인, 장무군관 1인, 번군관 15인, 아전 30인, 지인 20인, 사령 11명, 관노 20명,婢 15명

『관동지』 삼척도호부 관직조에 기재된 관직명과 인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사 1명, 좌수 1명, 향소 3명

삼척도호부에 배치된 관리와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를 중심으로 삼척읍성 내 주요 관아 건물을 소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삼척읍성 내 삼척도호부 관아건물은 죽서루·연근당을 포함한 객사와 함께 부사와 실무 관리들이 근무하는 衙舍, 좌수·별감 등 향임들이 활동한 향청 그리고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필요에 따른 부속 건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척주선생안』에 등장하는 건물은 객사와 관련하여 진주관과 응벽헌, 중서헌, 부사와 좌수, 관리들이 사무를 보았던 관아는 낭사, 군기, 고마청, 향청, 아사, 보역청, 무고, 公廨의 兩廳, 三廳의 翼廊, 작청, 군관청, 호적고이며, 창고는 사창, 빙고, 창사, 제사와 관련하여 蠡神廟와 城隍祠가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그 기능이 같은 건물도 있지만 위의 자료를 통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운영된 삼척도호부 내 관아건물의 건립과 중수 양상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삼척도호부 내 관아건물 현황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2] 삼척도호부 내 관아건물 현황

		현 황	비 고
객사		진주관, 응벽헌[서헌·중서헌]	누정 포함 칠장방
아사	내아	내아	옛 우체국자리
	외아	칠분당[동헌]	옛 삼척군수 관사 터
	기타 관아건 물	향청 부사 좌기청[정청] 작청, 군관청, 보민청, 고마청, 보역청, 호적고, 대동고, 군관청, 낭청방, 뇌옥	옛 우편취급소 옛 삼척등기소 현 삼장사 옛 읍사무소 옛 삼척경찰서
창고		사창[창사·부창], 빙고, 군기청[무고]	현 삼장사
제사 관련		蠡廟, 城隍祠	

삼척도호부의 관아건물을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누정을 포함한 객사, 관아, 창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 기능에 따라 구분한다면 위의 도표²¹⁾ 중 창고와 제사 관련 건물은 직접적인 행정 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객사와 관아로 구분하며, 衙는 내아와 외아, 기타 관아 건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객사²²⁾

객사(客舍)는 읍성의 중심에 자리한 가장 격식이 높고 으뜸되는 건축물이다.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와 궁궐을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봉안하고

21) 도표에서 소개한 관아 이외에도 다른 지역 사례와 1916년에 발간된 심의승의 『삼척군지』, 1963년에 발간된 『진주지』 등을 참고한다면 기록되지 않은 건물이나 공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객사(客舍)는 궐패를 모셔놓고,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곳으로서 관아에 관련된 시설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시설에 해당된다. 전통적인 고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전통건축물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수의 진남관이나 통영의 세병관도 객사의 일종이다. 규모가 큰 만큼 일제강점기 때는 개조가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나말여초 때부터 세워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선 중기까지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은 건물이었다. 조선 이전에는 국가적으로 불교를 신봉해 전국에 규모 있는 사찰이 많았고 이들이 관리나 사신들의 숙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따로 객사를 지역별로 만들 이유가 적었다. 사찰은 조선시대 초기 이후에도 숙소로 많이 이용되었지만, 승유역불이 오래 지속되면서 평지의 대형 사찰은 사라지거나 일부는 객사로 개조되고, [부여객사가 대표적으로, 주춧돌 등에서 사찰을 개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멸망 후 역할을 잃은 사찰들은 향교나 서원으로 개조되기도 했다.] 교통로와 거리가 있는 산중턱의 중소규모 사찰 위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젠 평지의 도시에 따로 숙박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객사는 주로 평안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었으나 성종때 사림파를 등용한 이래로 전국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향촌에 성리학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객사의 중심 건물인 정청에 궐패(闕牌)를 안치해 삭망월 등에 망궐례를 행하기 시작했고, 임진왜란을 거쳐 18세기에 들어서 보편화되었다. 수령을 비롯한 관원들이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대궐을 바라보며 절하는 향망궐배(向望闕拜)가 이루어지던 곳이다.

또한 객사는 중앙으로부터 임금의 뜻을 받들고 내려온 사신들을 머물게 하며 접대하던 건물이기도 하였으며, 관찰사가 순시차 들르면 잔치를 벌이거나, 백성들에게 향시를 베풀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객사는 각 지방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지거나 관아와 나란히 지어지곤 하였다. 관사(館舍)·객관(客館)이라고도 하였다.

보통 객사 건물은 건물 중앙부에 정청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좌우에 익헌이라고 불리는 길쭉한 형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중앙부에 만들어진 정청은 좌우익헌보다 약간 높이가 높게 되어 있는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전기 객사는 정청과 좌우의 익실 건물이 분리되어 있다.

수령이 부임하면 이곳에서 의식을 치른다.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향궐망배(向闕望拜)하는 의식을 치루어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도 왕의 시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객사는 3개로 구분되는 건물과 문, 담장, 그리고 객사에 부속된 누정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객사는 전패와 궐패를 안치한 주사(主舍)와 옆에 연결된 익사(翼舍)로 구분된다. 객사의 가운데 자리한 주사에는 정청(正廳)을 두고 그 좌우에 익사를 두었다. 정청에서는 왕과 궁궐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와 궐패(闕牌)를 모시고 하례를 올렸다. 이러한 기능을 반영해서 건물 형태는 옆으로 긴 일자형(一字形)을 이룬다. 가운데 정청은 지붕이 좌우 익사보다 한단 높은 맞배지붕이다. 그 평면 역시 중앙이 조금 크고 좌우에 폭이 약간 좁은 건물이 대칭으로 놓인 형태이다.

익사(翼舍)의 기능은 외국의 사신이나 중앙의 관리들을 접대, 수행하고 온돌방을 두어 이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평상시의 객사는 외부에서 온 사신이나 관리들의 숙소로도 이용되던 건물로써 우진각 지붕으로 주사와 구분하였다. 서익사(西翼舍)보다 동익사(東翼舍)가 격이 높았다. 따라서 신분이 높은 관리가 동익사에 묵게 되며 여기서 주로 연회를 열었다. 그 때문에 동익사 주변에 연못을 마련하거나 수목을 조성하여 좋은 경관을 꾸미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객관이 있는 곳에는 대개 누각이 세워졌다. 고을 수령이나 읍내 유력 인사들이 누각에 올라 고을을 내려다보거나 경치 좋은 곳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즐겼다. 다른 지방의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누각은 객관과 인접한 곳에도 세우지만 고을 곁을 흐르는 강가 높은 언덕에 세워 경관을 돋보이게 하거나 성문 위에 세워 성문의 위용을 높이기도 하였다.

삼척의 객사는 진주관(眞珠館 or 眞珠觀)이다.²³⁾ 각 고을에 있었던 객사들은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강릉 객사는 임영관(臨瀛館), 경주의 객사는 동경관(東京館), 전주의 객사는 풍패관(豐沛館)이다. 삼척 객사가

23) 진주관을 당시 ‘眞珠觀’으로 썼는지 아니면 ‘眞珠館’으로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허목의 『척주지』와 『관동지』에는 진주관(眞珠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허목의 『기언』에서는 眞珠館과 眞珠觀을 혼용하고 있다. 다른 자료에는 진주관(眞珠館)으로 되어 있다.

진주관인 것은 삼척의 옛 이름이 진주(眞珠)였기 때문이다. 척주관(陟州館)이라고²⁴⁾ 일컫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삼척의 옛 지명을 본 딴 것이다.

삼척의 객사는 이곡(李穀)의 시에 ‘객사(客舍)와 승방(僧房)이 겨우 담을 격했고, 뜰에 있는 꽃과 대나무도 함께 떨기를 이루었다. 누각에 올라도 짝이 없어 심심해 부른 것이요, 전사(顛師)가 도풍(道風)이 있어서는 아니었네’라고²⁵⁾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의 죽장사와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객사인 진주관에는 상·중·하 3개의 서헌(西軒)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상서헌(上西軒)을 응벽헌이라 하였다. 응벽헌은 1518년(중종 13)에 부사 남순종(南順宗)이 창건하였으며 위치는 죽서루 북쪽 암벽 위이었다. 1520년(중종 15)에 신광한(申光漢)은 응벽헌이 아직 당호가 없었기 때문에 수헌(水軒)이라는 이름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시사(四時詞)를 지어 노래하였다. 응벽헌(凝碧軒)이라는 당호(堂號)는 1536년(중종 31)에 관찰사 윤풍형(尹豐亨)이 붙였다.

삼척의 객사는 1662년(현종 3) 삼척부사로 와 있던 허목에 의해 현판 진주관(眞州觀)을 전서체로 써서 달았으며, 1870년(고종 7) 부사 서증보(徐曾輔)가 단청을 하고 척주관(陟州館)으로 당호를 고쳤다.

객사 진주관(眞珠館)은 원래 죽서루 바로 밑에 있었으나 1517년(중종 12)에 삼척부사 남순종(南順宗)이 옮겨 짓고 진주관(眞珠館)이라 하였다. 이 후 객사는 여러 차례 중수하고 수리하였다.

신광한은 1520년(중종 15) 3월에 삼척부사로 부임하여 1521년(중종 16) 7월까지 재임하면서 객사인 「진주헌기(眞州軒記)」를 지었다. 「진주헌기(眞州軒記)」에는 응벽헌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평소 서울에 살면서 오랫동안 산수(山水)의 경치를 구경해보고 싶다

24) 『강원도지(江原道誌)』 3권, 공해조(公廨條)

2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4권, 삼척도호부 제영조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산수에 대해 이야기할 적마다 많은 사람들이 영동 지방의 산수가 가장 좋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죽서루가 첫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에 일찍이 한번 죽서루를 구경하여 나의 생각을 넓히고 싶었는데 … 정덕(正德) 15년 봄 정월에 늙으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겠다는 핑계로 지방관에 임명되기를 힘써 갈구하여 역사 깊은 삼척부의 부사가 되었다. 죽서루는 바로 이 삼척부에 있다. … 부임한 날 정사(政事)가 끝나자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죽서루를 찾았다. 죽서루는 읍 성 서쪽에 붉게 빛나는 절벽 위에 있었는데, 절벽이 곧 성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깊은 소로서 오십천이 합류하는 곳이었다.

검푸른 두타산과 험준한 태백산의 구렁이 수백 리 이어져 뻗어 내려오다가 강가에 이르러 우뚝 끊어지며 멈추어 섰는데 이를 남산(南山)이라 하였다. 남산에는 반짝이는 모래와 흰 돌들이 찬연하여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는 푸른빛을 가리고는 온갖 변화된 형상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니 마치 매우 아름다운 미인을 만난 것 같아 마음에 정말 좋았지만 가까이 하여 즐길 수 없으니 인간 세상에 또한 이 누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비로소 알았다.

이에 죽서루 안 사방을 이리저리 거닐다 보니 난간은 부러지고 검푸른 칠은 퇴색되어 잘 보이지 않았으며, 걸상은 더러워진 채 엮어져 있었는데 좌우의 손잡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를 괴이하게 생각하여 물어보니, 시종드는 아이가 재빨리 나와 말하기를 ‘전 부사 남순종(南順宗)이 신관(新館)을 새로 지었는데, 그 수헌(水軒)이 죽서루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 때문에 죽서루에 올라와

구경하는 과객(過客)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죽서루의 서쪽 변두리 절벽 수십 보는 선로(仙路)라고 불렀는데, 이 길을 따라가 마침내 수헌(水軒)에 오르니 건물의 향배(向背)는 죽서루와 같았지만 계단이 높고 용마루와 처마가 넓은 2층 기와집 누각이었다. 그 겹채의 부엌도 아주 새로웠는데 대체로 옛 것은 모두 버리고 새로 만들었을 것 같다. 강산의 아름다움은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데도 관우(館宇)의 아름다움 때문에 강산이 또한 더 아름다워진 것 같다.

그러나 죽서루는 이미 영동 지방에서 산수가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이 났

지만, 수헌(水軒) 건물은 이 죽서루보다 더 아름다우니 마땅히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자가 많아야 할텐데도 일찍이 이야기를 한 자가 없으니 어찌 이 건물의 불운이 아니겠는가. 지금 감사(監司) 홍경림(洪景霖)이 내가 수헌(水軒)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도록 권하였지만 처음에는 시를 쓸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바닷가라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처리해야 할 공문서도 적어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이 수헌(水軒)에서 소요(逍遙)한 것이 오랜 시간이라 마치 나 혼자 그 수헌(水軒)의 요점을 깨달은 것 같았다. ...

그러므로 응벽헌은 남순종이 죽서루가 쇠락함에 새롭게 객사의 서쪽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응벽헌은 죽서루에서 절벽을 따라 나 있는 선로(仙路)를 지나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 그리고 건물의 향배(向背)는 죽서루와 같으며, 형태는 계단이 높고 용마루와 처마가 넓은 2층 기와집 누각이었다.

한편 허목은 「응벽헌기(凝碧軒)」에서 응벽헌의 역사와 제액을 하게 된 사정을 기록하였다.

응벽헌은 진주관(眞州館)의 상서헌(上西軒)으로 죽서루 북쪽 암벽위에 있는데 깊은 소와 마주 대하고 있으며 들보와 마룻대가 매우 장려(壯麗)하다. 그 서쪽 처마 아래에는 바위로 된 좁은 길이 나 있는데 돌계단이 놓여져 있다. 정덕(正德) 연간에 부사 남순종(南順宗)이 이 응벽헌을 지었는데 관찰사 윤풍형(尹豐亨)이 응벽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응벽헌에서 두타산을 바라보면 산봉우리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높은 절벽과 깊은 소는 모두 푸른빛이다.

그런데 응벽헌에는 편액이 걸려 있지 않고 다만 가정(嘉靖) 연간에 부사 신광한(申光漢)이 지은 응벽헌 사시사(四時詞)만 벽 위에 쓰여 있었다. 이에 내가 묵갈(墨葛)을 사용하여 헌명(軒名) 응벽헌(凝碧軒) 세 자를 대자(大字)로 써서 벽 위에다 걸었는데, 세 개의 판자에 쓴 글자의 획이 등나무의 칠 같이 구불구불 하였다. 이어서 ‘양천(陽川) 허목(許穆)이 쓰다’라고 썼으니 때는 임인년(壬寅年) 칠월이었다.

이상에서 응벽헌은 삼척관아의 객사인 진주관의 상서헌으로 죽서루 옆 절벽에 죽서루와 같은 향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순종이 짓고 신광한 이 사시사를 지었으며, 윤풍형이 응벽헌이라는 당호를 지었다. 그리고 허목이 전서체로 제액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응벽헌은 1908년(순종 2)에 훼손(毀撤)되고 말았다. 그 위치는 발굴 조사 구역 중 1-I 구역의 7호 건물지로 추정된다.

객사를 세부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⁶⁾

가) 객사[진주관,척주관]

객사는 진주관이라하였으며, 별명은 척주관(陟州館)이다. 원래 죽서루 아래에 있었는데, 중종 13년(1518) 7월 26일 죽서루 북쪽으로 옮겼다. 순종 2년(1908) 삼척군 청사(廳舍)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신해년[1911]에 전패(殿牌)와 결패(闕牌)를 강원도에 봉환하고, 대정 원년 임자년[1912] 봄에 객사 대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헐어 없앴다고 한다. 인근의 강릉대도호부나 다른 지역 사례, 그리고 발굴 성과를 종합해 보면 객사와 관아를 구분하는 담장과 대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4년 진주관을 헐고 그 자리에 삼척군의 청사를 새로 지어 사용하였는데, 현재 삼장사와 접해있는 죽서루 경내의 광장과 옛 삼척문화원이 자리한 건물 일부분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복원한 진주관

26) 아래의 분석한 내용은 개별 관아의 창건, 중수, 훼손과 함께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조사·정리하였다. 이 내용의 작성은 다음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심의승, 『삼척군지』, 1916.

최만희 외, 『진주지』, 1963.

배재홍, 『국역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2003.

나) 서헌[응벽헌]

삼척 객사에는 서헌(西軒)인 응벽헌(凝碧軒)이 있었다. 허목은 『척주지』에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²⁷⁾

①

관찰사 윤풍형이 진주관의 서헌(西軒)을 응벽헌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정덕 경진년(1520:중종 20)에 부사 신광한²⁸⁾이 응벽헌의 사 계절에 관한 시를 지었고 또 팔경을 읊은 작품도 있다.²⁹⁾ 그 82년 후인 만력(萬曆) 신축년(1601:선조 34)에 응벽헌의 남쪽 처마를 고쳐지었고 곧 중서헌(中西軒)도 수리하였다.³⁰⁾

현 임금(현종) 3년(1662) 임인년에 진주관(眞珠館)³¹⁾과 응벽헌(凝碧軒)의 큰 편액(扁額)을 걸었다. 모두 고문(古文)이다.

②

그 암벽 위에는 누각이 세 개 있다. 그 중 응벽헌(凝碧軒)이 가장 장대하고 화려한데 진주관(眞州觀)의 서헌(西軒)이다. 응벽헌 남쪽의 죽서루(竹西樓)는 높아서 시원하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 또 죽서루 남쪽에는 연근당(燕

27) 허목(許穆), 『척주지(陟州誌)』하권

28) 신광한(1484-1555) 자는 한지(漢之).시晦). 호는 기재(企齋).낙봉(駱峰).석선재(石仙齋).청성동주(靑城洞主). 본관은 고령. 신숙주의 손자. 중종 2년(1507) 사마시를 거쳐 동왕 5년에 문과 급제. 동왕 13년에 대사성에 특진되었으나 이듬해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삭직(削職)되었다. 명종 즉위년(1545) 을사사화 때 우참찬으로 윤임 등 대운(大尹)을 제거한 공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이 되고 좌찬성에 올랐고, 동왕 8년 기로소에 들어갔다. 문장에 능하고 필력(筆力)이 뛰어났다. 저서에 기재집(企齋集).기재기이(企齋記異)가 있다. 그는 중종 15년(1520) 3월에 삼척 부사로 왔다가 그 이듬해인 중종 16년(1521) 7월에 갔다.

29) 신광한의 문집 『기재집』 별집(別集)에는 응벽헌의 4계절을 노래한 시 <서헌사시>와 죽서루 주위의 팔경을 읊은 시 <죽서루팔영운>이 실려 있다.

30) 허목의 『기언』에 있는 <응벽헌제액기>를 보면 ‘凝碧軒眞珠館之上西軒也在西樓北巖壁上臨潭水’라 하여 응벽헌을 진주관의 상서헌(上西軒)이라고 하였다. 이 『기언』의 기록과 『척주지』 원문의 ‘중서헌(中西軒)을 수리하였다’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당시 진주관의 서헌(西軒)은 상서헌·중서헌·하서헌 등 3개의 서헌(西軒)이 있었고, 이 가운데 죽서루 북쪽 오십천가 암벽 위에 있는 상서헌을 응벽헌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1) 상백본 『척주지』에는 ‘眞珠觀’으로 되어 있다.

謹堂)이 있는데 물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소용돌이치며 빨리 흘러 돌에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연근당은 물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연근당 남쪽은 남산(南山) 석애(石崖)인데 물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또 다시 꺾이어 동쪽으로 흘러간다. 서쪽으로 상류 쪽을 바라보면 나무가 무성한 숲이고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이다. 그 너머는 두타산인데 늘어선 산봉우리에 진한 푸른 기운이 감돈다.

그리고 허목은 척주지에서 ‘응벽헌 서쪽 모퉁이에는 바위 절벽을 따라서 난 돌길이 있다. 그 바위틈에는 창포가 많이 자라고 있고 암벽 사이에는 물새들이 날아와 모이는데 울면서 오르락내리락 날아다닌다.’고 하였다. 실제 응벽헌이 있었던 절벽 아래 바위벽에는 ‘응벽담(凝碧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와 함께 허목의 『기언』에 있는 <응벽헌제액기>를 보면 ‘凝碧軒眞珠館之上西軒也在西樓北巖壁上臨潭水’라 하여 응벽헌을 진주관의 상서헌(上西軒)이라고 하였다. 이《기언》의 기록과 위《척주지》원문의 ‘중서헌(中西軒)을 수리하였다’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당시 진주관의 서헌(西軒)은 상서헌·중서헌·하서헌 등 3개의 서헌(西軒)이 있었고, 이 가운데 죽서루 북쪽 오십천가 암벽 위에 있는 상서헌을 응벽헌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객사인 진주관의 서헌(西軒)이 곧 응벽헌(凝碧軒)인데, 1536년 관찰사 윤풍형(尹豊亨)이 그 서헌을 응벽헌이라 하였다. 선조 34년[1601]에 고쳐 다시 지었고, 효종 3년[1652]에 대액(大額)을 걸었으며 영조 대와 정조 9년[1785]에 중수(重修)하였다. 각종 기록과 죽서루를 그린 회화 내 건물 배치³²⁾를 고려한다면 죽서루와 삼장사 사이의 벼랑 위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32) 차장섭·배재홍·김태수, 『죽서루』, 삼척시립박물관, 2004.



복원한 응벽헌

3) 죽서루

가) 연혁과 공간 구성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고려 명종 때의 문인 김극기(金克己)의 죽서루 시(詩)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1190년 이전부터 이미 죽서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누각은 조선 태종3년(1403) 삼척부사 김효손이 옛 터에다 새로 지은 이후 10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며, 누 동쪽에 죽장사(竹藏寺)라는 절과 명기 죽죽선녀(竹竹仙女)의 집이 있어 죽서루(竹西樓)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죽서루는 조선시대에는 삼척 관아의 객사인 진주관에 딸린 누각이었으며, 죽서루의 남쪽에는 별관인 연근당(燕謹堂)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근에는 진주관의 서헌인 응벽헌이 있었고, 1586년(선조 19년) 당시 부사였던 강세윤이 창건한 서별당이 연근당 아래쪽 관아 담장 옆에 있었다고 한다. 이

와 함께 삼척도호부 관아 건물이 인근에 있었으며, 경내에는 문암(門巖)과 성혈(性穴)이 있다.

죽서루의 중수와 관련하여 허목은 『척주지』에서 그 연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죽서루는 가장 오래되었는데 영락(永樂) 원년 태종 3년(1403) 계미년에 부사 김효손이 옛 터에 이 죽서루를 지었다. 홍희(洪熙) 원년 세종 7년(1425) 을사년에 부사 조관이 단청을 하였고, 성화(成化) 7년 성종 2년(1471) 신묘년에 부사 양찬이 중수하였다. 가정(嘉靖) 9년 중종 25년(1530) 경인년에 부사 허확이 남쪽 처마를 증축하였다.

위의 글을 통해 죽서루는 목조 건물이기에 지속적으로 중수를 하면서 확장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허목은 죽서루와 함께 죽서루 아래에 있었던 연근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 당시 죽서루와 그 별관인 연근당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건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죽서루를 내려와 높은 절벽의 돌 비탈길을 지나면 연근당(燕謹堂)이 있는데 정통(正統) 8년 세종 5년(1423)에 부사 민소생이 지었다. 성화(成化) 6년 성종 원년(1470)에 연근당에 불이 나 그 이듬해인 신묘년(1471:성종 2)에 중건하여 8칸으로 늘려 지었는데 당시 부사는 양찬이었다. 괴애가 쓴 연근당기(燕謹堂記)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근당은 삼척부 죽서루의 별관(別館)이다. 고(故) 부사 민소생이 창건하였는데 그 해는 계해년이었고 건물은 7칸이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삼척을 찾는 대소 관리들이 묵던 곳이다. 신묘년 윤 9월에 불타버려 다음 해 봄에 개축하여 8칸으로 늘려 짓고 10월 그믐에 비로소 준공하였다.

이 때 고을 사람들이 모두 와 모였는데 일어나 태수(太守)에게 술잔을 올린 자는 창사(倉使) 김자균이었고, 취하여 춤을 춘 자는 장군 함맹겸이었다. 또 술이 깨 시를 읊은 자는 교수(教授) 어경량이었고, 좌우의 사람들을 모시고 연회 자리를 이끌어 간 자는 전승(前丞) 박중명이었다.

이 공사 초기에 감독을 맡은 자는 호장(戶長) 김생려와 김득강이었고 또 김규 등 수십 명이 감독하였다. 당시 태수는 누구냐 하면 성은 양이고 이름은 찬이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일을 기록한 자는 괴애자(乖崖子) 김문량(金文良)이다. 장차 채색을 하여 오래도록 빛나게 하려고 하니 그는 태수 황선생(黃先生)이다. 황선생은 윤원이 이름이다. 성화(成化) 8년(1472) 동지 후 7일에 쓰다.’

죽서루 중수와 관련하여 죽서루 내에 계판되어 있는 기문 중 홍양(洪陽) 이학규(李鶴圭)가 신유년[1921] 4월 상순에 쓴 죽서루중수기를 보면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죽서루를 잘 보존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의 죽서루는 관동지방에서 이름난 누각이다. 예나 지금이나 관동지방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팔경(八景)을 거론하는데, 이 누각이 팔경의 하나로 들어간 것은 건물의 구조가 웅장하거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다. 대체로 누각이 위치한 지형의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죽서루의 명성도 또한 널리 알려진 것이다.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이 쓴 기문(記文)에 이르기를 ‘북쪽으로는 큰 산봉우리에 의거하고 서쪽으로는 큰 시내를 마주 대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시내 위에 떠있는 구름과 산봉우리에 걸쳐있는 달 사이에 펼쳐진 수많은 아름다운 경치는 대략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누각이 매우 높은 절벽 위에 있어 오십천(五十川)을 내려다보면 물이 돌아나가면서 소를 이루는데 물속까지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여 헤엄치는 물고기를 난간에 기대어서서도 헤아릴 수 있으니 매우 아름다운 경치이다.

누각을 창건한 연대는 찾아볼 문헌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지붕은 비를 맞고 벽은 바람을 받아 결국 용마루가 부러지고 서까래가 썩게 되었으니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방황하고 고을 주민들이 탄식해 왔다. 그런데 이군(李君) 범기(範綺)가 숙련된 재주로 관리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삼척 군수로 왔는데,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쇠퇴한 것이 모두 다시 흥성해졌다. 이에 고을의 인사(人士)들이 이군(李君)에게 이야

기하기를 ‘군수님이 부임한 이후부터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법도가 바로잡혀 온갖 제도가 나아져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서루만은 옛 모습 그대로 무너져 허물어진 채로 있으니 어찌 지금 수리하여 보존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군(李君)이 말하기를 ‘훌륭한 고적을 보존하는 것이 비록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은 알지만, 지금 주민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 갑자기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물며 이 고을이 크게 이름이 난 것은 강산(江山)의 뛰어난 경치 때문이다. 강산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있으니 누각 하나의 흥폐(興廢)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고을의 인사(人士)들이 말하기를 ‘이 고을에 이 누각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서시(西施)와 같은 미인이라도 만약 흘려보는 아름다운 눈이 없다면 또한 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을에 이 누각이 없다면 서시(西施)가 눈이 없는 것과 거의 같아 강산에 크게 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날을 틈타 이 이름난 누각을 중수(重修)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군(李君)이 거듭 민심과 어긋난다고 하면서도 마침내 허락하였다.

이에 제각기 약간씩의 돈을 모아 무너진 곳을 옛 모습대로 만들고는 게다가 수리까지 하였는데 며칠 안 되어 완공하였다. 우뚝하게 높이 솟은 아름다운 누각이 냇가에 자리 잡고 있으니 강산의 경치가 변한 것 같고 초목의 빛깔이 더욱 짙어진 것 같았다. 이에 이 누각에서 백일장을 열고는 많은 선비들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시가(詩歌)를 읊으면서 준공식을 거행하였는데, 먼 길을 달려와 나에게 기문(記文)을 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만물의 흥폐(興廢)는 진실로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누각이 무너져 허물어진 것은 갑자기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고을의 인사(人士)와 이전에 이 고을 수령을 지낸 자가 많은데도 중수(重修)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 지금 이군(李君)이 주민들과 더불어 서로 믿고서는 이전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였으니 민심이 더욱더 희망적이 되었다. 이 누각의 중수(重修)는 아마도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이군(李君)의 지위는 겨우 하급 관리일 뿐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

었으니, 단지 이 누각의 중수를 오늘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을 주민들의 습속이 거듭 새로워짐을 또한 마땅히 후일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죽서루의 건축구조는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했다. 누각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연꽃으로 수놓은 연등천장이며, 우물마루가 끝나는 사면에는 계자난간을 세우고, 기둥 사이는 벽체나 창호없이 모두 개방했다.

오십천(五十川) 층암절벽 위에 세운 이 누정은 자연암반을 초석으로 삼고 암반 높이에 맞춰 길고 짧은 기둥을 세운 5량 구조의 팔작집인데 공포에서는 익공계수법과 다포계수법이 혼용되었는데 천장구조로 보아 맞배집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조선 후기까지 여러 번의 수리로 많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죽서루는 정면 7칸이다. 정면이 원래 5칸이었는데, 후대에 1칸씩 증축하여 7칸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곧장 누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측면은 칸수가 다르다. 북쪽 측면은 2칸이나, 남쪽 측면은 3칸으로 되어 있어 칸 수가 같은 일반적인 건물과는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만든 이유는 자연 암반을 주초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며, 또 다른 이유는 남쪽 측면을 정면으로 하여 이곳을 주 출입구로 하여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죽서루를 건축함에 있어 특징 중의 하나는 기둥 배치이다. 2층의 누각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진 죽서루는 하층의 기둥 수가 다르다. 상층 기둥이 20개인데 비해 하층의 기둥은 13개로 상층에 비해 7개나 적다. 이것은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높은 암반이 있는 위치에는 바로 상층 기둥을 세우고, 암반이 없거나 낮은 암반이 있는 곳에만 하층 기둥을 세워서 하층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둥은 그 길이가 각각 다른데, 이는 자연 암반과 자연석 초석이 놓여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초석으로 활용한 암반을 다듬지 않고 그랭이질을 하여 기둥과 초석을 밀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죽서루로 오르는 입구는 현재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곳의 좌측이다. 좌측 큰 바위 사이로 난 길을 오르면 ‘죽서루(竹西樓)’라 쓴 편액을 마주하게 되

는데, 정면의 우측 귀공포의 장여빨목을 청룡과 황룡 머리 형태로 조각되어 있고, 좌측은 운공형, 즉 구름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이는 구름 위의 용을 상징적으로 조각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물을 관장하는 용을 조각함으로써 죽서루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관동팔경 중의 하나인 죽서루의 경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벽 위에 지은 죽서루의 모습이 아니라 죽서루에서 밖을 본 경관일 것이다. 조선 시대 문인 박종은 ‘동경기행’에서 죽서루에 올랐을 때의 풍광을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삼척 서쪽 천리 절벽이 맑은 강을 위압하듯 다가서는데, 그 위에 자리잡은 누각이 죽서루이다. 죽서루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서면 사람은 공중에 떠 있고, 강물은 아래에 있어 파란 물빛에 사람의 그림자가 거꾸로 잠긴다. 물 속의 고기떼는 백으로 천으로 무리무리 오르락 내리락 돌아가고 돌아오는 발랄한 재롱을 부린다. 가까이는 들성들성 마을집이 있어 나뭇잎이 뜬 연기가 처마 밑에 감돌며, 멀리는 못 산이 오라는 듯 가뭇가뭇 어렵פות이 보이니 누대의 풍경이 실로 관동의 으뜸이다.

삼척부사를 지냈던 허균이 ‘죽서부(竹西賦)’라는 제목으로 남긴 글에서도 죽서루의 경관을 잘 보여주기 있다. 허목의 『척주지』에 수록된 허균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미년(1607:선조 40)에 내가 삼척 부사로 있을 때 공무가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죽서루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였다. 높이 우뚝 솟은 두타산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흐르는 오십천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불어오는 거센 맞바람을 쏘이며 길게 시가를 읊조리니 잠시나마 편안하던 마음에 다시 근심이 밀려 왔다. 해가 지고 저녁이 다가 와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조금 더 머물렀다.

시기상으로는 봄 경치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여름 풍경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름 모를 잡초의 꽃들이 난간에 그 모습을 비추었고 우거진 녹음은 돌계단을 덮었다. 회랑(回廊)은 사람이 없어 고요하니 새 소리가 아름다웠다. 비 개인 산은 푸름이 더하였고 무성한 대나무 발에는 안개가 피어올랐다.

부잘 것 없는 내가 이렇게 설창(雪窓)을 입고 화양건(華陽巾)을 높이 치켜 올려 쓰고 손에는 옥주(玉麈)를 들고 넓은 마루에 누워 뜰의 키 큰 나무숲을 내려다보며 화극(畵戟)의 맑은 향기에 심취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삼자(三子)와 같은 기상이며 또한 그들을 쫓아서 노니는 것이다.

이에 요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빨리 준비하도록 재촉하고, 맛 좋은 방어(魴魚)도 올리도록 하였다. 또 포생(匏笙)과 재슬(梓瑟)을 가지고 오도록 해 변징조(變徵調)의 악곡을 어지럽게 연주하며 자야(子夜)의 노래를 모방하여 새로 지은 노래인 인결풍(引結風)의 첫 부분을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매우 기뻐하며 혼자서 즐기느라 내가 다른 고을에 와 있다는 것조차 잊어 버렸다.

조금 뒤에 달빛이 들어오지 않기에 계수나무로 만든 등에 높이 불을 밝히니 밤 경치가 맑고 서늘하여 물결에 비친 빛이 공허하였고, 은하수가 아름다운 기와 지붕 위로 떠오르니 옥승(玉繩)은 하늘 저편으로 지고 있었다. 주박(珠箔)을 걷어올리니 마음이 편안하여 신선이 사는 봉도(蓬島)가 멀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듯하였으나, 그 꿈 같던 흥취가 빨리 달아나니 부구공(浮丘公)이 나를 잠깐 초대하였음을 깨달았을 뿐이다. 많은 손님들도 또한 이미 다 취하여 즐거움이 바야흐로 극에 이르러 서로 어울려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지만 나의 가슴에는 슬픔만이 가득하였다.

세월이 빨리 지나감은 흘러가는 냇물의 무너지는 물결과 같은데 세상일이 사람을 얹매어 재촉하는구나. 아! 젊은 시절은 그 얼마나 되는가. 반드시 세월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함에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겠으니 어찌 술잔을 앞에 두고 권하지 않겠는가. 원컨대 마음을 풀고 큰 소리로 노래하기를 바라노라. 이에 노래하기를

자소(紫簫) 소리 목이 메고 밤이슬 하늘 가득한데
시간은 흘러 흘러 아름다운 봄밤은 깊어만 가네
덧없는 인생 나그네와 같으니 어찌 즐기지 아니하랴

고 하였다. 영탄가(永歎歌)를 끝내고 한숨을 쉬니 좌중(座中)이 조용하기에 난간에 기대어 높은 하늘에 떠있는 달만 쓸쓸히 바라보았다.

현종 대에 삼척부사를 역임한 허목도 그가 쓴 『척주지』에 죽서루와 그 주위의 경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오십천(五十川) 물이 읍 성 서쪽의 석벽 아래에 이르러 꺾여서는 남쪽으로 흐르면서 깊은 소를 만들었는데 소 위쪽은 모두 절벽이다. 높은 절벽 앞 건너편에는 흰 자갈이 펼쳐져 있고 그 위는 잡초가 무성한 평지이다. 현 임금(현종) 2년 신축년(1661)에 사직단 아래에 이르기까지 냇가 수리(數里)에 소나무를 심었다.

그 암벽 위에는 누각이 세 개 있다. 그 중 응벽헌(凝碧軒)이 가장 장대하고 화려한데 진주관(眞珠觀)의 서헌(西軒)이다. 응벽헌 남쪽의 죽서루(竹西樓)는 높아서 시원하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 또 죽서루 남쪽에는 연근당(燕謹堂)이 있는데 물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소용돌이치며 빨리 흘러 돌에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연근당은 물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연근당 남쪽은 남산(南山) 석애(石崖)인데 물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또 다시 꺾이어 동쪽으로 흘러간다. 서쪽으로 상류 쪽을 바라보면 나무가 무성한 숲이고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이다. 그 너머는 두타산인데 늘어선 산봉우리에 진한 푸른 기운이 감돈다.

응벽헌 서쪽 모퉁이에는 바위 절벽을 따라서 난 돌길이 있다. 그 바위틈에는 창포가 많이 자라고 있고 암벽 사이에는 물새들이 날아와 모이는데 울면서 오르락내리락 날아다닌다.

나) 죽서루 시(詩) 분석

(1) 죽서루 시(詩)에 담긴 내용 분석³³⁾

33) 심익승의 『삼척군지』에 서술된 죽서루

본 면에는 근산(近山)과 솔모산(率母山) 두 산줄기가 있다. 근산 줄기는 곧 육백산(六百山) 줄기로 본 면의 서남쪽에 우뚝 솟아 동쪽과 남쪽으로 분기(分岐)하는데, 하나는 사직리와 남양리를 만들면서 남산(南山)이 되고 또 남쪽의 한 지맥(支脈)은 근덕면의 임봉산(笠峯山) 줄기와 나란히 달려 오분리 해안을 감싸고 오십천 하구에서 멈춘다. 한편 솔모산 줄기는 서북쪽에 굴기(屈起)하여 북삼면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동남쪽으로 완만하게 뻗어 내려 오다가 오십천 하구 북쪽 기슭에 이르러 우뚝 솟았는데, 곧 봉황산(鳳凰山)과 성

죽서루를 노래한 시는 속종과 정조의 시를 비롯하여 500 수가 넘는다. 국왕은 화공들이 그린 죽서루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으나, 대부분의 시들은 직접 다녀와서 지은 시(詩)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죽서루에는 죽서루 8경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차운하여 시를 남겼다고 『세종실록지리지』삼척도호부조에 전한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죽장고사(竹藏古寺) : 대나무 숲 속의 오래된 절
 암강청담(岩控淸潭) : 바위로 둘러싸인 맑은 못
 의산촌사(依山村舍) : 산기슭에 의지한 시골집
 와수목교(臥水木橋) : 강에 걸쳐있는 나무다리
 우배목동(牛背牧童) : 소 타고 가는 목동
 농두엽부(隴頭饑婦) : 밭머리에 밥나르는 아낙네
 임류수어(臨流數魚) : 물가에서 고기 세기
 격장호승(隔牆呼僧) : 담너머 스님 부르기

시(詩) 한 수이지만 시를 구성하는 내용에는 죽서루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자산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죽서루 시에 실려있는 주요 소재는 삼척 옛 지명, 죽서루 명칭과 형태, 죽서루 공간 배치와 명승인 이유, 죽서루에 신선이 머무르는 곳임을 표현, 죽서루에서 즐긴 유희, 죽서루에서 바라 본 생산 활동, 삼척의 인물, 삼척 민속·유적 등이다.

삼척 옛 지명인 실직, 진주를 죽서루 시에 소개한 사례가 매우 많다. 이를 통해 삼척을 옛 실직의 터라고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척도호부 관아 건물 중 일부인 객사를 진주관이라 하였는데, 이와

북리의 갈야산(葛夜山)이 가장 높다.

본 면에서 가장 긴 하천인 오십천(五十川)은 소달면 유령(楡嶺) 아래에서 발원하여 미로면과 본 면의 마평·도경·오사·건지·자지·원당리를 거쳐 현 군 청사 즉 진주관(眞珠觀) 서쪽 옆과 관동의 제일명구(第一名區)인 죽서루 석벽 아래에 이르러 소를 이루는데 항주(杭州) 서호(西湖)의 형상과 흡사하다.

관련하여 진주관, 진주 등을 소개한 사례 또한 많다.

죽서루 명칭과 관련하여 고려시대의 시에 죽서루, 서루 등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한 이유는 죽서루 동쪽 방향을 중심으로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나무 숲에 대한 소개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시에도 다수 등장한다. 이를 통해 죽서루가 지닌 공간 구성 상의 특징은 오십천이 구배져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절벽과 대나무 숲임을 알 수 있다.

관동제일루로 여겨지는 죽서루를 명승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한 공간 구성 요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나무 숲을 들 수 있다. 대나무 숲을 유지하기 위해 부사들이 관리하였음을 각종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척도호부의 객사인 진주관·응벽헌이 죽서루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벽에 비유되는 시가 전하는 오십천 절벽, 그리고, 동정호에 비유되는 오십천 아래의 검푸른 물 등이 신선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여겨지게 하였다.

그리고 죽서루 아래 구배져서 흐르는 오십천의 중간에 형성된 모래섬과 백사장, 남산과 성남 지역 경관, 그리고 대나무 숲 사이에 있었던 관음사 등이 신선이 노니는 최고의 공간으로서의 죽서루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죽서루 외곽에 있는 동해(東海)와 두타산, 그리고 오십천 발원지인 태백산 또한 죽서루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와 함께 죽서루에서 올려다 보는 은하수, 달, 북두칠성 등과 함께 누정에서 느끼는 바람 또한 최고 명승으로서의 죽서루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죽서루에 신선이 머무르는 곳임을 표현한 시 또한 매우 많다. 죽서루 내에 ‘해선유희지소’라 쓴 편액이 걸려있고, 각종 시에 ‘삼신산’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죽서루는 내륙과 해안지역을 두루두루 섭렵하는 신선이 머무르는 장소임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죽서루는 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놀이를 즐긴 장소였음이 각종 시에 표현되어 있다. 죽서루에서 주로 즐긴 놀이는 음주와 가무, 활쏘기, 낙화(落火)³⁴⁾, 시(詩) 짓기, 뱃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음을 표현하였다.

34) 낙화(落火) 즉, 줄불놀이를 하였다. 줄불놀이는 공중에 길게 걸어놓은 줄에 숯가루를 넣은 봉지를 주렁주렁 매단 뒤 점화하면, 불꽃이 튀면서 떨어지는 장관을 즐기는 놀이. 경

죽서루에서 바라 본 생산 활동을 시로 표현한 죽서루 시도 있다. 이와 함께 이승휴, 심동로, 허목 등 삼척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시로 표현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오금잠, 추석, 중앙절 등 각종 민속과 함께 노동에 있는 목조 이안사 부모 묘, 흥서대, 허목의 글씨가 새겨진 동해비 등 이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죽서루 시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³⁵⁾

(2) 죽서루 시(詩)와 연계된 그림, 그리고 편액

조선시대에 죽서루를 그린 그림들이 다수 있다. 정선을 비롯하여 김홍도, 강세황, 허필, 엄치욱 등과 함께 작자를 알 수 없는 그림들도 다수 있다. 이를 통해 죽서루, 연근당, 응벽헌, 진주관 등의 건물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있으며, 죽서루 절벽 아래에 배를 띄워 놓고 뱃놀이를 하였던 당시의 경관을 잘 보여준다.

죽서루에서 절벽을 내려가 뱃놀이를 하였던 모습은 실제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서루 정면에는 쇠줄이나 튼튼한 밧줄이 걸쳐 있었기에 패인 흔적들이 남은 기둥들이 있다. 이를 통해 죽서루를 찾은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 뱃놀이를 즐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서액(書額) 중 '제일계정(第一溪亭)'은 현종 3년(1662년) 부사 허목이 쓴 것이고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는 숙종 37년(1711년) 부사 이성조가 썼으며,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는 현종 3년(1837년) 부사 이규현이 쓴 것이다. 이 밖에 숙종, 정조, 율곡 이이 선생 등 많은 명사들의 시액이 걸려 있다.

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서 전승되었고, 지금은 하회마을과 진동리에서만 전해져 온다. 하회마을의 줄불놀이는 원래 음력 7월 기망(既望, 16일)에 벌어졌지만, 지금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9월 말 ~ 10월 초)에 벌어지며, 진동의 줄불놀이는 사월 초파일에 벌어진다. 놀이 장소는 하회의 경우 마을 앞을 휘감아 도는 꽃내[花川] 일대이고, 진동의 경우 태봉천 문화마당이다.

이와 같이 소수 지역에서 전승되는 줄불놀이를 조선시대에 삼척에서 설행하였다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35) 지면이 한정되어 죽서루 시(詩)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만 소개하였다. 위의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분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죽서루 시 소개는 발표 현장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다.

죽서루 내에는 많은 현판(懸板)이 전하는데, 이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죽서루 및 그 별호를 쓴 현판, 시를 현 현판, 기문을 쓴 현판,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중수(重修)와 관련한 기문(記文)을 쓴 현판은 현종 3년[1662]에 부사(府使) 허목(許穆)이 쓴〈죽서루기(竹西樓記)〉, 1921년 4월에 홍양(洪陽) 이학규(李鶴圭)가 쓴〈죽서루중수기(竹西樓重修記)〉, 1947년 7월에 당성인(唐城人) 홍백련(洪百鍊)이 쓴〈죽서루중수기(竹西樓重修記)〉, 1991년 三陟市長(삼척시장)金光容(김광용)이 쓴〈중수기(重修記)〉가 전한다.

그리고 서액(書額) 중 ‘제일계정(第一溪亭)’은 현종 3년(1662) 부사 허목이 쓴 것이고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는 숙종 37년(1711) 부사 이성조가 썼으며,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는 현종 3년(1837) 부사 이규헌이 쓴 것이다. 이 밖에 숙종, 정조, 율곡 이이 선생 등 많은 명사들의 시액이 걸려 있다. 누의 경내에 있었던 건물로는 진주관(眞珠館)·응벽헌(凝碧軒)·연근당(燕謹堂)·서별당(西別堂) 등인데, 두타산의 푸른 숲, 굽이쳐 흐르는 오십천, 기암절벽 등과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다.

다) 죽서루 시(詩)가 지닌 가치

누각은 건물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장소에 더 큰 가치를 두어 주위 환경과 함께 함을 더 중시한다. 즉 누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누마루에 기대어 서서 주변을 조용히 둘러볼 때 느낄 수 있는 경관이 바로 그것이었다. 따라서 누각은 보통 주위의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트인 장소에 세워졌고, 또 누각에 오르는 사람들도 하늘과 땅, 물 그리고 수목과 함께 자연인이 되어 그 풍광의 시원한 경관을 즐기고 나아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을 즐겼다.

이점은 죽서루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죽서루에 오르내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건물 자체의 웅장함이나 역사성보다는 누각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느낄 수 있는 시원한 경관을 즐겼다. 이에 죽서루는 관동 팔경의 하나로 꼽혔고, 특히 관동 팔경을 유람해 본 유람객들에 의해 관동 팔경 가운데 제일경이라는 찬사를 얻을 만큼 아름다운 주위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죽서루를 찾았던 많은 유람객들은 죽서루와 이를 둘러싼 “어떤 경관을 신선이 노니는 곳라고 찬사를 보냈을까?”라는 것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죽서루 시를 통해 당시 삼척지역의 문화 자산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수 많은 시인.문사들이 죽서루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해 놓은 글들을 통해 삼척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죽서루 시가 지닌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게 한 요소는 삼척 옛 지명, 죽서루 명칭과 형태, 죽서루 공간 배치와 명승인 이유, 죽서루에 신선이 머무르는 곳임을 표현, 죽서루에서 즐긴 유희, 죽서루에서 바라 본 생산 활동, 삼척의 인물, 삼척 민속·유적 등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죽서루 시가 지닌 가치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죽서루를 찾았던 시인.문사들은 날아갈 듯한 백척 누각이 자리잡고 있는 푸른 이끼 낀 층암절벽과 그 주위에 높고 낮게 둘러서 있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을 칭찬하였다. 여기다가 누각을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나무들의 우거진 숲, 무성한 잡초와 그 꽃들, 비 개인 후 대나무 숲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그리고 숲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등도 죽서루를 찾은 유람객들의 눈맛·코맛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정경들이었다. 특히 죽서루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 밑을 흐르는 오십천을 내려다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은 절벽 위에 우뚝 솟아있어 유람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시원함을 노래하였다. 그들은 죽서루에 오르면 시원하여 여름에도 가을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또 죽서루에 올랐던 시인·문사들은 누각에서 바라보이는 원근의 산경(山景)에 찬사를 보냈다. 죽서루에서 바라보면 멀리 서쪽으로는 두타산. 태백산 등을 품은 높고 험준한 태백준령이 한 폭의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가까이로는 근산.갈야산.봉황산 등이 좌우로 웅기종기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산경(山景)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삼신산(三神山)의 선계(仙界)를 정원으로 끌어안은 듯하여 유람객들에게 한층 더 시원한 눈맛을 더해주었다. 특히 유람객들은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에 서린 검푸른 기운과 그윽하고 어둑하게 보이는 산골짜기 풍경을 크게 칭찬하였다. 여기다가 저녁이면 저 멀리 산봉

우리에 걸려 있는 조각달도 죽서루 풍경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하나의 요소였다.

또 유람객들은 오십 굽이나 굽이쳐 흘러 온 오십천이 죽서루 밑 절벽에 부딪혀 만들어 놓은 맑고 깨끗한 응벽담(凝碧潭)을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물 속을 헤엄치며 노니 물고기들을 헤아렸고, 수면에 드리운 구름과 달 그림자를 감상하였다. 또 물가에 펼쳐져 있는 흰모래와 자갈밭에 수시로 날아드는 백구(白鷗)를 바라보며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고, 석양에 빛나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잠깐 수심에 젖어들기도 하였고, 자갈에 부딪치는 여울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여기다가 달 밝은 밤 응벽담 푸른 물에 배를 띄우면 신선이 된 듯한 기분에 젖어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죽서루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유람객들은 즐겼고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담아 갔던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죽서루에 올랐던 시인·문사들은 난간에 기대어 서면 바라보이는 산들이 빙 둘러싼 들판과 연기 피어오르는 냇가 마을들, 빨래하는 아낙네들, 물위에 놓인 외나무다리 등 누각 주위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정경들까지도 의미를 부여하여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죽서루 부근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면들이 연출하는 풍경을 특별히 죽서루 팔경이라 하였는데, 많은 시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죽서루 팔영(八詠)>이란 시로 남겼으니 그 풍경의 뛰어난 것도 가히 짐작이 간다. 아마 죽서루가 위치한 뛰어난 장소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도 유람객들에게는 눈맛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정경으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이 죽서루 팔경이란 곧 죽장고사(竹藏古寺 : 오래된 절 죽장사).암공청담(巖控淸潭 : 절벽 밑의 푸른 응벽담).의산촌사(依山村舍 : 산비탈의 초가집들).와수목교(臥水木橋 : 물위 놓여있는 나무다리).우배목동(牛背牧童 : 소 타고 가는 목동).농두엽부(隴頭饑婦 : 밭머리 새참 내가는 아낙네).임류수어(臨流數魚 : 물가에서 물고기 헤아리기).隔牆呼僧(격장호승 : 담 너머 스님 부르기) 등을 말한다.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인물인 안축(安軸).이곡(李穀).이달충(李達衷).서거정(徐居正).성현(成俔) 등이 이 죽서루 팔경을 노래한 시 <죽서루 팔영>이 전해오는 것을 보면 벌써 고려 후기에도 죽서루 팔경

의 아름다움이 시인.문사들의 입에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죽서루를 찾았던 수많은 시인.문사들은 누각이 자리잡고 있는 기암절벽과 멀리 혹은 가까이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산경(山景), 누각 밑을 흘러가는 오십천이 만들어 놓은 응벽담, 그리고 누각 주변에 보이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정경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절경의 파노라마를 좋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유람객들은 이러한 죽서루의 절경이 바다와 떨어져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관동팔경 가운데 칠경(七景)은 모두 바닷가에 있거나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죽서루만은 예외로 동쪽으로 산을 넘어야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관동 팔경을 유람하는 자들은 이러한 죽서루만의 색다른 경관에 찬사를 보내고 즐겼다. 아마 유람객들은 죽서루에 올라 그 동안 관동 팔경의 똑같은 바다를 구경하느라 피곤해진 눈이 시원해지고 또 바다 냄새에 찌든 코가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죽서루에 올라 누각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 홀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자들에게는 청한(淸閑)한 분위기에 자신이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고, 노래하며 춤추는 미인을 대동하고 앉아 거문고를 타며 즐기는 풍류객들에게는 흥이 저절로 일어났을 것이다. 또 무더운 여름 날 여럿이 모여 앉아 정치적.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거나 정다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들은 시원한 분위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을 것이고, 시인들은 저절로 우러나는 시상(詩想)에 못 이겨 저마다 시를 읊고 문사(文士)들은 다투어 글을 지었을 것이다. 많은 유람객들이 왜 죽서루를 관동 팔경 가운데 제1경이라 하였던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오십천,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되다.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은 송강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삼척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오십천에서 가장 절경지로 알려진 곳으로 죽서루에서 내려다보는 오십천 경관과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죽서루와 절벽부의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오십천은 삼척시 도계읍 백병산에서 발원하여 삼척시를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가는 동해안에서 가장 긴 감입곡류하천으로 오십천 협곡의 암벽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생성되어 오랜 기간 하천작용으로 퇴적 변형되어 현재의 다양한 석회암지대 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0여 번을 굽이쳐 흐르면서 삼척시를 동서로 양분하기에 이 하천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시킨다. 발원지는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백병산 북서쪽 능선 가까이에 있으며, 고위평탄면 상에 나타나는 고산 습지이다.

오십천 발원지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척주지』(허목, 1662년), 『여지도서』, 『삼척군지』(심의승, 1916년) 등의 기록을 보면, 오십천(五十川)이 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라진 별도의 산인 우보산(牛甫山) 혹은 유현(楡峴)에서 발원(發源)하는데 그 발원지를 구사흘(九沙屹)이



오십천 발원지 표석과 주변 숲 전경

라 하며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미인 폭포]이고, 이 물이 동쪽으로 백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오십천’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부 기록에서는 부에서 물 근원까지 마흔 일곱 번을 건너야 하므로 대충 헤아려서 오십천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보(李篋)의 「유황지기(遊黃池記)」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기운이 태백산에 이르러 동해·서해·남해에 까지 이어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대간 줄기와 함께 태백산 권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오십천을 이루어 동해에 닿으며, 한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는 서해에 닿고, 황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남해에 이르고 있음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십천 지형을 살펴보면 심한 곡류를 하면서 삼척시를 동서로 양분하며, 하구로부터의 거리는 56.33km이다. 이 하곡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시킨다. 오십천 발원지는 고위평탄면 상에 나타나는 고산 습지로서 해발고도는 1,148.3m로 매우 높지만 발원지 주변의 경사는 17.3°로 산지 능선 부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급사면에 비해 완만하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지역을 습지 또는 늪지로 인식하며, 빗물이나 이슬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아 보이며, 지하수 용출에 연속성이 있기에 유로의 발달이 항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죽서루가 위치하는 곳은 오십천의 협곡이 끝나려 하는 부위로 오십천과 주변 협곡, 죽서루 절벽 배후의 카르스트 지형과 길게 늘어진 송림 등이 태백산지와 함께 어우러져 절경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다.

5. 삼척읍성

가. 읍성 소개

읍성이란 지방의 관부(官府)와 민거(民居)를 둘러싸는 성을 말한다. 읍(邑)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성으로 둘러싸인 취락을 의미하였으나, 그 가운데 종묘와 왕궁이 있는 도성(都城)과 구별하였다. 중국에서는 읍성이 이미 청동기시대에 축조되어서 국가의 기원이 읍제국가(邑制國家)에서 출발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언제쯤 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고대에 수도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만들어졌던 읍성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주요 지방도시에 읍성이 축조되었고, 고려 말기까지는 규모가 작은 토축(土築)의 읍성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들 고려시대의 읍성들은 조선왕조에 이어졌으며, 차츰 석축(石築)으로 고쳐지거나 호구(戶口)의 증가에 의해서 넓게 고쳐 쌓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세종 때부터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바다가 가까운 지역의 읍성들이 새로 축조되거나 개축되었다. 이때에는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벽의 높이를 높이면서 웅성(甕城 : 문의 양쪽에 쌓아 문을 공격하는 적을 방비하는 것)과 치성(雉城 : 성벽의 바깥에 네모꼴로 튀어나오게 벽을 쌓아 성벽에 바짝 다가선 적병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공격하게 하는 시설).해자(壕字 : 성벽의 둘레에 도랑을 판 것)를 시설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감독하였다.

또, 지방의 수령들에게는 근무기간 중에 지켜야 할 근무지침으로 성을 보수하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또한, 읍성을 쌓고 나서 5년 이내에 무너지면 죄를 삼고, 견고히 쌓으면 상을 준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읍성들은 조선왕조의 마지막까지 존속되었으나, 1910년 일본에 의하여 읍성 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들이 헐렸다. 현존하는 읍성으로는 정조 때 축조된 화성(華城)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동래읍성·해미읍성·비인읍성·남포읍성·홍주성·보령읍성·남원읍성·고창읍성(일명 모양성)·흥덕읍성·낙안읍성·진도읍성·경주읍성·진주읍성(일명 축석성)·연양읍성·거제읍성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읍성은 내륙지방에는 비교적 큰 고을에만 있었고, 해안 근처

의 고을에는 거의 모두가 있었다. 읍성은 부(府)·목(牧)·군(郡)·현의 행정 구역단위의 등급에 따라 그 크기도 차이가 있었다. 일정하지는 않으나 이런 차이는 주민의 수효와 관계되었으며, 큰 것은 3,000척(尺) 이상, 중간규모는 1,500~3,000척, 작은 것은 1,000척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현 남부지역에 69개소, 《동국여지승람》에는 95개소, 《동국문헌비고》에는 104개소의 읍성이 기록되어 있다.

나. 삼척 읍성의 축성 시기와 변천

삼척 읍성은 삼척시 성내동의 시내 중심가를 둘러싼 구릉지로서 자연 지형을 따라 곡선으로 쌓은 평산성이다. 서쪽 절벽 위에 죽서루가 오십천가에 있고, 남쪽은 평지이나 북·동쪽은 비교적 높은 구릉지로 천주교회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정종 2년(947)에 쌓았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고, 우왕 12년에 이곳 민호 검 지군사로 왔던 南閭이둘레 1470척(절벽은 제외), 높이 4척의 규모로 토성을 축조하였다. 《世宗實錄》地理誌에는 ‘邑土城’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둘레가 540보라고 하였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삼면이 石築이며 둘레는 2,054척, 높이는 4척인데, 서쪽은 절벽으로 길이가 403척이다’라고 하고 있다.

조선 성종 20년(1489) 부사 조달생이 증축했고, 중종 5년(1510) 부사 김윤중이 관동 장정을 동원하여 석성으로 고쳐 쌓았는데, 그 삼면의 길이는 2,054척이고 서쪽 죽서루의 절벽 지역의 431척은 자연의 호참(濠塹)을 이용하였다. 중종 10년(1515) 황희의 4대손인 관찰사 황병헌이 무너진 것을 개수하였으며, 명종 10년(1555) 부사 김희삼이 민가 20여호를 철거시키고 우물을 판고, 선조 25년(1592)에 부사 김위가 동·서문에 성을 더 쌓고, 회를 첨가하여 개축하였다.

현재 읍성지는 오래 전 거의 대부분 훼손되어 없어졌으나, 성내동 97번지 부근인 북쪽에 10m 정도의 기초 부분에 1-2단의 석축 일부가 남아 있으며, 남서쪽에는 높이 1-1.8m의 성벽이 166m 정도 남아 있었으나 근래에는 모두 없어졌다. 석축부가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은 성내동 17번지 일대로서 높이는 3단으로 1.8m이고, 이 부분은 길이 100cm, 두께 30cm 내외의 속재를 2-3cm 씩 퇴물림하면서 쌓았으며, 내탁으로 축성한 흔적이 관찰되었다.

6. 목조와 삼척, 그리고 준경묘·영경묘, 재실(齎室) 그리고 능찰 천은사

국가사적 제524호

준경묘 :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영경묘 :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조선왕조를 탄생시킨 전주 이씨 가문의 정통성과 왕조 개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시한 지역은 3곳이다. 전주 이씨 시조묘를 모신 전주,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목조 이안사의 부모 묘인 준경묘와 영경묘가 있는 삼척, 그리고 함경도 의주와 덕원이다.

이중 삼척은 태조 이성계의 실묘로서는 가장 오래된 곳으로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함경도 용주리에서 여진족의 벼슬을 지냈다는 사실을 들어 태조 이성계를 여진족의 후예라 여기고, 조선왕조 또한 여진족이 지배한 국가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일본 학자들의 여진족 500년 설을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조선은 개항을 전후하여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조선 왕조는 이를 극복하여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조선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준경묘, 영경묘를 수축하였던 것이다. 즉, 위치 논쟁으로 인해 본격적인 수축을 미루어왔던 목조 부모의 묘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전주의 조경단, 경기전의 중수와 함께 고종황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개항 이후 조선왕조의 유지와 국가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름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여 국가 중흥의 계기로 삼으려는 고종 황제의 직접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양묘를 수축할 때 미로면 내미로리에 있는 천은사(당시 흑악사)를 원찰로 하여 이곳에 조포사(능에 속하여 나라 제사에 쓰는 두부를 만드는 절)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양묘와 함께 천은사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왜냐하면 천은사 또한 두타산에서 내려온 맥이 천음산을 거쳐 천은사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두타산으로 이어진 백두대간의 지기(地氣)가 준경묘, 영경묘와 함께 천은사에도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상관 이중하가 당시 흑악사였던 사명(寺名)을 양묘 수축에 대한 공을 인정하여 ‘천은사(天恩寺)’라는 사명(寺名)을 내렸다. 다른 지역에 있는 왕릉에는 항상 원찰(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던 법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준경묘, 영경묘와 함께 천은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풍수지리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준경묘와 영경묘에 대한 이해는 두 묘가 위치한 미로면 활기리와 동산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조선 왕조를 창업한 토대가 된 지세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묘는 신경준의 산경표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민족 활동 무대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정기를 백두산으로부터 받아서 금강산과 오대산을 지나 두타산에 이르러 분리되면서 그 지세를 동쪽으로 틀어 왕조 창업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시적인 관점도 함께 지닐 필요성이 있다.

산경표에 언급된 백두대간의 지맥(地脈)과 『고종실록』, 그리고 어제준경묘비·어제영경묘비에 언급된 풍수상의 특징과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해 이곳 활기리 노동의 준경묘와 하사전리의 영경묘는 조선왕조의 탄생과 관련한 기본 토대가 된 풍수상의 지세(地勢)를 지닌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왕릉들이 모두 백두대간에서 뻗어져 나온 정간이나 정맥의 자락에 위치한데 비해 준경묘와 영경묘는 백두대간의 주 능선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이어진 곳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지기(地氣)의 정도는 다른 왕릉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구거(舊居) 유지(遺地)에 대한 언급 또한 허목의 『척주지』와 『여지도서』에 당시 사람들이 왕기(王氣)가 서린 곳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이미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개없이 언제부터 전해졌는지 언급이 전혀 없는 구전설화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 준경묘·영경묘 연혁

노동과 동산의 묘역에 대한 수호 활동은 이미 조선 전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음은 삼척지역과 관련한 각종 읍지나 지리지에 전하는 양묘 관련 다음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삼척 읍지에 ‘목조(穆祖)의 부친 묘는 부(府) 서쪽 40리인 노동에 있고, 모친 묘는 부 서쪽 30리인 동산에 있다’고 기술된 이래 삼척지역 향리 출신인 김윤직(金允直)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옛 문서에 세종 정묘년[1447 : 세종 29]에 감사 이심(李審)에게 명하여 분묘가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였는데, 옛일을 잘 아는 노인 고봉생(高奉生)·조흥보(曹興保) 등이 목조 부친의 묘는 노동에 있고 모친의 묘는 동산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부터 목조 부모 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그 구체적인 위치가 삼척부의 노동과 동산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위치 확인을 바탕으로 성종 경술년[1490 : 성종 21]에 강원도에 명하여 봉역(封域)을 수축하도록 하였다가 곧 공사를 중지하라 하였고, 명종대에 감사 윤인서(尹仁恕)의 장계(狀啓)로 매년 봉심하기로 하고 수호군 8명을 정하여 토지 1결(結)을 지급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부터 묘역에 대한 수축과 봉심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선조 경진년[1580 : 선조 13]에 감사 정철(鄭澈)의 장계에 따라 수호만 하라 하였고, 경술년[1610 : 광해군 2]에 감사 신식(申湜)에게 명하여 봉심토록 하였으나, 노동의 묘가 황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봉심하는 예가 폐지되었다.

이후 정조 신축년[1781 : 정조 5]에 감사 김희(金熹)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봉심하였다고 한다.

감사(監司) 손순효(孫舜孝)의 양묘기(兩墓記)를 보면 “계유년[1393 : 태조 2]에 어향(御鄉)이라 하여 서대(犀帶)를 군사(郡司)에 하사하였는데, 아름다운 천막을 치고 매년 삼명일(三名日)에 제사를 지내고는 곧 거두어들여 보관하였다”고 하였다. 즉 조선 전기에는 매년 격식을 갖추어 3차례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제의 장소나 절차 등을 알 수는 없다.

□ 준경묘(濬慶墓)

조선을 개창한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의 아버지인 양무장군의 묘가 준경묘인데, 목조가 한 도승(道僧)의 예언대로 백우금관(百牛金棺)으로 양친을 안장(安葬)한 뒤 5대에 이르러 조선(朝鮮)을 창업(創業)하게 되었다는 전설(傳說)이 있다.



준경묘 전경

삼척(三陟)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두 자리의 무덤이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실려 있는데, 고종은 여러 선대 임금들 시기에 일찍이 고쳐 봉토함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여러 차례 살펴 보도록 한 지시도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직접 살피고 온 재상의 보고에도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읍지(邑誌)』

에 역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묘에 대한 의식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며, 이를 수축할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노동의 무덤 이름을 준경묘로 부를 것을 명함으로서 현재까지 이와 같이 불리워지고 있다.

광무 3년(1899년) 영경묘와 같이 묘소를 수축하여 제각(祭閣)과 비각(碑閣), 재실(齋室)을 세웠다. 준경묘의 풍수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상지관(相地官)이 고종에게 무덤 자리는 범이 엮드려 있는 형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종하는 “좌우의 산줄기는 꼭 끌어안은 형세에서 그 속이 명당자리로 됩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우 백호(右 白虎)가 좌 청룡(左 靑龍)을 감싸는 일반적인 지세(地勢)와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릉에는 제각(祭閣)으로 정자각(丁字閣)이 세워져 있는데, 준경묘와 영경묘에는 일자각(一字閣)이 세워져 있다. 이와 같이 건립된 연유는 현장에 다녀온 신하들이 준경묘 아래가 진뻐이어서 정자각(丁字閣)을

세우기 곤란한데, 수전(水田)과 같은 것은 풍수 보는 관리가 명당이라고 하였으나, 묘 앞에서 진뿔까지의 거리는 몇 걸음도 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정자각을 세운다면 불편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이에 고종이 ‘일(一)’자 모양의 제각(祭閣)을 간단하게 지어서 제사지낼 때 넉넉히 행동할 수 있게 할 것을 명하여 일자각(一字閣)이 세워져 있다.

광무 3년(1899년) 7월 11일에는 의관(議官) 이근명(李根命)을 준경묘 비문 서사관으로, 동년 10월 24일(양력)에는 준경묘 제각의 상량문 제술관으로 신기선, 서사관으로 윤길구를 임명하였다. 또한 비석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돌은 삼척에서 캘 수 있고 돌의 품질이 쓸 만하다고 하여 삼척 군수가 기일에 앞서 돌을 캐내서 다듬어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비문의 주요 내용은 노동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자리에 목조의 능을 만들었는데, 이미 이전 허목과 정철에 의해서 관련 사실이 언급된 바 있고, 이곳이 목조의 외향이어서 부로 승격시키고, 서대를 하사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무덤 자리는 범이 엮드려 있는 형상임을 소개하였으며, 고종대에 준경묘를 수축하는 과정과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준경묘 전경과 제례

비석은 비각 내에 세워져 있는데, 형태는 개석(蓋石)이 팔작지붕 형태인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이고, 방형(方形)의 비좌에 비신(碑身)을 세웠다.

이곳은 전주 이씨의 실묘로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묘로서, 매년 4월 20일에 전주 이씨 문중 주관으로 제례를 올리고 있다.

□ 영경묘(永慶墓)

삼척의 노동과 동산에 있는 두 자리의 무덤이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실려 있다. 고종은 여러 선대 임금들 시기에 일찍이 고쳐 봉토함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여러 차례 살펴보도록 한 지시도 하였다. 고종은 직접 살피고 온 재상의 보고에도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읍지(邑誌)』에 역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묘에 대한



영경묘 전경

의식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며, 이를 수축할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동산의 무덤 이름을 영경묘로 부를 것을 명함으로 현재에 으레 된다.

그리고 동산의 무덤 자리는 산위에 정해져 있으므로 축대 아래에 정자각을 세울 만한 자리가 없어 산 아래에 준경묘와 마찬가지로 일자각(一字閣)의 제각(祭閣)을 세우게 되었다.



영경묘 제례

광무 3년(1899년) 7월 11일에 학부대신 민병석을 영경묘 비문 서사관으로, 영경묘 제각의 상량문 제술관으로 김학진, 서사관으로 윤상연을 제의하여 임명하였다. 또한 비석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돌은 삼척에서 캘 수 있고 돌의 품질이 쓸만하다고 하여 삼척 군수가 기일에 앞서 돌을 캐내서 다듬어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비석은 비각 내에 세워져 있는데, 형태는 개석(蓋石)이 팔작지붕 형태인 팔작옥개석이고, 비좌는 방형(方形)의 지대석 위에 방형의 비좌를 만들어 비신(碑身)을 세웠다.

준경묘·영경묘와 능침 천은사 지세를 지도에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준경묘·영경묘와 능침 천은사 지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준경묘·영경묘를 비롯하여 능침수호사 찰인 천은사의 산형(山形)은 모두 백두대간 줄기 중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두타산에 솟구친 기운이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로 내룡(來龍)이 힘이 있고, 혈당(穴堂)이 깊숙하고 조용하며, 좌우가 견고하게 둘러싸여 국세(局勢)가 웅장하고 뛰어나다.

즉, 위의 지형도를 보면 이와 같은 기운이 두타산에서 끊어짐이 없이 준경묘·영경묘와 천은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준경묘·영경묘 재실(齋室)

재실(齋室)은 왕릉의 수호 관리를 담당하던 참봉(參奉)³⁶⁾이 상주하던 곳으로 제향에 쓸 향(香)을 보관하고, 제기(祭器)를 간수(看守)하며, 제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곳이다. 재실은 흥례가 끝난 후 산릉을 지키는 참봉이 머물고 재계(齋戒)하는 공간과, 산릉에서 이루어지는 길례(吉禮)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례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향대청, 집사청, 전사청, 제기고가 있는데 그 기능은 다음 [표 1]과 같다.³⁷⁾

[표 1] 재실 구성요소별 기능

건물명	기 능
향대청	향(香), 축문을 보관, 준비하는 곳, 헌관들의 대기 장소, 국장시 지석봉안, 헌관방 있음, 안향청(安香廳)이라고도 함
재실	예를 행하기 전에 재계하는 공간, 국장 이후 능참봉이 거처하는 곳, 어재실(御齋室) 혹은 참봉청(參奉廳)이라고도 함
집사청	행례를 집행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
전사청	제물을 숙설 하는 곳
제기고	제기를 보관하던 곳
부속공간	부엌(공수간), 방앗간, 마구 등

재실은 모든 왕릉에 설치하였는데, 재실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와 크기는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중하가 작성한 『삼척양묘지』에 실린 다음 내용은 1899년 양묘를 봉축하면서 재실을 건립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재사(齋舍)를 건립하였음을 보여준다.

36) 왕은 왕릉의 막대한 재산관리를 위해 종9품인 능참봉(陵參奉)을 파견하여 왕릉을 관리하게 하였다.

37) 이상훈, 「조선 왕릉의 건축물과 조영물」, 2013.

‘성상(聖上) 경진년[1880 : 고종 17] 연간에 … 선예 참봉 이과영(李果英)이 종친부(宗親府)의 관문(關文)을 받아와서는 묘 아래에 사는 여러 종인들과 더불어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분형(墳形)을 고쳐쌓고 또 노동(蘆洞)의 묘 아래에다 소옥(小屋)을 건립하여 재사(齋舍)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가(朝家)³⁸⁾에서 모르는 일이었다.’

즉, 현재 재실이 위치한 곳에 1899년 준경묘·영경묘를 수축하면서 재실을 지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지역 종인들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재사를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무 3년(1899) 준경묘와 영경묘를 수축하고 재실을 건립하였다. 재실(齋室)은 매년 4월 20일 전주 이씨 문중에서 양묘(兩墓)에 제향을 봉행할 때 제수(祭需)를 준비하고, 종친들이 모여 회합을 가지는 장소이다.

그 공간 구성을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12칸 규모의 재실, 2칸 규모의 제기고가 있었으며, 다양한 쓰임새를 지녔을 10칸 규모의 행각, 그리고 전사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사청의 규모를 알 수 없는데, 제물을 숙설 하는 곳이 전사청이므로 행각 내에 전사청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준경묘 영경묘 제향에 참반하기 위해 모인 종친들과 재실 전경(2009년)

38) 조정(朝廷)을 말한다.

현재 재실은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위치하며, 목조로 건물을 지었으며, 지붕은 기와를 이은 홑처마이고, 중앙의 재실은 16.24평, 대문을 포함한 행각 등 부속 건물은 24.89평 규모로 지어져 있으며, 재실 주위에는 양묘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소나무 묘목을 기르는 모판이 설치되어 있다.

재실 내 건물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재실은 입구인 솥을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行閣 16칸이 이어져 있으며, 마당중앙 뒷부분에 재실·제기고로 이용되는 팔작지붕 형태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재실 건물의 중앙은 관마루라 불리우는 대청마루가 있는데, 왼쪽 벽 위에 태조 어진, 오른쪽 벽 위에 축함을 모셔두었다고 한다.³⁹⁾ 그리고 마루 중앙 오른쪽 벽에 이중하가 쓴 <濬慶永慶兩墓齋室創建記>를 게판하였다. 관마루 좌측은 참봉 집무실이고, 오른쪽 방 2칸은 참봉 생활 공간이었는데, 이를 관방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참봉 집무실 옆에 마루로 마감한 공간이 있는데, 이곳이 제기고이다. 현재 2칸 규모로 유지되어 있으며, 제향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 등을 보관하고 있다.



준경묘 영경묘 재실 내 <준경영경양묘재실창건기(濬慶永慶兩墓齋室創建記)>

행각을 살펴보면 입구 기준으로 솥을대문 오른쪽에 방이 2칸 있고 그 옆에 부엌이 있는데, 매년 이 공간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이에 이 공간은 전사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사청 옆에 마주 보는 형태의 창고가 있는데, 현재 위쪽 창고는 매년 4월 19일 밤에 양묘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준비한 제물을 제기에 담아 한지로 봉한 후 준경묘와 영경묘에 진설할 제물

39) 어진은 분실하여 다시 봉안하였으며, 축함 또한 벽에 매달아 놓지 않고, 현재 관방에 보관하고 있다.

‘생명의 숲’이 선정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숲’ 대상을 받은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양묘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는 일명 황장목으로 건축적 측면과 수목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은 국왕이 기거하는 곳으로 국가를 상징하며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건축되었는데, 고종대에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준경묘와 영경묘가 있는 삼척지역의 황장목을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국보 제1호 숭례문 복원(광화문 복원 포함)에 준경묘 주변의 황장목 20본이 벌채되어 한국 소나무의 대표로 사용된 사례를 통해 그 가치를 잘 알 수 있다.⁴¹⁾

이와 같은 황장목 조성과 관련하여 1899년 준경묘·영경묘 수축을 마친 이후 이의 관리를 위해 내린 절목인 <양묘수호절목(兩墓守護節目)>중 5번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한식(寒食) 전과 입동(立冬) 전에 재관(齋官)이 수호군을 인솔하고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로부터 동구(洞口)에 이르기까지 식목(植木)한다.

즉, 양묘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관리를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였기에 현재와 같은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조성·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능찰로서의 천은사

조선초기에 능침사는 능묘 안이나 능묘 근처에 위치해 있으면서 능 주인의 명복을 비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찰을 의미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능침사의 진전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대신 ‘조포사(造泡寺)’라 불리며 조선후기에 왕실 원당을 지칭하는 말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능침사의 추천(推薦) 기능이 약화되고 대신 제수 공급 및 승려들의 노동력 공급이라는 역할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용어로 볼 수 있다.

41) 삼척시, 「삼척 준경묘·영경묘(三陟 潘慶墓·永慶墓) 國家指定文化財(史蹟) 指定申請書」, 2012.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 있는 천은사는 인근의 준경묘와 영경묘를 수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축 후 조포사로 지정되어 제수를 준비하는 등 능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 조선왕실의 능원묘(陵園墓)와 조포사(造泡寺)를 조사하여 정리한 『묘전궁릉원묘조포사조(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에는 대부분 능(陵)이나 원(園)이인데, 묘(墓)로는 유일하게 준경묘·영경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준경묘와 영경묘가 사실상 왕릉의 격으로 볼 수 있다는 당시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준경·영경묘는 삼척군 미로면 활기리에 있고, 조포사는 천은사이고 삼척군 미로면 내미로리에 있으며, 유형은 능사, 조포사, 속사 중 조포사에 속한다고 하였다.

둘째, 1899년 11월 4일에 흑악사(黑嶽寺 ; 현재의 천은사)에 내려준 ‘완문(完文)’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이 준경묘와 영경묘를 수봉(修封)한 이후의 여러 가지 받들어 수호하는 예절은 오로지 능(陵)과 원(園)의 예에 따라 한다는 것에 대한 성상의 하교를 삼가 받들었다. 지금 일을 처음 시작하는 초기에, 무릇 규정이라는 것을 본도와 본군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해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 제왕들의 조상 능침(陵寢)을 지키지 않겠는가.

제사에 쓸 두부는 흑악사⁴²⁾에서 만드는 것으로 정하였으니, 지금 이후부터 본 군의 관용(官用) 이하 각 청(廳)의 잡역(雜役)은 비록 노끈 하나 미투리 한 켄레일지라도 다시는 본사(本寺)를 침범하여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종전의 자질구레한 오류(誤謬)들도 모두 혁파하여 사승(寺僧)들로 하여금 두 묘소에 대한 임무를 거행함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완문(完文)을 만들어 내어주니 영구히 이에 의거하여 상고할 것.

42) 현 삼척시 미로면 두타산에 있는 천은사(天恩寺)의 옛 이름이다.

위에서 소개한 완문(完文)을 통해 당시 흑악사를 능찰로 정하여 각종 부역과 세금을 감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준경묘와 영경묘를 수축한 이후 이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호절목(守護節目)〉에 흑악사를 조포사로 하여 삼척군의 잡역 일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위의 3가지 자료를 보면 천은사는 법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준경묘와 영경묘의 수축 이후 1899년에 능침수호사찰로 지정되었으며,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수(祭需)를 준비하는 조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다.



준경묘·영경묘 제례에서 올린 두부



영경묘 제수(祭需) 진설과 두부

그리고 조포사(造泡寺)란 표면적으로 두부[泡]를 만드는 절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왕릉의 능찰로서 왕릉 수호와 향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 사찰을 이른다. 두부는 왕실 제사에서 반드시 올려야할 제수로써,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제수와는 달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에 능찰에 대한 명칭을 특별히 ‘두부를 만드는 절’이란 의미를 지닌 ‘조포사’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부 제조와 관련하여 천은사 내에는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큰 맷돌이 있다.

이와 같이 두부를 만들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찰뿐만 아니라 천은사 입구에 있는 식당의 음식 메뉴에도 영향을 끼쳐 두부를 전문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식당이 있다.

□ 준경묘·영경묘 청명제

조선왕릉 제향은 승하한 날에 기신제(忌辰祭)를 올리는 반면 준경묘영경묘청명제는 고종 때에 청명절기에 올리도록 제도화한 절향제(節享祭)이다.

1899년(광무3년) 이중하가 임금께 올린 「삼척양묘지」에 의하면 1880년(고종17)연간에 선예(璿裔) 진사 이종묵(李宗默)이 묘 아래에 사는 종인(宗人)들과 상의하고는 돈 60냥을 내놓아 동네에서 나무를 심어 매년 10월에 사사로이 시제를 지냈다.

1899년에 이르러 고종황제가 영을 내려 양묘를 수축하고 준경·영경이란 묘호를 내려 국릉으로 추봉한 후 「수호절목」에 청명제를 올리도록 규정한 것이 오늘날 준경묘영경묘청명제의 기원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온 제의를 삼척지역 종친들은 1946년 4월 20일 준경묘영경묘청명제를 위해 대동계(大同契)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1957년 12월 재실에서 삼척 분원 창립 총회를 열어 숙담 분원장이 취임하여 1981년 준경묘영경묘봉향회에서 양묘 제향을 주관할 때까지 인근 지역 종친들의 찬조로 매년 청명에 제향을 모시고, 수호 활동을 하였다. 1981년부터는 봉향회에서 주관하면서 제향일을 4월 20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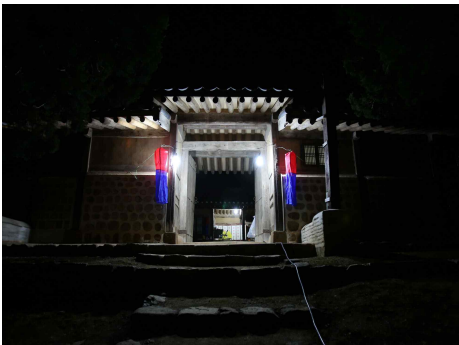
전승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향에 쓸 향과 축문은 왕이 하사하는데, 매년 청명 20일전에 수봉관이 수복을 거느리고 향과 축문을 담을 궤와 보자기를 가지고 한양에 올라간다. 향과 축문을 공경스럽게 받아서 재실로 가져와서 향장에 봉안한다.

양묘의 축문 서식은, 준경묘는 ‘선조고고려장군존령(先祖考高麗將軍尊靈)’으로, 영경묘는 ‘선조비이씨존령(先祖妣李氏尊靈)’라고 쓰여있다. 제향 순서는 ‘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재위자 모두가 네 번 절한다. → 전사관이 반과면을 올리고, 묘사가 탕을 올린다. → 제관이 손을 씻고 정해진 위치에 나아간다. → 헌관이 제주를 따르는 것을 살펴본다. → 신을 모시기 위하여 향을 세 번 피운다. → 초헌관이 첫 번째 잔을 신위전에 올리는 의식으로 삼상향과 헌작을 하며 축문을 읽는다. →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 아헌관이 두 번째 잔을 신위 전에 올린다. → 종헌관이 세 번째 잔을 신위 전에

올린다. →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으로 모두 네 번 절한다. → 대축이 서문으로 들어가 시저를 거두어 시접기에 넣은 다음 모든 뚜껑을 덮는다. → 제례에 쓰인 축문을 태운다. → 제향을 모두 마침 → 묘사가 수복과 함께 제상의 제찬을 거둔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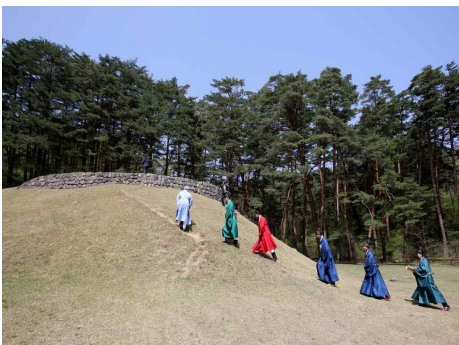
조선을 개창한 태조 이성계 조상의 실묘로서 남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묘에서 왕실 청명제를 지낸다는 것은 청명제를 지내는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다른 왕릉에서의 청명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표성을 띤 제향이다.



준경묘 영경묘 청명제사 전날 청사초롱을 건 재실 대문



준경묘 영경묘 청명제사 전날 밤 재실에 모셔 둔 향과 축



준경묘 능상 봉심을 위해 오르는 관찰사와 수봉관



준경묘 제향에서 제관들이 사배하는 장면

□ 준경묘·영경묘와 관련한 구비전승

마을에서 회자되는 풍수 관련 전승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우금관의 전설이 있다. 이안사(李安社) 즉 목조(穆租)가 부친상을 당하여 아버지 이양무의 묘지를 구하려고 사방으로 해매다가 노동(盧洞)에 이르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한 도승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루 살펴 인적이 없음을 확인한 뒤 혼자 말로 ‘참 좋구나, 대지(大地)로다.’ 하는 것이다. 이안사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도승은 이처럼 탄성을 올리면서 계속하여 ‘그렇지만 개토제에 소 일백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내야 하고 관을 금으로 만든 것을 써서 장사를 지내야 하겠다. 그러면 5대손 안에 왕자가 출생하여 기울어 가는 이 나라를 제압하고 창업 주가 될 명당이로다.’ 하는 말을 남기고 수 백보를 가더니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

자신의 귀를 의심한 이안사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골몰하였으나 가난한 살림살이에 소 백마리를 어디서 구하며, 금으로 만든 관은 더욱이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었다. 부친의 뒤통자를 명당에 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안사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궁여지책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안사는 소 일백마리는 흰소 한 마리로 대신하고 금관은 귀리 짚이 황금색이니 이것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았다.

마침 처가에 흰 얼룩소가 있었는데, 흰 소를 한자로 쓰면 백우(白牛)이므로 숫자상 일백 백자와 발음이 통하게 되어 백우(百牛)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인과 의논을 하였다. 부인에게는 다른 말을 일체 하지 않고 “내일 밭갈이를 할 터이니 처가의 흰 소를 잠시 빌려 오시오”라고만 하였다. 다음 날 친정에 가서 흰 소를 데리고 부인이 오자 이 소를 노동으로 몰고 가서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잡아서 제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부친을 넣을 관에 썩을 금은 귀리짚으로 대신하였는데, 같은 황금색이므로 금관과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500여 년간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풍수상의 이야기가 전한다. 준경묘 앞을 일자(一字)로 가로 지르는 봉우리가 다섯 개가 있

다. 좌측부터 방위산·근산·안산·대명산·역마산이다.

이 중 근산은 청룡이고 안산은 백호를 형성하고 있으며, 준경묘에서 영경묘로 넘어가는 둔골(등골) 입구 좌측의 산이 방위산인데, 산 아래와 개울이 만나는 곳에 이안사가 거주하였던 터가 있다. 준경묘와 영경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고, 맞은편에 있는 말굴레산 중턱에는 능참봉이 기거하면서 제기를 보관하였던 재실(齎室)이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준경묘를 가로지르는 봉우리가 5개여서 조선왕조가 500여 년간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산두령의 형세가 우백호가 좌청룡을 감싸 안는 형세여야 하는데, 준경묘 앞의 근산과 안산이 서로 마주 보는 형세여서 조선 개창 이후 왕자의 난을 비롯한 형제들간의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⁴³⁾

또한 준경묘는 그 외형적인 풍광이 남근혈이고 영경묘는 풍광이 여체음혈이어서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형상이라고도 한다. 이에 준경묘 아래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 아들을 얻는다는 속설이 전한다.

활기리에 있는 목조의 옛집 자리는 돌담의 자취가 남아 있고 샘물이 있으므로 그곳을 택대(宅垞), 택전(宅田), 택정(宅井)이라 부르다가 이성계가 왕위에 등극 후 예는 왕(王)자를 붙여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김정호의『대동지지』에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활기리는 지명유래상 왕조의 창업을 예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활기리를 처음에는 황기(皇基)라 하여 임금이 태어날 길지로 불렀다.

또한 인근의 말굴레산, 시임마골, 군사가 주둔한 것과 같다는 둔곡(屯谷), 종묘사직을 잇는다는 의미의 직곡(稷谷), 적을 막는다는 뜻의 방위산과 같은 지명 또한 그러한 기상을 반영한 것이다.⁴⁴⁾

43) 조선왕조 500년설, 형제간의 다툼이 많다는 풍수지리상의 일부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고종실록』 등에 실린 풍수지리를 참고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44) 이들 지명은 현재 전하는 지명 유래담이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지명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한다.

7. 척주동해비와 대한평수토찬비 그리고 허목

허목(1595~1682년)은 한양 창선방(彰善坊)에서 현감 교(喬)와 나주 임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나 조선 현종·숙종 대에 활약한 문신이며 학자로서,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문부(文父) 혹은 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혹은 태령로인(台嶺老人)이라 하였다.

허목은 한강(寒岡) 정구(鄭逑)⁴⁵⁾에게 배웠기에 성리설(性理說)에서는 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박학풍(博學風)의 학풍은 남명학파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도교와 불교에도 관심을 보였다.

허목이 삼척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66세 때인 현종 원년(1660) 9월에 삼척 부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삼척부사로 임명된 인사 발령에 허목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이조에서 허목의 관직을 개차(改差)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허목은 조정에서 특별하게 채용한 인물이기에 보통 관리와는 다르고 또 나이는 비록 지났지만 근력이 쇠하지 않았고, 삼척은 번잡한 고을이 아니므로 그대로 부임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고 아뢰었다. 이에 현종이 그대로 임명할 것을 지시하여 결국 허목은 그 해 10월에 삼척 부사로 부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삼척과 인연을 맺게 된 허목은 68세 때인 현종 3년(1662) 8월에 도계진상(到界進上)을 궐봉(闕封)하여 파직되어 삼척 부사를 그만두었다.

비록 허목은 약 2년 동안 삼척 부사로 있었지만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남긴 업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⁶⁾

첫째, 허목은 부임한 다음 날에 향교의 문묘(文廟)를 참배한 후 살펴 본 제기(祭器)가 격식에 맞지 않았기에 향교의 제기를 새로 제작하였다.

둘째, 허목은 현종 2년(1661) 정월에 향약을 실시하였다. 향약을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시켜 실천하도록 하였고, 또 향촌 사회

45) 정구는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으로 부터 학문을 배웠기에 허목은 그의 스승인 정구의 스승인 이황과 조식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46) 배재홍, 「三陟府使 許穆과 《陟州誌》」, 『조선사연구』 9, 조선사연구회, 2000.

에서 토호(土豪)의 무단행위를 규제하여 하층민에 대한 침해를 막음으로써 농민층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하였다.

셋째, 허목은 현종 2년(1661) 정월에 향약 실시와 동시에 삼척에 성행하는 음사를 유교적인 제의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수령 중심의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풍속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사제(里社制)를 실시하였다.

넷째, 허목은 재임 동안 그의 독특한 서체인 고문전으로 쓴 척주 동해비(퇴조비), 진주관과 응벽헌의 대액 등 여러 작품을 남겼다. 동해송을 지어 동해비를 세운 것은 대풍우라는 자연재해로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허목이 삼척부사직에서 물러 난 후 그가 쓴 글은 수난을 당하여 훼손된다.

다섯째, 허목은 삼척 부사로 있는 동안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내 6개의 저수지를 조사하고, 이 중 허물어진 지내(池內).지사(池上).동오리(東五里)저수지 등 3개의 저수지를 다시 수축하였고, 크고 작은 5개의 수로를 정비하였는데, 3개는 옛날부터 있던 수로였고 2개는 허목이 현종 2년(1661)에 새로 개설한 수로였다.

여섯째, 허목은 현종 2년(1661)에 열읍 제사의 단장을 수리하라는 하교에 따라 사직단을 정비하였고, 여단(厲壇)을 이전·신축하는 등 삼척부에서 거행하는 여러 제사용의 제단을 정비하였다.

일곱째, 현종 2년(1661)에 황폐해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서별당을 중수하였고, 같은 해에 무너져 파손된 상태로 있던 경행사를 북정산 서록으로 이전·신축하고, 그 옆에 또 경사재를 건립하는 등 허물어진 각종 건물을 중수하였다.

여덟째, 현종 2년(1661)에 허목은 죽서루 건너 편 황무지에 소나무를 심도록 하여 사직단 아래에 이르기까지 오십천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등 식수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홉째, 허목은 현종 3년(1662)에 삼척 최초의 사찬 읍지인 『척주지』를 편찬하였고, 목조 부모의 묘에 관한 기사인 「노동이묘기(蘆東二墓記)」를 썼으며, 현종 2년(1661)에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유교적인 교화를 위해 효자 5명, 절부 4명, 송라 열녀 등을 치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허목은 삼척 부사로 재임한 약 2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에 삼척사람들이 그를 추모하여 순조 25년(1825)에 경행사에 추배하였다.

□ 척주동해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38호
소재지 : 삼척시 정라동 육향산

현종 원년(1660년)에 허목이 삼척부사로 부임한 당시, 동해에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조수(潮水)가 삼척 시내까지 올라와 여름철 홍수 때에는 강하구(江河口)가 막히고 오십천이 범람하여 농작물은 유실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를 안타까이 생



척주동해비 비각

각한 부사 허목은 1662년 선생의 철학의 극치(極致)와 신비로운 문장으로 비문을 작성하고 웅혼한 필치로 전각(篆刻)하여 비석을 세웠다.

자연도 이 신비로운 문장의 위력과 덕화(德化)에 감동되었는지 그 후 조수의 피해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수를 물리치는 위력을 가진 신비한 비석이라 하여 일명 퇴조비(退潮碑)라 불린다.

이 비석은 당초 정라 만리도(萬里島:지금 큰방파제 끝)에 건립하였는데 48년 뒤인 숙종 34년(1708)에 풍랑으로 비석이 부러져 바다에 잠겼던 것을 동왕 35년 부사 홍만기가 원문을 본떠서 다시 새겼으며, 동왕 36년 삼척부

사 박내정이 죽판도 동쪽에 다시 건립하였다가 1969년 12월 6일 현재의 위치인 육향산 산정에 이건하였다.

이 비석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척주 동해비는 허목의 학문 세계인 6경 중심의 고학이 응축되어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그 가치를 논할 때는 ① 서체(書體) ② 문장(文章) ③ 내용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척주동해비

첫째, 서체(書體)는 고학(古學)의 영향으로 고체인 전서체를 사용하였는데, “천년 묵은 마른 등나무 같다.” “귀신이 쓴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글자가 구불구불하고 기이하지만 힘이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당시에 중국에서도 한나라 이후 허목의 전서체를 따라 올 자가 없다는 평가를 얻었다. 허목의 전서체는 그만큼 뛰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해비는 조선후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배롭게 여겨 탁본을 구하려고 하였다.

둘째, 문장 역시 고학(古學)의 영향으로 고문(古文)을 사용하였는데, 조선 후기 당시에 이미 “고문에서 제일이다”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만큼 훌륭한 고문임을 알 수 있으나, “글이 몹시 어려워 읽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듣고 있다.

셋째, 내용은 크게 보면 ① 동해를 칭송한 부분, ② 중국 주변의 여러 종족(오랑캐) 소개와 그들의 교화 과정을 설명한 부분, ③ 오랑캐를 교화시킨 옛 성인을 찬양한 부분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척주 동해비의 내용은 허목의 학문 세계인 고학의 내용인 ‘옛 성인의 도’를 칭송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 대한평수토찬비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六香山) 산정 육향정 바로 밑에 우전각(禹篆閣)이라는 비각이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서 있는 전자체(篆字體)의 꼬불꼬불한 글씨가 새겨 있는 큰 비석이 대한평수토찬비이다.

이 비석 역시 그 윗쪽에 서 있는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쓴 당시 삼척 부사 허목(許穆)이 현종 원년(1660년)에 중국에 있다는 형산비(衡山碑)의 대우수전(大禹手篆) 77자 중에서 48자를 선택하여 목판에 새기어 군청에 보관해 왔었는데 240여년 뒤인 광무 8년(1904년) 9월에 칙사(勅使) 종2품 강홍대(康洪大)와 당시 삼척군수 정운석(鄭雲晳) 등이 왕명에 의하여 석각하고 현 위치인 육향산(六香山) 당시 죽관도(竹串島)에 건립하였다.



대한평수토찬비



대한평수토찬비 비각

8. 삼척 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

□ 김동호(金東鎬) - 항일의병 운동

김동호는 강원 삼척(三陟) 사람으로, 1910년대 국내의 대표적 혁명단체였던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회원으로 활약했다. 풍기광복단(豐基光復團)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이 통합하여 1915년에 7월 대구(大邱)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비밀·폭동·암살·명령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군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혁명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만주의 독립군 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함으로써 적시에 폭동으로 독립을 쟁취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에 관한 포고문을 발송했는데, 이때 그는 강원도 지역의 자산가들을 조사하여 포고문을 발송하는 등 강원도지역의 활동을 주관했다. 1918년 대한광복회가 발각될 때 피체된 그는 고초를 치르다가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언도받고 출옥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김성산(金成山) - 항일의병 운동

김성산은 1907년 강원도 삼척(三陟) 일원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이후 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북·강원도 접경지대 소백산(小白山)과 태백산(太白山) 일대에서는 이강년(李康季)·민공호(閔肯鎬)·변학기(邊鶴基)·신돌석(申堧石) 등의 의병부대가 전열을 정비하며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변학기·민공호·정연철(鄭淵綴)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봉화(奉花)와 삼척을 넘나들며 활동하였다.

김성산의진은 변학기의진 및 민공호의진과 협조하여 삼척 일원에서 활동하였다. 김성산은 1907년 8월 대한제국의 군인 특무조장(特務曹長) 민공호의 권유로 의병에 투신해서 휘하에 포군 20~30명을 거느렸다. 그는 삼척군 내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수품을 조달하여 민공호·변학기·이강년 등의

의진에 공급하였다.

김성산은 약 5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소백산 북쪽 황지리(黃池里)에 주둔하였다. 1907년 11월 18일 일본군 14연대 영천파견대(榮川派遣隊) 적사대(赤司隊) 제4중대 천촌철(川村哲) 특무조장(特務曹長)이 이끄는 일본군 토벌대의 공격을 받았다. 김성산은 체포된 뒤 피살, 순국하였고 그 휘하 의병들은 총기 및 군수품을 빼앗기고 정선(旌善) 방면으로 물러났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김용운[金龍雲 ; 이칭 金世卿, 金在河] - 항일운동

김용운은 강원도 삼척(三陟) 사람이다. 1930년 보성전문학교 재학 중 중국 북경으로 망명한 김용운은 북경대학에 다니면서 북경의 항일학생 그룹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무렵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그는 1931년 한위건(韓偉健)의 소개로 북평시반제동맹한인지부(北平市反帝同盟韓人支部)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 기념일을 비롯하여 메이데이, 간도폭동기념일(間島暴動紀念日), 광둥사기사건(廣東沙基事件) 기념일, 반전(反戰) 데이, '한일병합' 기념일, 혁명기념일,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등과 관련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격문을 배포하였다. 또한 그는 '타도 일본제국주의' 등과 같은 격문을 직접 작성하여 대중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던 중 투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는 1931년 11월 귀국하여 학생층 및 노동자, 빈농을 중심으로 반제동맹(反帝同盟)을 조직하는데 힘을 쏟았다. 망명하기 전부터 뜻을 같이하던 동지인 경성의학전문학생 최면용(崔冕鏞), 법학전문학생 홍재선(洪在善) 등과 국내의 운동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운동방략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경기도 경찰부에 발각되어 이들 모두는 1931년 12월 12일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32년 7월 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9. 삼척의 전통사찰 신흥사와 문화유산

운흥사목조아미타불좌상및복장유물(雲興寺木造阿彌陀佛坐像및腹藏遺物) : 강원도 유형문화재 132호

운흥사천룡탱화(雲興寺天龍幀畵) : 강원도 유형문화재 138호

삼척신흥사설선당및심검당(三陟新興寺設禪堂및尋劍堂) : 강원도 문화재자료 108호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332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위치한 신흥사는 입구에 ‘太白山 新興寺’라 쓴 편액을 건 일주문을 지나 불이교를 지나 학소루에 다다른다. 학소루를 지나면 정면에 주불전인 대웅전이 있고, 그 앞 좌우에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심검당과 설선당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기준으로 오른쪽 뒤에는 삼성각이 있고, 왼쪽에는 최근에 지장전을 지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한 지장보살을 모셨다.

이들 건물들은 1830년대, 1870년, 1911년, 1945년 이후, 1977년과 그 이후에 각각 중수·창건한 건물이고, 학소루는 1983년에 신축하였다. 부속 암자로는 청연암이 있다.

신흥사의 금당인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이다. 대웅전 내부는 상단과 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 모신 주불은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고, 그 좌우에 협시불인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모셨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목조 삼존불은 좌상이며, 상호가 사각형이고, 법의는 통견이다. 중앙계주가 있으며, 보살상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단에는 신중을 모셨다. 원래 천룡탱을 모셨는데,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상단의 오른쪽에는 하단이 있으나, 지금은 관세음보살을 모셨다.

대웅전에는 ‘대웅전(大雄殿)’이라 쓴 편액을 나무에 새겨 대웅전 정면 처마 아래에 걸었으며, 정면 4개의 기둥에는 석문의범 대장청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을 나무에 새겨 걸었다.

佛身普遍十方中 (불신보편시방중)

부처님은 우주에 두루 계시니

三世如來一切同 (삼세여래일체동)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다르지 않네

廣大願雲恒不盡 (광대원운항부진)

광대무변한 서원의 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어

汪洋覺海渺難窮 (왕양각해묘난궁)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 헤아릴 수 없네.



삼척 신흥사 대웅전과 정면 기둥에 건 주련 삼척 신흥사 대웅전 내 상단에 모신 불보살

삼성각은 맞배 지붕 형태의 한칸 규모의 건물이다. 내부 상단에는 중앙에 치성광여래, 그 좌측에 산신, 오른쪽에 독성을 탕화 형태로 모셨다.

신흥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누각 형태로 세운 학소루에는 ‘학소루(鶴巢樓)’라 쓴 편액을 학소루 정면 처마 아래에 걸었으며, 정면 4개의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나무에 새겨 걸었다.

達摩何事蹈江來 (달마하사도강래)

달마는 무슨 일로 강을 밟고 왔는가.

東土山野春草綠 (동토산야춘초록)

동토의 산과 들이 봄빛에 푸르기 때문이다.

世尊因何도率來 (세존인하도솔래)

세존은 어인 일로 도솔천에서 왔는가.

鹿苑園中百花香 (녹원원중백화향)

녹야원 가운데 백화의 향이 만발하기 때문이다.



삼척 신흥사 지장전 내에 모신 지장보살과 무독귀왕·도명존자

신흥사는 이전에 지흥사地興寺·광운사廣雲寺·운흥사雲興寺로 불렸다.

‘지흥사’라는 사명은 「운흥사 사적雲興寺事蹟」, 『삼척군지』 등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위치는 ‘삼척부 북쪽’ 또는 ‘북삼면 지흥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동해시 지흥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흥사 내 부도와 비석군

신흥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즉, 신흥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공식적인 기록은 1745~176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변사인 방안지도(備邊司印 方眼地圖)」에 ‘신흥사(新興寺)’ 이전의寺名인 ‘운흥사(雲興寺)’란 사명(寺名)이 처음 등장한다. 이후 『여지도서』를 비롯한 각종 관찬·사찬 지리지와 사찰관련 자료집 등에서 빠짐없이 볼 수 있는데, 이들 자료를 통하여 사명(寺名)이 ‘지흥사(地興寺) [池興寺, 智興寺] → 광운사(廣雲寺) → (운흥사)雲興寺 → 신흥사(新興寺)’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신흥사는 위의 사명(寺名)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 하대에 범일국사가 처음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명(寺名)의 변화 과정을 검토한 위 단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해시 지흥동에서 창건하여 사명(寺名)을 ‘지흥사’라 한 이후 ‘광운사(廣雲寺)→운흥사(雲興寺)→신흥사(新興寺)’로 바뀌면서 현재의 근덕면 동막리에서 불사를 일으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민애왕 원년(838년) 범일국사가 창건한 이후 조선 현종 갑인년(1674년) 심검당(尋劍堂) 대웅전(大雄殿)을 중건(重建)하고 이어 불상(佛像) -과

탱화(幀畵: 부처, 보살, 성현들을 그려서 벽에 거는 그림) 등을 조성하였으며 설선당(說禪堂) 미타전 종루(彌陀殿 鍾樓) 등을 중건(重建)하였다. 경종 4년(1724년)에는 청운 보한 화상(靑雲 普閑 和尚)이 화주(化主)가 되어 삼존불(三尊佛)에 금칠을 다시 하였고, 여러 탱화를 만들었다.

영조 46년(1770년) 화재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영조 49년(1773년) 미타전과 응향각을 수선하였다. 순조 30년(1830년) 운흥사의 법당과 여러 요사가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영담화상이 불사를 일으키고, 응하선사가 이 일을 추진하였다. 이 때 부사 이규현[재임 기간 : 헌종 원년(1835년) ~ 헌종 5년(1839년)]은 운흥사에 화재가 나자 돈 200냥과 쌀 30석을 주어 중건하고는 사명(寺名)을 신흥사로 고쳤다.

1977년에는 우재석, 박영진, 이정기, 오덕수, 장두환, 장의환, 정대형 등 재가보살외(在家菩薩外) 보현회원(普賢會員) 내지(乃至) 여러 단월들의 대발원으로 개금불사, 단청불사, 청연암, 심검당, 설선당, 성영각, 누각 등 각 법당 요사를 손질하여 고친 후 이를 기념하는 신흥사 사적 및 중수비를 건립하였으며, 1983년에는 학소루를 고쳐서 다시 지었다.

신흥사 내에서 보호하는 유물 ·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흥사 설선당



신흥사 심검당

신흥사 소장 문화재로는 설선당(說禪堂)과 심검당(尋劍堂)이 있다. 설선당은 1674년, 심검당 1771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하는데, 심검당은 일명 진영각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대웅전 안에는 조선 후기의 삼존불과 6점의 탱화가 봉안되어 있었다. 탱화 5점은 건륭 연간(1736-1795)의 것이고, 1점은

철종 12년(1861년)에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심검당에는 10점의 진영(眞影)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탕화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대부분 보관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755년에 조성된 운흥사(雲興寺) 천룡탱화(天龍幀畵), 1861년 월정사에서 조성하여 신흥사에 봉안하였던 신흥사 아미타후불탱화, 1875년 조성하여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한 아미타후불탱화, 조선후기에 제작된 신중도 등이 전한다.

그리고 1871년에 건립한 화운당대사 부도 외 부도 3기가 있으며, 화운당대사비(1871년)와 영담대사비(1860년)가 있다.

10. 삼척의 효자비, 열녀비, 효부비

(1) 효(孝)와 효열비(孝烈碑)

부모를 극진하게 잘 섬기는 아들을 효자라고 한다. 가계(家系)의 연속이 중요시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는, 넓게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좁게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흔히 부자관계(父子關係)로 표현되는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각기 독립적인 인격자임을 상호간에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예속과 종속에 따른 상하관계였다. 부자관계를 지배하는 행위 규범은 효(孝) 또는 효도(孝道)로 집약될 수 있다.

성리학을 국가 운영을 위한 통치 이념으로 하였던 조선은 충과 효를 강조하여 국가와 가정 내 질서 유지와 결속을 다지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충과 효가 충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교·4부 학당·성균관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유교 윤리 교육, 『주자가례』, 『삼강행실도』 등의 의례서를 대대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충·효·열의 행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녀노소와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旌表)하였다.

삼척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원당동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읍면 지역에서 효자비나 열녀비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총 33곳에 효자비·열녀비·효열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삼척지역의 효자(孝子)·열녀(烈女)·효부(孝婦)

삼척지역에서 효자·열녀·효부로 정려되어 비석이나 효자문의 형태로 남아있는 사례 33건과 『여지도서』, 『조선지지자료』에 나타난 정려 사례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삼척지역에서 충(忠)과 효(孝)를 바탕으로 한 유교 문화의 전개 양상과 그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지역 효자 사례 21건 중 부모에게 평소에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봉양하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는 단지[斷指 ;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이는 것] 또는 상분[嘗糞 ; 병든 부모님의 대변 맛을 보아 병세를 살피는 것], 시약[施藥 ;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특별한 약을 구하여 드리는 것], 득어[得漁 ;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구하기 어려운 잉어 등의 물고기를 구하여 드리는 것], 득육[得肉 ;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구하기 어려운 사슴 등의 고기를 구하여 드리는 것]하였으며, 부모가 돌아가시면 여묘를 3년 내지 6년, 9년간 유형이 14건(약 6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묘살이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평소에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봉양하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는 단지(斷指) 또는 상분(嘗糞), 시약(施藥), 득어(得漁), 득육(得肉)한 유형이 5건(23.8%)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경상도 사례 유형과 비교해 보면 삼척지역 효자 사례 유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효자 사례 유형과 그 빈도가 지역의 여건과 정치·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효행을 하여 정려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의 정책에 의해 지역의 관찰사나 수령, 또는 암행어사가 그 공적을 올려 조정에서 칙명 교지나 왕의 특명으로 정려되거나, 지역의 유생들이 효행을 선양하기 위해 연명으로 조정에 정려를 건의하여 정표되기도 한다. 일부 사례지만 집안의 아들이나 이웃에서 덕행을 널리 알려 정려된 사례도 있다.

셋째, 삼척지역에서 고종과 순종대에 효자로 정려된 사례가 전체 21건 중 11건으로 약 50%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건 중에서도 순종대는 1건이며 고종대에 효자로 정려된 사람이 10명이었다. 이는 고종 즉위 이후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대내외적인 정치 경제적 변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를 지키기 위해 유교 중심의 지배 질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국적으로 효행이 높은 사람들을 집중적

으로 추천 받아서 이들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자를 정리하는 전통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서 전직 관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성공회에서 각 지역의 유림이나 향교로부터 효자를 추천받아 찬양문을 내려주어 정려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삼척지역에서 효자로 정려된 집안에 각종 포상을 하였다는 기록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지도서』에는 효자 최련에게 정려하면서 복호(復戶 : 조세나 요역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었던 것)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교수 김겸(金謙)도 정려하면서 복호(復戶)하였다. 이 지역에서 효자로 정려되어 효자비가 세워진 현장의 비석이나 기문을 분석하여 본 결과 관직을 하사 받은 사례는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세나 요역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었으며, 일부 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삼척지역에서 보이는 열녀·효부 행적 12건을 유형별로 4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이들 4가지 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녀와 효부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열녀와 효부는 시부모나 남편에게 평소에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봉양하며, 시부모나 남편이 병이 들었을 때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마시게 하며, 대변을 맛 보아 병세를 살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대령하여 드시게 하고,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남편이 죽은 후 시간적으로 언제든 자결을 한 사례는 50%였으며, 계속 살아서 시부모 공양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례 또한 50%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조·철종·고종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언제든 자결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1890년대에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생명을 보전하여 집안을 잘 이끄는 것을 점차 중요시하는 경향으로의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열녀·효부로 정려(旌閭)되는 과정은 효자로 정려된 사례와 유사하다. 그리고 삼척지역에서 열녀·효부로 정려된 후 받은 혜택은 이의 대상자가 여성이어서 관직을 추증(追贈)받은 사례가 전혀 없으며, 다만 요역 부

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정려에서 정려에 따른 혜택 부여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당시 혜택이 거의 없었다기 보다는 당시 상황이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일곱째, 삼척지역에서 효녀로 정려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도 효녀의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비해 효자는 21건, 열녀로 정려된 사례가 6건이고, 효부로 정려된 사례도 6건이다. 이와 함께 삼척지역에서 효자·열녀·효부 정려와 관련있는 지역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재지 사족이나 면(面)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려와 관련한 비석이 주로 세워진 지역이 근덕면 교가리·월덕읍 이천리 등 넓은 농경지가 있는 곳으로 풍부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서 재지 사족들이 이곳을 토대로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효자로 정려된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경상도 지역의 예를 들면 효녀·효부에 비해 열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 이에 비해 삼척 지역은 효부 6건, 열녀 6건으로 그 비율이 같다. 이는 이 지역에서 유교 윤리에 대한 인식이 경상도 지역에 비해 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편의 죽음에 뒤따라 죽기 보다는 살아서 시부모와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정려 관련 사례들이 대부분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질서와 여성의 지위 변화,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정려와 관련한 비석이 세워진 곳은 대부분 마을 입구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목이다. 이에 현재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들 비석이 세워진 곳을 자세히 보면 산업화 이전에 주로 이용하였던 옛 길을 찾아낼 수 있다.

(3) 삼척시 미로지역 효자(孝子)·열녀(烈女)·효부(孝婦) 사례

■ 박완헌 효자문(朴完憲 孝子門)

[소재지]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연 대] 고종 30년(1893)

[크 기] 비는 없음

[해 설]

박완헌은 본관이 밀양이고, 자는 인서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셨고, 돌아가신 후 3년간 시묘하였다. 고종 30년(1893)에 정려(旌閭)되었으며,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증직되었다.



박완헌 효자문(전경)

이 지역의 다른 예와는 달리 정려(旌閭)된 사실을 민가(民家)의 정면 3칸으로 된 솟을대문을 효자문으로 하여, 효자문 중앙의 처마 아래에 게판(揭板)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록은 상량문의 형태로 솟을대문 대들보에 기재하였는데, 현재의 효자문은 1984년에 중수한 것이다.

그리고 효자문과 상량문의 ‘승정원(承政院)’과 ‘승지(承旨)’에 ‘승(丞)’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승(承)’으로 고쳐야 마땅하다.

■ 김성성 효자비(金聖聲 孝子碑)

[소재지]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연 대] 광무 6년(1902) 정려됨

[크 기] 113(89) × 31 × 9.3

[서 자] 신재후(辛在厚)

[해 설]

김성성의 본관은 삼척이고, 이름은 일명 성국(聖國)으로 미로에 살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남양 홍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어머니가 병중에 있으면서 산짐승의 고기를 원하므로 어렵게 구하여 드렸더니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한 이후에도 정성을 다하여 매달 성묘하였다고 한다. 이 때 호랑이가 늘 옆에서 지켜주었다고 한다.

광무 6년(1902)에 정려(旌閭)되었다. 원래 고천에서 내미로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의 서낭목 옆에 효자비가 있었는데, 도로 공사를 하면서 고갯마루 옆의 산기슭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석은 개석(蓋石)이 지붕 형태인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이고, 문양이 없는 방형(方形)의 비신 받침에 비를 세웠다.



김성성 효자비

■ 정경부인 강릉김씨 효열비(貞敬夫人 江陵金氏 孝烈碑)

[소재지]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연 대] 융희 3년(1909)

[크 기] 72 × 34.5~31.5 × 10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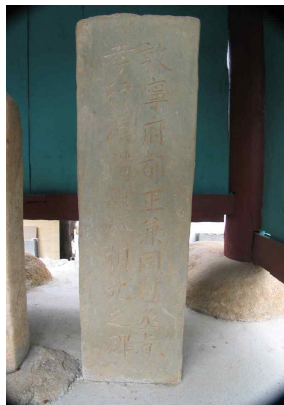
이 비석은 증병조참판(贈兵曹參判) 조호수(趙鎬洙)의 처인 강릉김씨의 효열비이다. 시부모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남편이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소생토록 하였다. 남편이 먼저 죽은 후 시부모가 돌아가지자 남편을 대신하여 상을 치르고 3년간 여묘살이를 하였다. 이에 지방의 사람들이 조정에 건의하여 고종 29년(1892) 정려(旌閭)되었으며, 증손 덕윤이 1909년에 비각을 세웠다.

비는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과 비좌만으로 만들었는데, 비의 윗 부분은 둥글게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이고, 자연석을 이용하여 비신 받침을 만들어 비를 세웠다.

비각에는 ‘효열문(孝烈門)’이라 쓴 편액을 정면에 걸어 두었으며, 비각 내에는 강릉 김씨의 효열비와 함께 증손자 조상원(趙相元)의 효행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효열문 비각 전경
(강릉김씨, 조상원 효행비)



조상원 효행비



정경부인강릉김씨효열비

■ 조상원 효행비(趙相元 孝行碑)

[소재지]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연 대] 1926년

[크 기] 88 × 29.5~26 × 6~5.5

[서 자] 송록대부예조판서규장각직제학 안동 김종한

[해 설]

돈녕부도정겸부승지(敦寧府都正兼副承旨)를 역임한 조상원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셨으며, 증조모인 강릉 김씨 정려각(旌閭閣)에 매달 초하루 촛불을 밝히는 등 효행이 남달랐다. 이에 1926년 여름 모성공회(慕聖公會)의 김종한(金宗漢)이 이를 후세에 전하여 잊지 않게 하기위한 글을 내려 주어 효행비를 세우게 되었다.

비각에는 ‘효열문(孝烈門)’이라 쓴 편액을 정면에 걸어 두었으며, 비각 내에는 조상원(趙相元)의 효행비와 함께 증조모(曾祖母)인 강릉 김씨의 효열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비는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과 비좌만으로 만들었는데, 비의 윗부분은 완만하지만 둥글게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이나, 비신 받침은 현재 시멘트로 덮혀져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비각 내 정면에는 ‘효열양전지문(孝烈兩全之門)’이라 쓴 편액과 1909년 최진현이 증조모(曾祖母)인 강릉 김씨의 효행을 쓴 <효부열녀강릉김씨정려기(孝婦烈女江陵金氏旌閭記)>가 걸려 있어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문의 전면에 기재된 글 중 ‘부승지(副丞旨)’에 ‘승(丞)’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승(承)’으로 고쳐야 마땅하다.

■ 경주석씨 효열비(慶州昔氏 孝烈碑)

[소재지]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연 대] 1933년

[크 기] 116 × 39.5~39 × 11.5

[撰 者] 김종찬(金宗漢)

[書 者] 완산인, 최진백(完山人崔鎭栢)

[해 설]

열부 경주석씨(烈婦 慶州昔氏)는 아버지가 승지 석세호(承旨 昔世鎬)이고, 남편은 삼척인 김형근(金炯根)이다. 남편이 병을 얻자 정성을 다해 모셨으며, 남편이 죽은 후 애통해 하며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자녀들도 반듯하게 교육하여 후대의 귀감이 되므로, 김종찬(金宗漢)이 찬(撰)하고 완산인 최진백(完山人崔鎭栢)이 쓴 ‘효열부경주석씨비명’을 내려주어 후손들이 1933년 찬양문과 함께 비석에 새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석은 개석이 지붕 형태인 팔작옥개석이고, 문양이 없는 방형(方形)의 비신 받침에 비를 세웠다. 다른 효열문과는 달리 비각을 대신하여 효열비 앞에 원형으로 다듬은 돌 기둥위에 사모 옥개석 형태의 돌지붕을 얹은 돌기둥 2개를 좌우에 배치하여 효열문을 상징케 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



경주석씨 효열비

11. 삼척지역 철도의 역사 : 도계역 급수탑, 도계 스위치백과 근 대등록문화재인 하고사리역

1937년 일본전력재단은 미쓰비시, 미쓰이 등과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4,500만원의 투자로 조선무연탄주식회사로부터 광업권을 양수하여 삼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삼척탄광과 삼척철도, 북삼화학 등을 경영하였다.

지형적 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특별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삼척탄전 개발이 시작된다, 이들은 삼척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을 연료로 하여 삼척화력 발전소를 세우고, 그 전기를 이용하여 비료공장인 석회질소 북삼화학과 양양철광석을 이용한 북평제철소, 오노다 시멘트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척철도를 설립하여 도계-묵호 구간에 철도를 설치하여 석탄을 수송하게 된다.

□ 도계역 급수탑

등록문화재 제46호

소재지 : 삼척시 도계읍 전두남2길 58 (전두리)

이 과정에서 설치된 철로를 오가는 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40년에 설치된 전형적인 급수탑으로, 강원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다.

높이가 8m로 다른 급수탑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은 철로면 보다 4미터가 높은 곳에 설치하여 지형을 고려하여 적정 수압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 높이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돔 형태의 지붕에는 사방에 반원형 도머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도계역 급수탑



도계역 급수탑 내부

□ 영동선 스위치백

위치 : 삼척시 도계읍 흥전~나한정역 구간

영동선 구간 중 삼척 흥전~나한정역 구간은 국내 유일한 스위치백 구간 시스템의 열차통과 지역이다. 스위치백은 산간지방의 급구배를 완화시켜 열차운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선로가 Z자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기울기를 좀 더 낮추는 것이다.

통리역과 도계역 사이에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고도 차이가 435M되고, 열차의 스위치백 구간은 나한정-흥전역 사이 1.5KM 구간이다. 이 구간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열차운전의 한계구배인 30/1000으로 철길을 건설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역진행시키는데 이를 스위치백 방식이라고 한다.

열차의 진행방향이 잠시 바뀌는 스위치백 구간은 나한정역과 흥전역 사이의 1.5km 구간. 흥전역(해발 349m)은 나한정역(해발 315m) 역사에서 고개를 한참이나 뒤로 제쳐야 올라다 볼 수 있을 만큼 험준한 지형이다. 영동선⁴⁷⁾은 영주역에서 시작 ‘봉화-통리(태백)-도계(삼척)-동해-강릉’으로 연결되는 산업철도이다

스위치백을 만든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스위치백이 있는 흥전역

47) 철암선(철암~목호 간 60.5km), 영암선(영주~철암 간 86.4km), 황지본선(통리~심포리 간 8.5km), 동해북부선(목호~강릉 간 44.6km)을 통합하여 1963년 5월 17일 영동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1939.5.20일 신호장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1940년 삼척탄전 개발을 위해 최초로 건설된 구간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1939년에서 1940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한정은 심포리역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심포리 역사(驛舍)가 있는 마을 뒷 편에 돈각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의 뜰 앞에서 건너다보이는 산세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나한"("아라한"-소승불교에서 최고 경지에 이른 수행자)과 흡사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해발 680m의 통리역에서 통리재(해발 820m)를 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마치 뱀이 꼬아리를 틀 듯 철로가 휘돌아 나간다. 워낙 험준한 지형을 지나는 열차는 서행에 서행을 거듭한다. 디젤기관차가 등장하기 전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60년대만 해도 이 구간은 "인클라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행되었었다.

태백에서 도계 방향으로 통리재를 넘어 내려가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통리 협곡의 장엄한 풍경이다.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 통리협곡은 그 생성과정이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흡사하다. 단층운동과 강물의 활발한 침식작용으로 인해 V자형의 협곡을 이룬 곳이다. 협곡의 암벽 높이는 어림잡아 300여m. 협곡 상류에는 낙차가 30m 정도인 미인폭포가 있다. 폭포의 높이가 오십장이라 하여 오십장폭포라 부르기도 하는데 폭포에는 두 개의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이곳에 미녀가 살았는데, 워낙 눈이 높아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수년 간 자신의 미에 도취되어 몇 십 년을 지내다 꿈에 그리던 미남 청년을 만났으나, 청혼을 거절 당한 뒤 무심코 물 속을 들여다본 미녀는 늙은 자기모습에 상심하여 치마를 뒤집어쓰고 폭포에서 뛰어내렸다. 또 하나의 전설은 이 근처에 살던 한 미녀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 재가하였으나 남편이 또 다시 사망하여 현실을 비관한 미인은 폭포에서 투신 자살하였다고 전해온다. 그 미인을 건져 묻은 곳이 미인묘라 하여 현재 근처에 남아있다.

통리 협곡은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접근이 위험할 정도로 험준하다. 미인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고개정상 검문소에서 왼쪽으로 427번 지방도로를

따른다. 1km 정도 가면 왼쪽으로 소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가면 미인폭포를 볼 수 있다. 통리역 동쪽의 백병산(1,259.3m)에서 발원한 오십천은 길이가 52km나 되는 하천으로 북동쪽으로 흘러 도계읍을 지나 삼척에서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통리재 정상을 지나 도계읍 방향 첫번째 휴게소에 서면 통리협곡과 오십천을 따라 흘러내린 산능선 사이로 푸른 동해바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 관련 역

- 1) 심포리역 : 태백에서 38번 국도를 타고 통리재를 넘어 현재 개설 중인 심포리~미인폭포 간 도로 이용, 철길 옆 주차 철로를 따라 1km 가량 도보 이동.
- 2) 흥전역 : 통리재 정상에서 도계 방향으로 영동선 굴다리를 지나 첫번째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 주차한 뒤 도보로 이동.
- 3) 나한정역 : 통리재 정상에서 도계 방향으로 영동선 첫 번째 굴다리 전 우측에 주차, 도보로 약 500m 거리에 위치.



□ 하고사리역

등록문화재 제336호 (2007.07.03. 지정)

소재지 : 강원 삼척시 도계읍 소달길 12-52 (고사리)

하고사리역은 1동, 1층 규모로 건축면적 36㎡이다. 하고사리역은 영동선로의 역사로 1966년 건립되고, 1967년 9월 1일 간이역 영업을 실시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역이다. 구조는 목구조에 지붕은 맞배형태이고 벽체는 비닐판벽이다. 대합실의 내부가 고미반자로 되어있어 다른 간이역과 차별되며, 등록된 간이역중 팔당역과 함께 규모가 가장 작은 역중 하나이다.

역은 현재 폐역이 되었다.



삼척 구 하고사리역사 전경

Ⅲ. 삼척지역의 민속과 전통지식

1. 삼척기줄다리기 바로알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5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

삼척지역의 무형문화 유산은 삼척이라는 지역적·역사적 독창성을 지니며, 오늘의 생활 속에서 창출되는 무형문화 유산으로서, 지정 문화재는 삼척 기줄다리기가 있다. 이외에도 강원도 민속 경연대회에 참가한 종목을 비롯하여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이 있었고, 현재까지 그 전통이 유지 전승되는 종목 또한 많다.

농업을 위주로 한 전통사회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바탕에 두고 시간의 변화에 주목하여 자연력의 변화나 생명력의 전환점에 의미를 부여하여 명절을 배치하였다. 대부분의 축제와 놀이도 이 때 행해지는데, 이 중 어른놀이는 대부분 대동놀이의 형태를 띤다. 편싸움 형식의 대동놀이를 겨루는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당기기형’, ‘밀기형’, ‘밀고 당기기형’, ‘먼저 도달하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줄다리기는 ‘당기기형’ 놀이의 대표적인 것이다.

줄다리기는 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한 협동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주민들은 이 놀이를 통하여 동질감과 향토애를 기르게 된다. 그리하여 이 놀이를 치르게 되면 동제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하며, 또 줄다리기를 그 자체에서 오락적인 기쁨을 얻는다. 즉, 자신의 힘을 마음껏 펴면서 그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발산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예전에는 줄다리를 통하여 풍흉을 점치고 풍년을 기원하였으니, 지금의 단순한 오락의 차원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행하여졌으며, 따라서 신앙성까지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삼척 기줄다리기는 암줄과 숫줄로 나뉘어진 쌍줄 형태로서 세부적으로는

지네줄이 아닌 통상 각각의 암줄과 숫줄에 4개의 가지줄을 매어 이에 종줄을 다시 매어 당기는 형태이다.

기줄달리기 편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 편을 가르는데, 오십천(또는 삼척읍성)을 기준으로 부내와 말곡으로 나누어 연행된다. 점풍(占風)과 관련하여 부내(府內)는 해안지방 즉 여성을 상징하고, 말곡(末谷)은 산곡지방 남성을 상징한다. 부내가 이기면 해사(海事)가 풍년이고,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삼척 기줄달리기 중 술비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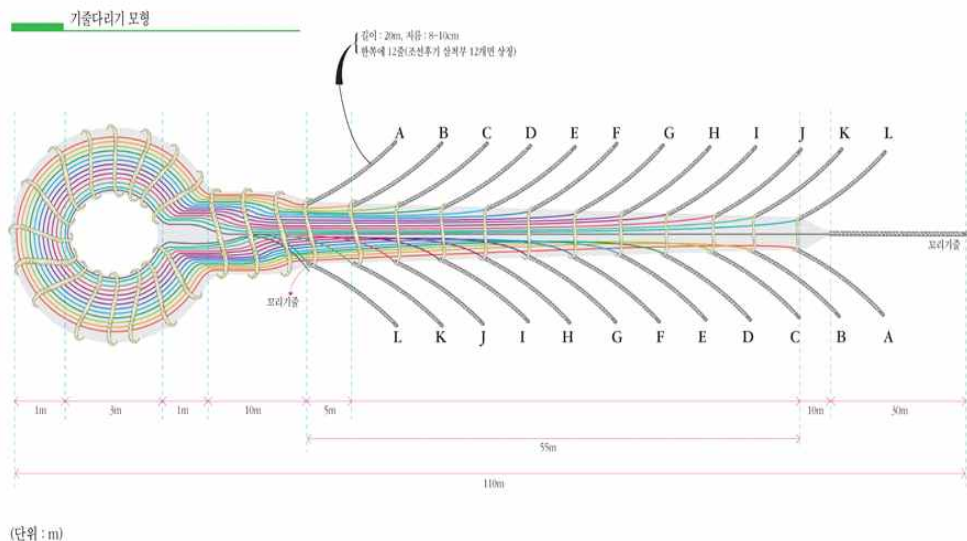
정월 대보름에 행해진 기줄달리기에 대비하여 마을마다 ‘줄’을 제작하는데, 크기는 한뼘 이상이고, 길이는 50발 이상이어서 인력으로 튼튼하고 굵은 줄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기줄달리기 줄을 틀 때 술비통을 이용한다. 술비통을 이용하여 줄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새끼줄이나 침 줄을 구멍을 통하여 세 가닥이 한데 모여 5cm의 줄이 되고, 이 줄을 다시 세 가닥을 한데 모아 틀어서 한 줄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 줄을 틀 때 풍악을 울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작업을 하는데, 이 노래를 술비통 노래라 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놀이를 술비놀이라 한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정월 초부터 마을 내에서 어린이들은 속닥기줄, 청소년들은 중기줄다리기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

삼척 기줄다리기 본행사는 달빛, 광솔불 아래에서 징을 신호로 남녀 불문하고, 인원 제한없이 줄을 당겼는데, 지휘 체계는 마두에 파장이, 중간에 부파장, 뒤에 보통 파장이 배치되어 총파장의 신호에 의해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여 줄다리기를 하였다. 이 때의 지휘 신호는 기를 눕히면, 줄을 바닥에 까는 것이고, 좌우로 흔들면 당기지 않고 힘만 주라는 의미였으며, 동서로 흔들면 기에 맞추어 구호를 외치며 당기라는 의미였다.

서편은 말곡이고, 동편은 부내로서 모래를 발로 파기도 하고, 여자들은 치마에 돌을 담기도 하여 무게를 늘려 줄다리기에 나섰는데, 술을 먹으며 당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3~4시간 흘러 새벽 4~5시경이면 끝났는데, 승부를 내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2007년부터 삼척 정월대보름날 행사때 줄다리기 전국대회를 열어 삼척 기줄다리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삼척기줄다리기를 위한 기줄(암줄) 모형 (김도현)

2. 삼척 노곡면 한두골 용소 기우제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반천리 한두골로 오르다가 왼쪽으로 접어들면 용소가 있는 용수골이 있다. 용소는 용수골이 있는 산 정상에서 7~8부 능선쯤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소는 물이 흐르는 동굴 내부를 이른다. 노곡면에서 날이 계속 가물어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면 노곡면의 해갈(解渴)을 위해 노곡면장을 제관으로 하여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다.

가. 형태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한두골에는 예전에 15여 가구가 살았으나, 화전민이주 정책으로 전부 퇴거하여 지금은 거주하는 가구가 없다. 한두골로 오르다가 용소로 향하는 작은 골짜기를 따라 7~8부 능선까지 오르면 용소가 있다. 용소는 깎아지른 절벽에 동굴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로부터 높이 약 7m 위에 있다. 즉, 용소는 절벽에 가로 약 3m, 세로 약 1.5m 정도의 둥근 타원형 입구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비 약 3m, 수심 약 1m, 직선 길이 10m, 정도에 물이 고여 있어 이 물이 용소 좌측 절벽을 타고 흘러 작은 이끼폭포를 만들었다. 용소 안쪽으로 10m 정도 들어가면 그 아래로 동굴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직접 탐사를 하였던 이들에 따르면 300m 정도 물을 따라 들어가니 3단 폭포가 있고,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동굴은 삼척지역에 많은 석회 동굴이다.

예전에는 이 동굴에 오르기 위해 나무로 사다리를 제작하여 용소 아래 절벽에 거치해두었는데, 지금은 밧줄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용소에서 흘러내린 물은 용소 좌측 절벽을 타고 작은 폭포 형태로 흘러내리는데, 이 폭포의 절벽 면에는 이끼가 많이 있어 이끼 폭포의 형태를 형성하였다.

용소 아래에 마을 주민들이 삼월 삼진날 놀러 오거나 용소 주위에서 산메기를 지내는 예는 있으나, 용소가 있는 바로 아래에는 기우제를 지내기에 이곳에서 산을 메기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나. 역사

가뭄이 들어 나라와 민간에서 비오기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기우제(祈雨祭)라 하는데, 삼척지역의 기우제에 대한 기록은 각종 관찬지리지(官撰地理誌)와 함께 사찬지리지(私撰地理誌)인 허목(許穆)의『척주지(陟州誌)』(1662), 김종언의『척주지』(1848년 이후) 등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기우제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삼척도호부 영역 내에 있는 **두타산사**(頭陀山祠)에서 ‘고을 사람이 봄가을에 제사하며 날씨가 가물면 비를 빈다.’라고 하였으며, 황지(黃池)에는 ‘관(官)에서 제전(祭田)을 두어서 날씨가 가물면 비를 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허목의『척주지』에 따르면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인 우사단(雩祀壇)을 두었다고 하였으며, 토지신과 오곡신을 제사지냈던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각 리(里) 단위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가 있었는데, 덕변상(德蕃上)의 소한연(蘇瀚淵)과 회선대(會仙臺), 장생리의 대전(大田), 용추(龍湫), 건박곡(見朴谷)의 능파대(凌波臺)에서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특히 장생리의 대전 용추는 냇물이 바위의 깊은 구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깊이는 알 수 없고, 날씨가 가물면 여기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외형이 한두골 용소와 같은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는 매우 많으며, 형태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은 전통은 최근까지 전승되어 조선시대에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에서 1980년대까지 기우제를 지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삼척지역에서 비정기적으로 天祭를 지낸 마을은 도계읍 황조리, 도계읍 신리, 도계읍 늑구리, 가곡면 동활리, 가곡면 풍곡리, 원덕읍 기곡리 선의곡, 원덕읍 옥원리, 원덕읍 이천 1리 등이다. 이들 마을에서 天神을 모셔서 천제(天祭)를 지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우(祈雨)를 위함이라는 것이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天祭를 지내는 장소는 예전부터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인 예가 매우 많다.

노곡면 상반천리의 한두골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정통은 위에서 소

개한 삼척지역의 기우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반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기우제를 마지막까지 주재한 분은 김용동(辛未生)이었으며, 매우 오래 전에 시작된 기우제를 1960대 후반까지 지냈다고 한다. 지낸 시기는 가뭄이 들면 주로 음력 5~6월 경에 지냈다고 한다.

다. 내용

3~4번 정도 기우제 지내는 것을 목격하였던 김규혁씨에 따르면 주로 일제 강점기에 지내는 것을 보았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거의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노곡면 내에 ‘용소’라고 불리우는 지명은 여럿 있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곳은 한두골에 있는 용소에서만 지냈다고 하였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면 기우제를 지냈는데, 주로 음력 5~6월에 좋은 날을 받아서 낮에 지냈다고 한다. 재정 지원은 노곡면에서 하였으며, 제수 준비는 상반천리 주민들이 주도하였다. 제관은 노곡면장을 비롯하여 지역 어른들로 임명되었으며, 제관과 함께 마을 사람들 20~30여명이 함께 갔다고 한다. 이 때 여자들은 참가하지 못하고, 남자들만 갔다고 한다.

기우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한두골에서 제수로 올릴 개를 잡아서 개의 머리와 제수를 들고 용소 아래로 가서 제물을 진설한다. 즉, 기우제를 용소 아래에 있는 절벽 밑에서 지낸 후 1~2명이 제수로 바칠 개의 머리를 들고 용소가 있는 절벽 위로 나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용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때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멀리 던진다. 멀리 던지기 위해 3m 정도 되는 막대기 끝에 개머리를 달아 용소 안으로 던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멀리 던져야 비가 빨리 그리고 많이 온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우제를 마친 후 한두골과 용소가 갈라지는 곳에 음식 준비를 위한 솔을 걸어놓고 개 머리를 제외한 부분과 준비한 제수 등을 펼쳐놓고 모여서 음복을 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상반천리에는 70여 가구가 살았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마을에서 구경을 간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기우제를 지낼 때 준비한 제수는 개 한 마리, 메와 나물, 술[막걸리] 등을 간단하게 준비하였다고 한다. 이 때 준비한 개는 헌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

라 神을 화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 머리를 던지면 나쁜 피가 용소를 더럽히기에 이를 씻어내기 위해 용왕이 비를 내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기우제를 지내면 소나기가 올 때도 있었다고 한다.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기우제 공통의 목적은 비를 기원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시도한 방법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를 잡아 개 피를 뿌리거나, 여자들로 하여금 오줌을 누게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나쁜 것을 씻어내기 위해 비를 내린다고 믿는 유형이 있고, 파묘(破墓)를 한 나쁜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 비를 내려줄 것이라 믿는 유형, 사직단 등에서의 기우의례는 농사 관련 신령을 위해 주면 비를 내려 줄 것이라 믿는 유형이다. 이외에도 소를 잡아서 천제를 지내어 비를 기원하는 유형도 있다. 즉, 농촌에서 비가 안 내려 한발(旱魃)의 피해가 극심해지면 삼척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천제단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이를 ‘천제’로 여기는 마을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에서는 1964년까지 부체바위[부처바위] 앞에 있는 마당바위[지금은 도로 개설되어 있음]에서 비가 오지 않아 농업에 큰 지장이 있으면, 황소를 제물로 하여 천제를 지냈다. 마을에서는 ‘기우제’ 라고도 하였으나, 비에 대한 염원을 하늘에 빌었기에 ‘천제’라 한다고 하였다. 기우와 함께 풍농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천제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이 없어진다고 하여 지낸다는 얘기도 전한다.

주로 봄에 날을 받아서 지냈는데, 제물인 소는 동활리 주민들이 가구별로 성의껏 낸 돈으로 마련하였다. 마을 이장이 주관해서 날을 받아 지냈으며, 제관은 생기를 맞추어서 삼헌관을 뽑았다. 마지막 천제의 제관은 ‘마을의 심구장, 순화할아버지, 윤구장님네’ 등이었다고 한다.

천제를 지내기 전날 현장에서 소를 잡은 후 다음 날 새벽에 제사를 지냈다. 이 때 생고기를 제상에 진설하였는데 그 부위는 소머리와 다리이고, 이와 함께 메 1그릇, 채소, 술[막걸리]을 제단에 진설하였다. 진설이 끝나면 삼헌관들이 각각 술을 올리고 절을 한 후 소지를 올렸다. 이 때 개인 소지는 올리지 않고 동네 소지를 올리며 비와 풍농·풍요 등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천제를 지내면 3일 이내에 비가 온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우제 유형 중 상반천리 기우제는 나쁜 것을 씻어내기 위해 비를 내린다고 믿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를 기우제에 사용하는 예는 많은데, 삼척시 가곡면 용소, 원덕읍 이천리 이천폭포 내 용소, 원덕읍 임원리 용굴 등 삼척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살아있는 개를 그대로 바치는 예가 많다. 이에 비해 한두골 용소에서의 기우제는 개의 머리만을 바치므로 다른 지역 사례와 구별된다.



삼척 한두골 용굴 입구



삼척 한두골 용소 아래 계곡



삼척 한두골 용굴에서 내려오는 물

3. 양야산 봉수와 봉할머니당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양야산 봉수가 있는 근덕면 덕산리는 덕봉산(德峯山) 아래에 있으므로 덕산리라 하였다고 한다. 마을 제당은 성황당, 덕봉산에 있는 당지바위와 부소바위, 그리고 기우제를 지냈던 회선대, 양야산에 있는 봉할머니당이 있다. 마을제의는 성황제, 3년에 한 번 실시한 풍어제, 어민들에 의해 행해진 동짓달 고사가 있다.

마을에서 봉화산이라고도 부르는 양야산 정상에는 과거 봉수대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연대가 대부분 무너진 채 원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선주들이 개인적으로 무당을 데리고 치성을 드려 풍어를 기원하거나, 동짓달에 해상에서 사고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어촌계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도가와 무당이 대표로 제를 올리는 제당이다. 지금도 선주 중에서 개인적으로 봉할머니당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봉할머니당은 여성을 상징하고, 덕봉산 옆에 있는 당지 바위는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인식하여, 어업에서의 풍요를 기원할 때 다른 해안 마을처럼 여성을 상징하는 봉할머니당에 가서 풍어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실시하였던 풍어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서낭신에게 고하고 남성을 상징하는 당지 바위에 가서 제를 올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봉할머니당에 가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이 때 봉할머니당에 가는 이유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멸치등을 잡기위해 후리어업을 하였던 어민들 중에서 일부는 남애포 탄봉의 너른 방석(바위)에서 고사를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봉할머니당에 대한 조사 기록은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마을제당 기초 조사 과정에서 덕산 성황당을 조사한 근덕국민학교에 근무하였던 김연옥 선생님의 의해 조사된 기록이 현재 남아 있다.⁴⁸⁾ 이에 의하면 당시 堂 이름은 ‘당재’였으며, 당의 형태는 돌과 바위로서 높이 4m, 폭 10m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양야산 봉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촌계장이나 어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관으로 선출되어祭를 주도하였는데, 주(酒)·육(肉)·과(果)를 어촌 예산(약 3,000원 정도)으로 준비하여 9월 초순경祭를 올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준 덕산이장님은 어업 종사자가 중심이 된 9월 고사가 있었는데, 제(祭)를 올리는 목적이 풍어를 기원하면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순서는 당지 바위에서 먼저祭를 올린 후 봉할머니당에 가서 다시 제(祭)를 올렸다고 하였다. 이는 음력 8월 초순 경에 실시한 풍어제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부분 9월에 해당하여 9월 고사라는 기록과 증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어촌계장님을 하셨던 황일소씨는 봉할머니당에서의 마을 제의는 8월 풍어제와 동짓달 고사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선주들에 의한 치성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위의 기록과 증언들은 8월에 실시한 풍어제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황일소씨가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겨울 난방용으로 숯방울을 주으러 양야산에 올랐는데, 이 때 흐트러진 봉수대에 금줄을 둘러놓은 것을 본적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쳐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금줄을 두르지 않는지만 오래 전부터 이곳이 致祭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봉할머니당은 양야산 봉수가 일부 파괴된 정상으로부터 1.7m 아

4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 1997, 350쪽.

래의 약간 평평한 곳에 돌을 이용한 감실이 만들어져 있다. 감실의 기단부 가로 1.9m, 높이 40cm이고, 감실 내부는 가로 56cm, 세로 38cm로서 2단으로 되어 있다. 약 45년 전에 감실을 구성하는 돌 사이를 시멘트로 마감하여 현재는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 이용하고 있었는데, 초와 술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 이곳에 와서祭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봉할머니당에서의 치제는 크게 어민들에 의한 제사와 개인적인 치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어민들에 의한 치제는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8월 풍어제와 동짓달 고사를 들 수 있고, 개인적인 치제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힐 때 선주들에 의해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8월 풍어제는 어민들이 풍어를 기원하고 해사업의 번창을 위해 지내는 것으로서 성황당과 당지 바위에서 먼저祭를 올린 후 봉할머니당에 가서 제(祭)를 올리며 풍어와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동짓달 배고사는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것으로 배를 가진 선주들이 제비(祭費)를 내어 어민들만 모여 지내는 고사이다. 실시 시기는 동짓달에 좋은 날을 받은 후 도가집을 정하여 제수(祭需)를 마련하여 도가가 복재를 데리고 먼저 서낭당에 고하고, 당지 바위를 거쳐 봉할머니당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⁴⁹⁾ 이 때 제주(祭酒)는 막걸리이며, 제수(祭需) 중 어물은 어민들이 성의대로 가져와서 동지 고사를 올릴 수 있게 한다. 새벽 3시경에 시작하여 날이 셀 때까지 다니며 제를 올려 영혼을 위로하였는데, 제(祭)가 끝난 후 도가집에 선주들이 모여 공동으로 음복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동짓달 배고사는 1970년 대 초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미신을 타파한다는 명분에 의해 없어졌다고 한다.

49) 복재에게 1970년대에 수고비로 약 50,000원 정도를 주었다고 한다.

봉할머니당에서의 개인적인 치제(致祭)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제(祭)를 지내는 이유는 주로 고기가 잘 안 잡히거나, 우환이 있거나,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당시 고기가 안 잡히면 거느린 10여명의 어부들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으므로 선원들의 분위기를 위무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기 위해祭를 성대하게 올렸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선주들이 주로 가서 제를 올렸는데⁵⁰⁾, 옛날에는 선주 대부분이 제를 올렸다고 한다.⁵¹⁾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해사업이 안되면 좋은 날을 받아서 지냈다.⁵²⁾ 이 때 선주가 제물을 준비하여 무당 등을 데리고 가서 제를 올렸다. 제물(祭物)은 성황고사 준비하듯이 많이 준비하였는데, 봉할머니당에서의 致祭와 뱃고사를 위해 각각 제물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고사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복재를 데려가지는 않고, 부부가 함께 올라서 봉할머니께 고사를 지낸 후 뱃고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다.⁵³⁾

덕산리 봉할머니당이 지닌 기능, 의미, 형태 등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해신당이 있는 삼척 해안 마을에서의 당 이름과 제단 및 신체(神體), 특징 등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⁴⁾

50) 선원들이 지계를 지고 제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한다.

51) 현재 어촌계장인 우종술님께 의하면 어민들 중에서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부부만이 배를 타고 어로 활동을 하는 예가 많아서 봉할머니당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였다.

52) 1년에 2~3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53) 현재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배는 대부분 부부만이 타는 소형 어선이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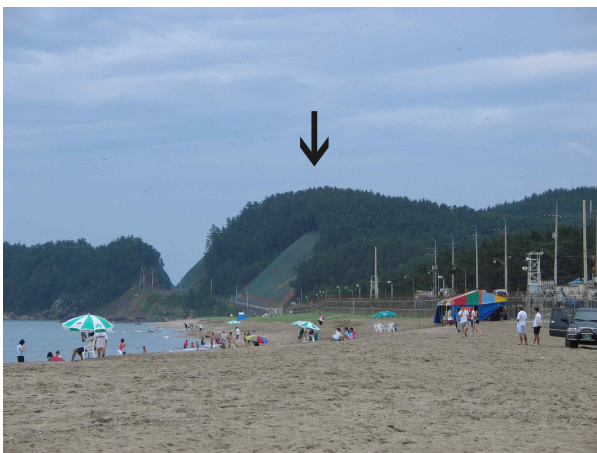
54) 해신당이나 해서낭이 있는 마을은 동해안에 매우 많다. 그러나 동해안 전체의 해서낭에 대한 기초 조사가 미흡하고, 이의 성격 분석 또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범위를 좁혀 삼척 해안 마을의 대표적인 사례만을 소개하여 비교해 보려 한다.

[표] 삼척 주요 해안 마을의 해서낭

위 치	당 이름	제단 및 신체(神體)	비 고
원덕읍 갈남리	해당	소나무	해당 할머니
원덕읍 신남	해신당	향나무	애바위 전설
원덕읍 노곡 2리	댕우 서낭	바위와 향나무	김노숙씨의 조모 혼령이 神이 되었다고 함.
원덕읍 비화리	해신당	높이 2m의 돌제단, 소나무	
원덕읍 임원 1리	고래 서낭	향나무에 돌 제단과 돌담	고씨와 관련
원덕읍 호산리	해성황당	향나무 2그루, 담장	해망산
근덕면 초곡리	해신당	향나무, 담장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해안마을에 있는 해서낭은 어민들이 주로 위하고, 어업에서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덕산리 봉할머니당과 비교하여 그 기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해안 마을의 해서낭은 마을제사에 편입되어 치러지는데, 덕산 봉할머니당에서의 치제(致祭)는 어민들만의 치제(致祭)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그 운영면에서 다른 마을 해서낭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형태 면에서 대부분 해안 마을에서는 향나무를 해서낭의 신체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나무나 바위 등을 제단(祭壇)이나 신체(神體)로 하는 예가 많은데, 덕산리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봉수대가 그 기능을 폐한 후 이를 신체(神體)로 한 봉할머니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특이한 예로 볼 수 있다.⁵⁵⁾

55) 덕산 성황당 내에 용왕신위(龍王神位)가 있어 해사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나, 실제로는 봉할머니당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위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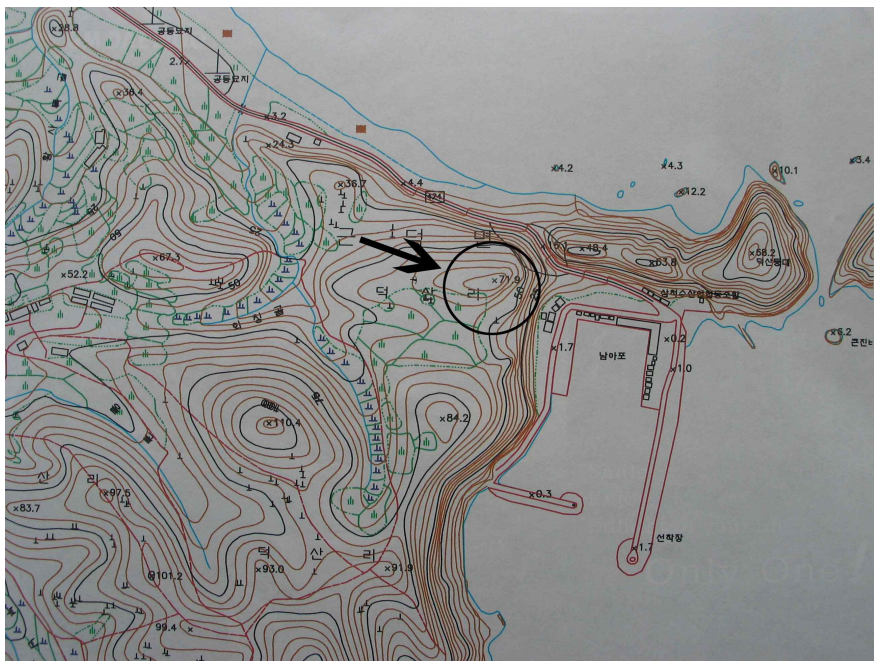
삼척 양야산 봉수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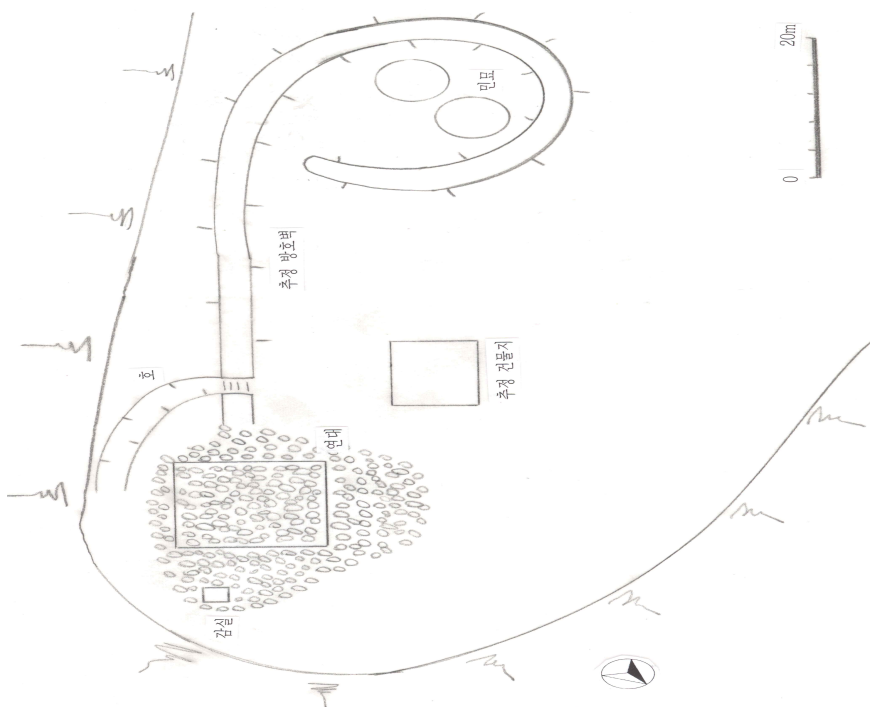
삼척 양야산 봉수 전경



삼척 양야산 봉수 내 감실



삼척 양야산 봉수 위치



삼척 양야산 봉수 배치 도면

4. 삼척지역 민물김 채취 전통 지식

민물김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소한천에 서식하는 조류의 하나로, 구이, 국, 무침, 고명 등으로 조리해 먹던 지역 특산물이다.

가. 관련 기록 및 전승 환경

유전자 분석을 통해 소한천 민물김(*Prasiola*)의 종은 일본에 서식하는 *Prasiola japonica* 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삼척시 초당마을 주민들은 소한천에서 자생하는 김을 ‘민물김’ 또는 ‘물김’이라 하여 식용으로 채취되어 구이, 국, 무침, 고명 등의 부식으로 이용하였다.

1939년 함경남도 문천군 지선리산 물김이 보고되었고, 영월지역에서도 민물김이 자생한다는 것이 알려졌으나, 삼척 소한천 민물김은 1967년 삼척 소재 초등학교 교사들이 초당동굴 보고서를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삼척민물김 연구소가 만들어져 서식지 보호와 양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물김 서식지의 경우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용천수까지 흘러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일 년 내내 13°C 내외의 서늘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약알카리성을 띤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계곡물이 있어야 한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 3리에 소재한 초당동굴에서 약 600m까지 분포하는 민물김이 자라는 것과 관련하여 초당마을에서는 ‘김을 바위에 붙인다’ 또는 ‘김이 바위에 붙는다’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흐르는 계곡 물에 김 포자가 이끼와의 자리 다툼에서 이겨서 바위에 안정적으로 활착되어야 민물김이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물김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은 계곡 물이 바위를 살짝 덮을 정도여야 민물김 생장에 좋다. 그리고 햇볕이 비치는 곳과 물이 폭포처럼 내리치는 곳에서 민물김이 잘 자란다. 그리고 민물김 포자는 거친 바위든 표면이 매

끈한 바위든 상관없이 활착이 된다. 또한 응달진 곳에는 민물김이 잘 자리 지 않는다. 예전에는 소한 계곡 주변의 나무를 화목으로 사용하였기에 자연스레 나무의 가지치기가 잘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자연 보호, 그리고 민물김 연구 센터 내의 구역으로 설정되었기에 나무 가지치기를 안 하여 계곡에 햇볕이 잘 안 들게 되고, 이에 민물김 생장에 나쁜 영향을 주어 민물김 생산의 축소를 가져왔다.

마을 주민들은 ‘물이 좋아야 김 생산이 많다.’고 한다. 여기서 ‘물이 좋다’는 것은 물이 당연히 깨끗한 것을 의미하면서, 적당한 물이 내려와서 바위를 덮고, 흙탕물이 안 내려오면 ‘물이 좋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수온이 약 17도 정도면 민물김 생장에 좋은 수온으로 여긴다.

좋은 여건에서 김이 잘 자란 것을 마을 주민들은 ‘김이 잘 돋았다’고 표현한다.

초당마을에서 민물김이 자생하는 곳은 초당 동굴 아래에서부터 양어장 아래까지의 계곡 내에서 자생하였다. 그러나 빨래를 하여 물이 오염되거나, 응달진 곳에서는 민물김이 잘 돋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민물김이 생장하여야 할 바위가 마른 상태이기에 김포자가 활착할 수 없다. 이에 김이 자랄 수 없다. 비가 오지 않는 한 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마가 오면 바위가 물에 잠기고 물살이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기에 바위에 붙은 이끼를 걷어내어 주기에 민물김 활착이 잘 되어 잘 자라나, 계속 비가 오면 계곡 물이 깊어져서 김을 채취할 수 없다. 그리고 겨울에도 김을 채취할 수는 있으나, 추위에 손이 곱아서 김을 채취하지 않는다.

바다 김과는 달리 민물김 성장이 겨울 날씨와는 무관하며, 마을 주민들이 개인적인 식용 또는 소량의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민물김을 채취하였기에 민물김 자생지에 대한 빨래 금지 등 별도의 금기는 없었다고 한다.

2018년에는 바위에 진흙이 많이 묻었기에 2018년 12월에 바위에 붙어 있는 흙과 이끼 등을 제거하기 위해 호미나 솔로 바위를 긁어주는 바위 청소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청소 덕분에 2019년에는 민물김이 많이 자생하였다고 여기는 주민들도 많다. 그러나 초봄에 이끼가 붙을 수 있기에 7~8월에 바위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주민들도 있다.



민물김이 자생하는 초당 소한천 계곡



민물김이 자생하는 소한천 상류



민물김이 자생하는 전경



민물김 양식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실험 장면

민물김 구이, 김국, 김무침, 김 고명, 김밥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민물김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땡방 3리 초당마을 내 소한천에서 자생하기에 초당마을 주민들이 매년 봄과 가을에 민물김을 채취하였다. 이들은 채취한 민물김을 주로 부식으로 사용하였고, 화상 치료 등 민간요법의 주요 재료로도 이용하였다. 외부 상인들이 민물김을 구매하러 온 1980년대에는 이를 상품화 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에 초당마을 민물김의 채취와 활용 주체는 초당마을 주민들이다. 특히 마을 주민 중 여성들이 전승의 핵심 주체로 볼 수 있다.

나. 민물김 채취

양력으로 봄(4~5월)과 가을(10월)에 채취하는데, 상품으로서의 품질을 지

닌 민물김은 10월 중에 생산된 김이다. 이 중 매년 10월 중에 채취한 김이 가장 좋은데, 물이 많으면 채취를 못한다. 2019년에는 김이 잘 돋았으나, 10월 중에 비가 많이 와서 채취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

김을 채취하기에 좋은 10월에 바위에 돋은 민물김을 손끝으로 잡으면 ‘빠닥빠닥하다’ 또는 ‘쁘드득쁘드득하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때 채취한 민물김은 거무스름한데, 채취한 이후 바구니에 담아도 색깔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채취 시기에 물이 불으면 11월이나 12월에도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채취 시기가 늦어지면, 날씨가 추워서 김을 채취하기에는 고충이 많고, 민물김을 잡으면 물렁물렁하여 미끄러워 잡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너무 늦어지면 김이 녹아 내린다고 한다.

민물김을 이른 봄(4~5월)에 채취하기도 한다. 이 김을 ‘봄김’이라 하는데, 10월에 채취한 민물김과는 달리 채취되어 바구니에 담긴 민물김의 색깔이 갈색을 띠어 좋은 품질의 민물김으로 여기지 않는다. 9월 중에 일찍 자란 민물김을 채취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때 채취된 김 역시 색깔이 갈색을 띠기에 10월에 채취한 김과 구분되어 좋은 품질의 김으로 여기지 않는다.

민물김은 7cm 정도 자라면 채취한다. 채취할 때 뿌리까지 채취하며, 김이 손에 걸리는 정도의 크기여야 채취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채취 가능한 크기의 김을 채취할 때 ‘민물김이 잡힌다’고 표현한다. 즉, 민물김의 크기가 채취할 수준으로 자라서 손에 잘 걸리면 본격적인 민물김 채취 시기로 여긴다.

민물김 채취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을 채취하는 것을 ‘김을 뜯는다’라고 표현한다. 예전에 민물김을 채취하는 방법은 평소에 입는 옷 그대로 맨발로 계곡 물에 들어가서 채취한 민물김을 담은 바구니를 왼손에 들고 손끝으로 바위에 붙어 있는 민물김을 뜯거나 손바닥을 반대로 눕혀서 손가락 사이로 민물김을 잡아서 뜯어내는 형태로 채취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서 채취한다. 맨발이든 장화를 신든 10월 이후 물이 차기에 오랜 시간 동안 채취하기에는 매우 힘들어 하루에 1~2시간 정도 채취한다. 마을 주민들은 민물김 채취 과정에 당면한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처 방법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소한 계곡 내의 민물김이 많지 않고, 이를 상품으로서가 아닌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정도만 채취하기에 방한 대책을 세워 긴 시간 동안 작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물김 채취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민물김을 뜯을 때 ‘손가락으로 민물김을 조물조물 잡아서 획 뜯는다고 한다. 이 때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뜯으며, 방심하면 바구니를 놓쳐서 채취한 민물김을 모두 잃는다고 한다. 동해안 지역에서 자생하는 바위에 붙은 돌김을 손가락이나 전복 껍질로 긁어서 채취하는데 비해 민물김은 손끝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많기에 1달 정도 민물김을 채취하면 손톱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민물김을 뜯을 때 바위가 미끄럽고, 물이 차고, 물살이 세기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하고, 손끝으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뜯고, 채취한 김을 담은 바구니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민물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 자란 민물김을 일단 채취하고 나서, 어린 김은 며칠 더 자란 후 채취한다. 즉, 10월 중 ‘두 번째 채취’라고 하는 표현은 새롭게 김 포자가 바위에 붙어서 자란 것이 아니라 어린 김이 다 자라는 것을 기다렸다가 채취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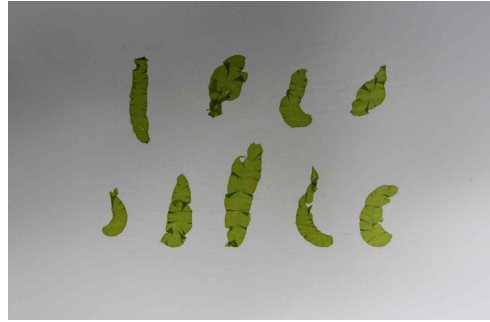
민물김을 채취할 때 이끼와 구분하여 채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을 주민들은 이끼와 김을 멀리서 보아도 구분이 된다고 한다.

민물김을 뜯으러 가서 한 번에 잘 뜯으면, 민물김 100장 정도 붙일 수 있는 양을 뜯었다고 한다.

김을 채취하는 기간 중 김을 채취하는 시간은 해가 돋은 이후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물김을 채취할 때 이끼와 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취할 때 이끼와 민물김은 손으로 잡으면 감각이 다르다고 한다. 민물김은 납작한데 비해, 이끼는 소철처럼 넓적하지 않기에 손가락 감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초당 민물김이 바위에 붙은 전경



채취된 초당 민물김 세부

다. 민물김 채취 후 손질 과정

채취한 민물김을 물에 담궈서 모래나 돌을 가라 앉히고, 민물김과 함께 채취된 벌레나 이끼 등을 골라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마친 후 2~3번 정도 맑은 물에 행구어 깨끗이 한다.

민물김을 말릴 때 민물김을 마지막으로 행구는 물에 적정량의 소금을 넣어 적당하게 짠 소금물에 민물김을 담근 후 이를 말리거나 민물에 그냥 행구어 말리는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은 민물에 행군 민물김을 말리나 일부 가정에서 소금물로 간을 한 민물김을 만들어 적당한 맛을 들인 김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즉, 이미 간이 났 민물김을 말린 후 이를 화롯불에 구워서 먹으면 별도의 간장 등이 없어도 민물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금물로 간을 한 민물김은 보통 민물김보다 마르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에 말리는데 좀 더 신경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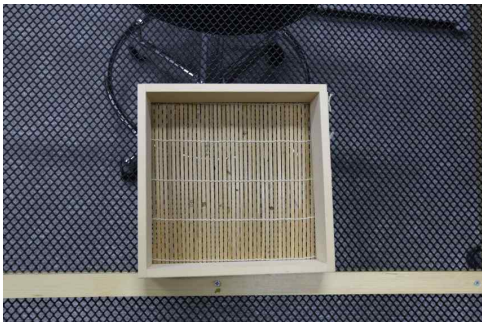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김은 첻바쿠[채]를 얹어서 그 위에 김을 붙여서[민물김을 고르게 펴서 편평하게 편 상태] 두어 물기가 적당하게 뺀 후 이를 장석이나 멍석·부들자리 등에 붙여서 말린다. 이에 초당마을에서 예전에 말린 민물김의 형태는 채의 둥근 모양 형태로 만들어졌다.

민물김은 햇볕이 좋으면, 뒤집어줄 필요도 없이 1~2시간 정도 말리면 다 마른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이곳에 설치된 양어장에 진주 출신 장장이 고향에서 김발을 가져와서 민물김을 이에 붙여서 말리는 장면을 본 후 마을 주민들

도 짚으로 김발을 만들어 민물김을 말리는 전통이 새롭게 형성되어 규격화된 민물김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규격화된 김을 생산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민물김이 혈압을 낮추는데 좋으며, 산모가 애기를 낳은 후 허배 아픈데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외지인이 간헐적으로 이를 찾게 되었고, 1970년대 쯤 외지 상인이 이를 구매하러 와서 상품 가치 높이기 위해 규격화된 민물김 생산을 요구하였기에 바다 김을 붙이는 김발을 도입하여 김 크기에 알맞은 나무 틀을 만들고, 짚으로 김발을 만들어 장방형으로 규격화된 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김을 붙인 김발은 세워서 말리는데, 흐리거나 비가 오면 방 안에서 말린다. 민물김의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민물김은 1~2시간 내에 마른다. 김발에 붙은 김을 저녁 즈음 방안에 두면 아침에 김발에서 민물김을 떼어 내어 보관한다. 이를 통해 민물김은 미역과는 달리 말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운 계곡 물에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초당 민물김 말리는 김발



말린 민물김

라. 민물김 보관과 판매

말린 김은 여러 장을 재어서 무거운 것을 올려서 눌러서 납작해지면 이를 10장 단위로 짚으로 묶어서, 한지 종이에 싸서 껌짝에 넣어 두거나, 위에 놓아두어 보관한다. 물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비닐이 많이 보급된 이후에는 바짝 말린 민물김을 공기가 안 통하게 비닐에 싸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냉장고가 많이 보급된 이후에는 냉

동실에 수 년간 보관하기도 한다.

민물김은 바다 김 크기로 10장 단위로 포장하며, 100장을 1토시라고 한다.

채취한 김은 다음 해에 새롭게 민물김을 채취할 때까지 1년 내내 먹는다. 말린 민물김의 색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은 갈색으로 변하나, 맛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민물김을 물에 풀면 다시 밝은 녹색을 띤 민물김으로 다시 살아난다.

초당마을에서의 민물김 채취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별로 식용을 위해 채취하였다. 이에 근덕 장날에 가서 판매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민물김 소문을 듣고 찾아 온 상인들에게 1970년대부터 소량을 판매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가격은 1980년 즈음에는 10장에 5,000원 정도를 받고 중간 상인에게 넘겼다고 한다.

1980년대에 일본에 민물김을 수출하기 위해 초당 마을을 찾은 상인이 1,000장 정도를 구입하여 간 후, 다음 해에는 규격화된 김 생산을 부탁하였으나, 민물김 흉작으로 인해 일본으로의 민물김 수출은 1년 만에 중단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민물김을 공동으로 생산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채취 구역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채취하였다.

마. 민물김 관련 음식 문화 및 민간요법

초당마을에서 채취한 생김은 별다른 맛이 없으나, 민물김을 구우면 메뚜기를 구워서 먹을 때 느끼는 고소한 냄새와 맛이 난다고 표현된다. 그리고 채취한 시기에 따른 맛의 차이는 없다고 한다.

초당마을에서 민물김은 매우 귀하기에 손님이 오면 특별한 반찬으로 올리거나 집안 어른들을 위한 반찬으로 올렸다. 그리고 제사에도 올렸는데, 이 때 김을 굽거나 국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김을 구워서 비벼서 만든 김가루를 채국에 고명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산모를 위해 김국을 만들거나, 민물김 무침을 만들어 먹었으며, 귀한 분에게 주는 선물로 활용하였다. 1970년대부터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었다고 한다.

민물김으로 만든 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의 시어머니는 민물김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을 짜라짜라’라고 하였다고 한다. 즉, 민물김 요리는 민물 냄새를 없애고 풍미를 돋우기 위해 일단 화롯불에 굽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민물김을 이용한 음식은 민물김 구이, 김국, 김밥, 고명, 민물김무침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물김구이는 솔잎으로 들기름을 발라서 화롯불에 구워서 밥에 올려 먹는다. 이 때 구운 김은 간장에 찍어서 먹으며, 그 맛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메뚜기를 구워 먹을 때의 맛과 향기라고 한다.

김국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면, 김국을 끓이기 전에 민물김을 화롯불에 살짝 구워서 민물 냄새를 제거한 후 맑은 물에 조선 간장을 조금 풀어서 팔팔 끓인 물에 구운 민물김을 넣어서 민물김국을 끓인다. 이 때 뚜껑을 열어서 김국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면서 끓인다. 다 끓은 김국에는 들기름을 몇 방울 넣어서 먹으면 그 풍미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제보자의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위해 김국을 만들어 ‘김국을 마셔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산후 치아가 약해진 산모가 무리없이 먹을 수 있는 매우 부드러운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모가 첫 국밥으로 김국을 먹으면 산후바람이 없어진다고 한다. 민물김국을 하루 먹은 후 다음 날부터 미역국을 먹는다.

민물김으로 장국을 끓이면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기에 장국을 끓여먹는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김밥을 만들 때 바다 김이 없으면, 자녀들이 소풍갈 때 민물김으로 김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 맛이 바다김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녀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민물김으로 채국이나 만두국에 올릴 고명을 만들어 해당 음식의 맛을 돋우는 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민물김 무침은 민물김을 살짝 구워서 갖은 양념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만들어 먹는 반찬이다.

민물김은 다양한 민간요법 재료로도 활용된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물김과 같은 녹조류(*Prasiola stipitata*, *Enteromorpha linza* 등) 유래

추출물이 항고혈압 및 미코스포린-유사 아미노산 (Mycosporine-like amino acids, MAA)에 의한 자외선 차단 등의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일본에서 민물유래 식용김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이젠지노리 (Suizenzinori, *Aphanothece sacrum*)에는 고 함량의 철분 및 칼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알러지성 피부염을 억제하는 성분인 사크란(Sacran, sulfated polysaccharide)이 함유되어 있어 약리학적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초당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민간요법 재료로서의 민물김은 첫째, 화상 치료에 유용하다고 한다. 제보자의 어린 딸이 톱밥 난로에 손이 데어 수포가 생겨서 보챌 때, 여기에 조선간장을 푼 물에 민물김을 적셔서 상처 부위에 붙이니 수포가 없어지는 등 화상 흉터가 없어지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한다. 둘째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산모들이 뱃배를 내릴 때 효과적이라고 여긴다. 셋째는 고혈압을 내릴 때 효능이 있다고 여긴다.

바. 민물김 채취 전통지식이 지닌 가치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하고, 이것을 채취하여 이용하는 곳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3리 초당마을이다.

민물김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과는 달리 보편적인 음식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내 유일의 민물김 생산이 이루어지는 소한천은 초당동굴에서 발원한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600m 정도의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생산되기에 마을 주민들만 부식으로 이용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초당 민물김이 지닌 가치는 매우 크다. 그 첫째 가치는 희귀성이다. 민물김은 남조류의 일종이다. 남조류는 수천 종이 있으나, 식용은 5종에 불과한데, 이 중의 하나가 초당 민물김이다. 이에 초당 민물김은 희귀하여 미생물(유전자)자원으로서 중요하다. 둘째, 고급 식품 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민물김은 철분이 시금치의 60배이고, 칼슘은 우유의 10배이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이와 함께 김국을 끓일 때 민물김에 송이를 넣어 먹을 정도로 귀중한 음식 재료로 여겨졌다. 조선시대에 왕실에 진상하

였다고 전해지며, 일본에서는 각종 제품으로 개발 판매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분말 1g에 3,5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셋째, 민물김은 산업용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민물김 추출물은 지구상 최고의 분자량으로 여겨지며, 금속 흡착성이 뛰어나며, 보습성이 탁월하여 의약품, 화장품, 산업용 재료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 민물김을 채취하여 말리고 보관하며, 이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다양한 민간요법에 이용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마을 민물김 채취와 활용 관련 전통 지식은 매우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5. 삼척 산간지역 가옥 : 두령집 그리고 통방아

- 소재지 : 삼척시 도계읍 신리
· 너와집(중요민속문화재 제33호)
· 통방아(중요민속문화재 제33-2호)
신기면 대이리 산105번지
· 통방아(중요민속문화재 제222호)

삼척을 대표하는 산간지역의 집은 두령집이다. 두령집의 의미는 집의 실내가 마루를 중심으로 주위에 방들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척 산간지방에 있는 집을 흔히들 너와집과 굴피집으로 부르는데, 이는 지붕의 재료를 기준으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두령집은 삼척의 젓줄인 오십천을 중심으로 하는 태백 산간지방에 많이 분포하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화전민들이다. 지붕은 대부분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였기에 너와집이나 굴피집이다.



신리 너와집



신기면 굴피집

너와는 산간지방에서 구하기 쉬운 소나무를 쪼개 널빤지를 만들어 기와 처럼 이은 후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과 통나무로 지그시 눌러 놓았는데, 이러한 집을 ‘너와집’이라고 한다.

너와는 건조할 때 틈새로 연기를 내보내며 비가 오면 습기로 팽창하여

비를 막는다. 너와집은 지붕 개량으로 거의 없어졌지만 삼척군 신리와 대이리(大耳里) 일대, 그리고 오대산 부근에 약간 남아있다. 평면은 3칸 겹집 형식이 일반적인데 측면에 입구가 있다. 부엌에서 불씨를 보관하는 화티와 관솔가지를 때어 조명하는 안방의 코쿨 등은 산간 지역의 생활을 잘 반영하는 시설들이다.

굴피집은 너와집에서 파생했는데, 국가에서 너와를 만들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자 대안으로 너와를 대신하여 상수리나무나 참나무의 껍질을 이용하여 지붕을 이었다. 굴피를 이을 때 너와집과 마찬가지로 서까래 위에 20~30cm 간격으로 산자목을 놓고 처마쪽에서 윗 방향으로 굴피를 포개면서 이었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큰 돌을 올려놓거나 너시래를 얹어 눌러 놓았다.

신리 통방아는 백 여년 전에 신리 마을의 방앗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명 물방아 또는 벼락방아라고 전한다. 방아는 곡식을 찧는 틀로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물방아 등이 있는데 이 통방아는 물방아이다. 물방아는 확, 공이, 수대로 구성된다. 물통에 물이 담기면 그 무게로 공이가 올라가고 그 물이 쏟아지면 공이가 떨어져 방아를 찧게 된다. 사람이 발로 디디는 디딜방아 보다 훨씬 힘이 들지 않아 편리하다.⁵⁶⁾

공이는 딱딱한 곡물을 찧을 때는 참나무 공이를 사용하고, 무른 곡물을 찧을 때는 소나무로 만든 공이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였다고 한다.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05번지에 중요민속문화재 제222호인 삼척 대이리 통방아가 있다. 직경 약 5m, 총길이 4.4m의 곡식을 찧는 방아이다. 6평 남짓한 평면에 원추형으로 서까래를 세워 그 위에 참나무껍질인 굴피로 지붕을 이었다.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 방아시설의 끝부분에 파인 홈으로 떨어뜨리면 물의 무게로 중심축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그 힘이 내부의 방아시설로 전달되어 방아를 찧는다.

대이리는 덕항산에서 흐르는 물이 풍부한 곳으로 100여 년 전부터 통방아, 물레방아 등의 방아가 전해왔다. 마을에는 마을 공동소유의 통방아 4개와 개인 소유 통방아 1개가 있었는데, 개인용으로 만든 통방아 1개만이 중요민속자료로 1989년 3월 7일 지정되었다.

56) 임상규, 『전통 민가의 이해』, 성은, 2000.



삼척 대이리 통방아 전경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통방아는 1940년대 후반에 이주 성씨가 자기 땅에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개인용 통방아였으며, 1992년까지 사용되었다. 중요민속자료 지정 당시의 소유자는 이상구씨였으나, 현재의 소유자는 그의 후손인 이형길씨이다.

2002년 홍수로 유실되어 2003년 복원하였고, 2007년에 자연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 부분 보수 공사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통방앗간은 내부에 기둥형 서까래 18개를 원뿔 형태로 세웠고, 지붕 내부 천장에 즈름으로 마무리하고, 통방앗간의 지붕은 굴피로 이었다. 통방앗간의 굴피 지붕을 누르기 위해 설치한 기둥형 누름대가 10개 설치되어 있다.

통방아는 수통과 방아머리, 방아허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 쌀개, 쳇나무, 머릿나무를 설치하였다.

6. 삼척지역 전통 가옥에서 ‘화티’

화티는 불씨로 사용할 숯덩이를 재에 묻어 두기 위하여 봉당이나 정지(부엌)에 설치한 고정형 화로이다.

가. 개관

전통 가옥에서 난방과 취사를 위하여 부엌 아궁이와 화로·화덕 등이 이용되었고, 조명 기구인 등잔, 조명과 부분 난방을 위해 코클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불을 이용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씨이고, 이를 보관한 시설이 화티이다.

화티의 형태는 가옥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아랫부분은 10~20cm 높이의 턱을 만들어서 재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만들었고, 화티 바닥은 깊게 파서 많은 재를 넣어 불씨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둥은 돌을 쌓고, 진흙으로 외벽을 마감하였다. 화티 위에는 넓적한 큰 돌을 그대로 얹거나 돌 위를 진흙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체로 볼 때 화티의 입구는 부엌의 아궁이에 비해 넓고, 높이는 부뚜막에 비해 높다.

화티가 설치된 곳은 봉당 입구에 큰 가마솥을 걸어 둔 아궁이 옆, 정지와 봉당 사이에 설치한 빈지, 흙벽 왼쪽 또는 오른쪽에 연접해 있거나 부엌에서 뒤뜰로 나가는 출입문 옆 등 다양하다.

그리고 화티를 설치하면서 화덕을 배치한 사례가 있다. 이를 구분하면 화티만 설치한 화티 단독형, 화티 위에 화덕을 설치한 유형, 화티 옆에 화덕을 설치해서 음식 조리의 편의성을 도모한 유형이 있다.

화티의 불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코클에 관솔불을 켤 때 이용하면서, 화티의 온기를 이용하여 가옥 내부에 설치된 대청마루 아래에 저장 구덩이를 만들어서 감자 등을 얼지 않게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봉당에 접해 있는 외양간을 따뜻하게 하여 가축들이 겨울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하는 등 정지나 봉당의 부분 난방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감자·고구마 등을 굽기 위한 화덕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화티 윗부분은 편평하고 내부의 불씨로 인해 온돌처럼 따뜻하기 때문에 온기를 유지해야 하는 음식을 올려 두거나 습기가 많은 소금가마를 올려 두어 소금을 말려서 보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화티에서 배출된 재는 거름으로 이용되었다.

나. 내용

화티는 화티 아궁이, 아궁이 턱, 깊은 움의 형태를 띤 화티 바닥, 화티 기둥, 넓적한 돌을 올려서 만든 화티 상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 삼척시 신리 너와집의 봉당에 있는 화티 아궁이 크기는 45×38cm,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1리 정지에 있는 화티 아궁이 크기는 28×24cm이다. 난방과 취사를 위해 사용하는 부엌의 아궁이보다 크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티에 불씨를 잘 보관하기 위해 많은 재를 넣고, 다 탄 재를 빼내는 편의를 위함이었다.

화티 내부에 있는 재가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아궁이 턱의 높이는 정지나 봉당 바닥에서 10~20cm였다. 일부 사례지만 삼척시 노곡면에 소재한 가옥 사례를 보면 화티 아궁이 아래의 턱이 화티 전체 높이의 1/2이다. 이는 불씨를 오래도록 많이 보관하고, 일부 난방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재를 많이 넣기 위해 다른 화티에 비하여 턱을 매우 높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울진군 주인2리에 소재한 가옥의 화티는 아궁이 내부 바닥을 깊게 파서 재를 보관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별도의 턱을 만들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아궁이 턱의 높이는 화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에 소재한 가옥에서의 화티 크기는 82×87×88cm, 또는 85.5×90×43cm, 65×38×110cm이고,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2리에 소재한 가옥의 화티 크기는 42×70×60cm이다. 즉, 화티의 크기는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 쓰임새에 따라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티의 바닥 깊이 또한 사례마다 다양하다 삼척시 신리에 소재한 가옥의 화티는 봉당 바닥에서 40cm 정도 깊이로 움을 만들었다. 대체로 화티 바닥 깊이는 아궁이 턱의 높이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화티 아궁이 턱이 낮으면 재를 많이 보관하기 위해 움을 좀 더 깊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화티의 윗부분은 대체로 네모난 돌을 덮어 마무리한다. 그러나 삼척시 원덕읍과 울진군 북면 주인리의 일부 가옥에서는 화티 윗부분에 나지막한 화덕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 즉 화티를 크게 만든 후 그 위에 화덕을 배치한 화덕·화티 일체형으로 볼 수 있다. 신리 가옥의 화티도 윗부분에 숯을 채운 후 그 위에 작은 솔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움푹하게 파여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화티 정면에 아궁이를 만든 후 화티 윗부분은 작은 화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아궁이 내부와 통해 있는 것은 아니다.

울진과 삼척 일부 가옥에서는 아궁이가 설치된 부뚜막과 별개로 화티 옆에 작은 화덕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 주로 작은 규모의 귀틀집 등에서 발견된다. 부엌에 솔 1개가 걸린 아궁이가 있어 물을 데우거나 난방을 위해 사용하고, 취사는 제주도의 봉덕처럼 부엌 바닥에 자그마한 돌을 2~3층 쌓아 올려 화로를 만들어서 부뚜막과 별개로 취사에 사용된다.

화티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티를 설치할 장소에 10~40c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아궁이 턱과 양 옆, 뒷면의 기둥은 돌을 막돌 허튼층쌓기한 다음 반죽한 진흙으로 화티 내부와 외부 표면을 마감한다. 이후 두께 10cm 이상인 방형의 돌을 덮은 후 그대로 두거나 반죽한 진흙으로 매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화티에는 불씨로 사용할 5~10개의 숯 동가리를 넣은 후 그 위에 재를 많이 덮어 꼭꼭 눌러 보관한다. 이때 넣은 불씨는 참나무나 소나무 장작에 불기가 많이 남아 있는 딱딱한 붉은 숯 형태를 띠는 때 화티의 재 안에 넣어 보관한다. 화목(火木)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참나무 등 다양하지만 소나무는 물러서 화티 보관용 숯불로 적합하지 않다. 참나무 숯이 다소 오래 지속된다. 보통 4~5일 불씨로 보관된다.

보통 아침과 저녁에 취사와 난방 등을 위해 장작불을 지피기에 여기서 만들어진 불기가 많이 있는 숯 동가리를 화티에 넣는다. 다 탄 숯은 꺼내기 때문에 화티에 보관된 불씨는 계속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알불이 약하면

장작을 하나 새로 올려서 알불을 만든 후 이를 재에 묻어 둔다.

화티에 보관된 불씨를 이용하여 불을 지필 때 불기가 있는 숯 동가리에 마른 갈비를 대어 입으로 불면 불기가 갈비에 옮겨 붙는다. 그러면 이를 아궁이로 옮겨서 불을 지핀다.

화티에서 다 탄 재는 밭으로 가져가서 거름으로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뿌려서 인분과 섞여지게 하여 농사용 밭거름으로 사용한다. 일부 지방에서 화티의 재를 화장실 옆에 설치된 잣간에 투기한 후 대변이나 소변과 섞어 밭거름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화티에 사용된 도구는 곰배와 삽(부삽)이다. 화티에서 불을 꺼낼 때 사용하는 곰배는 정(丁)자 형태의 나무를 베어 와서 이를 다듬어 만든다. 주로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거나 아궁이의 숯불을 뒤적거리려 정돈할 때 사용한다.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물에 담가 식힌 후 다시 사용한다. 삽은 부엌 아궁이에서 불씨를 화티로 옮기거나 숯 또는 재를 옮길 때 사용한다.

다. 특징 및 의의

성냥이 없거나 귀하던 시기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불씨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고, 불씨 보존을 위한 도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화로, 화티, 봉덕 등이다.

산간이나 추운 지역에서는 봉당에서의 활동이 많고, 가축 보온을 위해 화티를 주로 봉당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봉당을 잘 활용하지 않거나 부엌에서 불씨와 재를 많이 생산할 경우 부뚜막 옆에 화티를 설치하였다.

제주도에서 화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화로, 봉덕, 화심(화승)이 있다. 주로 화로에 알불을 재에 묻어 두는 형태로 불씨를 보관하였다. 화로가 없는 집에서는 불씨 보관과 함께 난방과 조명 그리고 간단한 조리를 위해 고정형 돌확인 봉덕을 설치하였다. 봉덕은 상방(마루) 바닥 일부를 뜯어서 설치하거나 봉당이나 부엌에 구덩이를 파서 설치하였다. 불씨를 재에 덮어 보관한 봉덕은 장방형의 함지 형태이다. 크기는 한 면이 약 500mm 전후, 깊이 100~150mm이다. 성냥이 귀하던 1960년대까지 제주도에서는 화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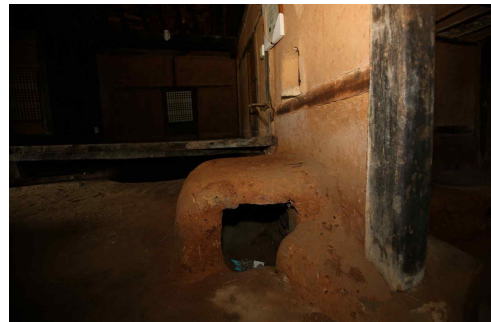
만들어서 불씨를 보관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심 길이는 500mm 정도이고, 12시간 정도 지속된 이동형 불씨였다. 집에서는 이를 아궁이에 두거나 부엌 구석에 두었다가 불을 지필 때 사용하였다.

불씨를 지키는 민속은 우리나라 전역에 폭넓게 전승되었으며,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다. 그 배경에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오래 간직하는 것이 가운(家運)의 융성 및 재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고, 이에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씨 보존이었다.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가 쫓겨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화티를 이용하여 불씨를 보관하던 풍속은 없어졌지만 화티에 불씨를 소중히 보관하던 유구는 전통 가옥에 남아 있다.



삼척 도계읍 신리 너와집 정지[부엌]에 설치된 화티



삼척 도계읍 신리 너와집 봉당에 설치된 화티

IV. 삼척지역의 자연 유산

1. 환선굴

천연기념물 제178호

환선굴(幻仙窟)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암 개방 동굴이다.

환선굴(幻仙窟)이 있는 강원도 신기면 대이리는 본래 도계읍 지역이었다. 1989년 4월 도계읍 신기출장소가 신기면으로 승격되면서 이곳에 속하게 되었다. 대이리는 마을 서쪽에 대석굴이 있어 처음에는 ‘한굴’ 또는 ‘대굴(大窟)’이라 칭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이리(大耳里)로 개명하였다. 일설에는 마을의 산이 사람 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대이리 골말 서쪽에 있는 큰굴로 여겨지는 동굴 안에는 기암괴석과 형형색색의 종유석, 폭포, 광장들이 있다. 환선굴은 환선계곡에 있어 환선굴이라 하였다. 동굴 속에 절이 있어 절 스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여 ‘돌아올 환(還), 신선 선(仙)’자를 써서 ‘환선계곡’이라고 한다. 현재는 절이 철거되었다.

환선굴(幻仙窟) 내부 80m 지점에서 남과 북, 서향굴 및 본굴의 4갈래로 나누어진다. 동굴 오른쪽은 경사지이며 폭 5m, 길이 약 150m인 북향굴은 선녀바위, 누룩바위, 만물상, 좁씨괭 등으로 불리는 종유석군의 발달하였다. 서북향굴은 단조로운 터널로 바닥의 태반이 지하수류로 차 있다. 남향굴은 폭이 약 20m에 길이 약 100m의 긴 타원형의 대지로 되어 있다. 중앙에 점토층 단구가 형성 되어 있고, 그 서북면에는 병풍암이라 불리는 단층이 형성 되어 있다. 중앙본굴은 가장 변화가 심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높이가 10~20m, 폭이 5~10m의 거창한 도랑 모양의 회랑과 가지굴 등이 발달하고 바닥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환선굴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로는 14목, 35종이 보고되었다. 환선장님좁막정벌레를 비롯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

굴동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이 측면에서도 중요시 되고 있다.

환선장님좁막정벌레 등 4종이 환선굴에서만 발견되거나, 환선굴이 모식산지로 기록되고 있다.

환선굴(幻仙窟) 현황을 소개하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대이계곡 덕항산(德項山) 남면 중턱 해발고도 500m에 위치하고 있다. 동굴입구는 폭이 16m이고 높이가 12m이며 거대한 반원형 모향이다. 내부에는 다량의 지하수류가 흘러나온다. 환선굴 주굴의 길이는 약 3.2km, 총연장 길이는 6.5km 이상에 이르는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다양한 종유석굴이다.

환선굴은 우리나라 석회암 개방동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동굴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다. 환선굴이 만들어진 시기는 5억 30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석회암동굴이다. 관람 소요 시간은 동굴까지 왕복 1시간, 동굴내부 관람시간은 1시간해서 총 2시간이 소요된다. 환선굴 일대의 삼척 대이리 동굴 지대[6.6km²]가 1966년 국가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었다. 1996년 삼척군립공원[3.6km²]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환선굴 내부 전경

2. 도계 미인폭포

미인폭포 일대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및 구사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인폭포의 높이는 약 30m이며, 폭포 주변은 퇴적암의 암벽으로 둘러싸인 협곡이 발달해 있다. 이곳은 깊이가 최대 270m에 달할 정도로 깊은 협곡을 이루어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리우는 곳이다.

해발 약 630m에 위치한 폭포 상부와 하상을 비교해 보면 폭포 하류로 500m 지점까지는 약 150m의 고도 차이를 보이며, 하류 800m 지점까지 약 200m의 고도차를 보인다.

이 협곡이 위치한 지역은 예로부터 ‘깊은개’ 또는 ‘심포(深浦)’로 불리고 있어. 이 협곡을 ‘심포협곡’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나, 태백시 통리(통동)에 인접해 있기에 ‘통리협곡’으로도 불리워져 왔다.

한편, 미인폭포 일대의 지형 기복으로 미루어보아 과거 낙동강 수계였던 미인폭포 상류지역이 오십천의 활발한 두부침식으로 인해 오십천으로 편입되는 하천 쟁탈(stream piracy)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미인폭포 주변의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적각리층으로서 적색 역암과 적색 사암 및 이암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미인폭포는 적각리층 지반의 용기에 따른 오십천의 하방침식의 증가, 그리고 고생대 후기 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적각리층의 풍화와 오십천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된 통리협곡 내의 폭포로서 오십천 두부 침식 전단부에 해당한다.

미인폭포 일대의 협곡은 다른 지역 협곡과는 달리 백두대간에 인접한 산지에 발달해 있으며, 층리가 잘 발달한 퇴적암 지역에 분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미인폭포를 지나는 삼척 오십천은 동해 수계 하천의 일반적인 어류상과는 달리 한강 수계 어종 및 남방계 어종이 분포하는 독특한 어류상을 보이며, 이는 하천 쟁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인폭포는 오십천의 상류에 해당한다. 오십천 발원지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척주지』(허목, 1662년), 『여지도서』, 『삼척군지』(심의승, 1916년) 등의 기록을 보면, 오십천(五十川)이 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라진 별도의 산인 우보산(牛甫山) 혹은 유현(楡峴)에서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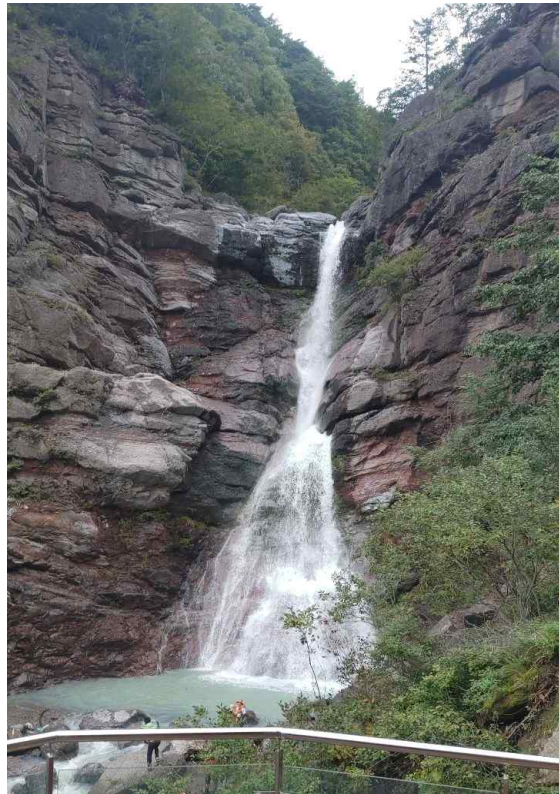
(發源)하는데 그 발원지를 구사흘(九沙屹)이라 하며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미인 폭포]이고, 이 물이 동쪽으로 백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오십천’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미인폭포는 오십천 발원지와 지형적으로 밀접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인폭포’라 불리운 이유에 대하여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 동북쪽 고원 지대와 폭포 위에 있는 마을에 미인이 많이 출생하였다고 전해진다. 폭포 근처에 묘가 한 기 있다. 이 지역 출신 미인이 출가하였으나 남편이 일찍 병들어 죽게 되어 다시 혼인을 하였고, 또 다시 남편이 사망하였기에 폭포 위에서 떨어져 자살했고, 이 미인을 안장한 묘를 미인묘라고 한다.

이와 다른 형태로 전하는 이야기는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할 배우자를 찾았지만 사별한 남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이 폭포에서 자살한 일이 있어 ‘미인폭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전해진다.

일몰 전과 일출 전에 이 폭포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 풍년이고 찬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한다.⁵⁷⁾



도계 미인폭포

57) 김일기 외, 『삼척시지』, 삼척시청, 1984.

3. 초곡 용굴과 촛대바위, 풍화 미지형

우리나라 동해안 강릉 이남의 암석해안에는 전형적인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삼척 초곡 해안 또한 이와 같은 해안침식지형이 잘 나타난다.

해식애(sea cliff)는 경암으로 구성된 암석 해안의 돌출부가 파식에 의해 후퇴할 때 해안에 고도가 높고 수직 절벽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해식애 형성의 중요한 해식영력은 파랑의 침식작용이다.

해식애는 붕괴, 포행, 무부먼트 과정을 거치며 후퇴하는데, 파랑의 차별 침식에 의해 여러가지 해안 지형들이 발달한다. 단단한 경암으로 구성된 돌출부가 차별 침식의 결과로 해식애로부터 분리되어 해안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나 파식 대상에 작은 바위섬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시스택(sea stack) 또는 ‘필라, 침니, 니들스’라고 한다.

그리고, 해식애의 기저부 사면에 절리나 단층면 등과 같은 구조적으로 약한 곳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차별 침식에 의해 해식동(海蝕洞, sea cave)이 형성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식애는 거의 모든 암석 해안에 발달하는데, 특히 산악성 암석 해안에 잘 발달한다. 우리나라 동해안 강릉 이남의 암석 해안에는 전형적인 해식애가 발달하여 있으며, 삼척의 초곡해안은 이와 같은 해안 침식지형이 잘 나타난다.

삼척 초곡항 인근의 촛대바위길에는 시스택, 해식동굴 등 해안 침식지형이 잘 발달하였다. 촛대바위길과 초곡 용굴 일대에는 대체로 밝은색을 나타내는 우백질 화강암이 우세하고, 사암과 편암 및 편마암이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습곡, 관입, 암맥 및 엽리 등의 지질 구조 등을 잘 볼 수 있다.



삼척 초곡 해안의 타포니

특히 초곡용굴 입구를 비롯한 촛대바위길에는 이와 같은 지질구조가 잘 나타난다.

그리고, 초곡항 북쪽 해안에는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며,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된 해안 암석에는 풍화작용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풍화 미지형이 발달하였다. 절리방향을 따라 풍화에 의한 침식작용, 박리작용, 구상풍화, 그리고 염풍화에 의한 타포니가 발달하였다.⁵⁸⁾



초곡 해안 용굴 앞에 우뚝 솟아있는 촛대바위



초곡 해안의 용굴

58) 최기주·김련, 『삼척의 지형과 지질』, 삼척시립박물관, 2021.

[참고문헌]

1. 史料

『三國史記』 / 『三國遺事』 / 『帝王韻紀』 /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 『朝鮮王朝實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 『高宗實錄』

허목, 『陟州誌』, 1662.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 營建廳儀軌(下)』, 1899. (삼척시립박물관 소장 ; 유물번호 450번)

沈宜昇, 『三陟郡誌』, 1916.

박한영, 「天恩寺紀實碑」, 1921.

『江原道誌』, 1940.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2. 단행본

강원문화재연구소, 『三陟 寥田山城 : 基本設計(地表調査) 報告書』, 강원문화재연구소·삼척시, 2001.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天恩寺 이승휴 유허지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삼척시, 2006.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호산리 LNG산업단지내 유적 발굴 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관동대학교박물관, 『三陟 史直洞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학술총서 13책, 1994.

關東大學校 博物館,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삼척시·관동대 박물관, 1995.

관동대학교 박물관, 『三陟 城北洞 葛夜山 古墳群』, 학술총서 13책, 2003.

국립민속박물관(편),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 1994.

국립민속박물관(편),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 1998.

국립민속박물관(편), 『불의 민속』, 1996.

- 문화재청(편), 『삼척 대이리 굴피집』, 2005.
- 문화재청(편), 『삼척 대이리 너와집』, 2005.
- 문화재청(편),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 2005.
- 김도현 외, 『삼척지방의 金石文과 記文』, 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삼척시, 2006.
-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 김도현 외, 『민족의 역사가 이승휴, 제왕운기를 쓰다』,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2010.
- 김도현·장동호, 『3대 강 발원과 태백』, 강원도민일보·태백시, 2010.
- 김도현, 『태백의 3대 강 발원지와 옛길』, 태백시·강원도민일보, 2011.
- 김도현 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 김도현 외, 『강원도 문화유산과 그 삶의 이야기』, 문화재청·충북문화재연구원, 2013.
- 김도현, 『삼척 공양왕릉』, 삼척시립박물관, 2014.
- 김도현 외, 『동해학』, 동해문화원, 2018.
- 김도현·이창식, 『삼척기줄다리기』, 삼척문화원, 2018.
- 김도현, 『준경묘영경묘청명제』, 삼척시·준경묘영경묘봉향회, 2019.
- 김도현 외, 『한국고대사 史料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 김도현, 『(증보)우리가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초·중·고등학용)』,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상원도 삼척교육지원청, 2020.
- 김도현, 「〈看藏寺記〉·〈看藏庵重創記〉를 통해 본 이승휴와 천은사」, 『2020년 동안 이승휴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사)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20.
- 김도현·김세건·김해규·안승택·오석민, 『전통오일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20.
- 김도현, 『한국의 마을天祭』, 모시는사람들, 2021.
- 김도현, 『《제왕운기》의 산실, 천은사』, 세창출판사, 2021.
- 김도현·이창식·장정룡·최명환, 『김진원의 삶과 삼척문화 연구』, 삼척시립박물관, 2021.

김도현, 『삼척 준경묘·영경묘』, 삼척시립박물관, 2022.

두창구, 『삼척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3.

배재홍(譯),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2003.

배재홍,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 우물이 있는 집, 2007.

삼척시지편찬위원회, 『삼척시지』, 삼척시, 1997.

심영진, 『2008 오십천 사진전』, 2008.

임상규, 『전통 민가의 이해』, 성은, 2000.

임상규, 『삼척의 민가』, 삼척시립박물관, 2011.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 문화재청 ·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차장섭·배재홍·김태수, 『죽서루』, 삼척시립박물관, 2004.

최기주·김련, 『삼척의 지형과 지질』, 삼척시립박물관, 2021.

한국고전연구회(편), 『동안거사집과 제왕운기의 종합적 검토』, 진단학회, 2004.

(사)한국이사부학회(편), 『삼척, 아사부와 동해 -학술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사)한국이사부학회·(재)국강고고학연구소, 2019.

3. 논문

권태효,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도현, 「歷代地理誌의 三陟郡 敘述에 대한 一考察」, 『江原文化史研究』2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김도현, 「영은사」, 『한국 주요 사찰의 편액과 주련』, 불교문예진흥원, 2000.

김도현, 「삼척 기줄다리기」, 『한국 세시풍속 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김도현, 「삼척 邑城考」, 『悉直 文化』제 15집, 삼척 문화원, 2004.

- 김도현, 「삼척지역의 무형문화 현황과 과제」, 『강원민속학』17집, 강원도민속학회, 2004.
- 김도현, 「삼척시 하장면 中峯里寺址 小考」, 『悉直 文化』제 15집, 삼척 문화원, 2004.
- 김도현, 「삼척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과 性」, 『강원민속학』19집, 강원민속학회, 2005.
- 김도현, 「三陟지역의 烽燧 연구」, 『博物館誌』第 11輯, 江原大學校 博物館, 2005.
- 김도현, 「강원도지역 邑治 城隍祠 考察」, 『朝鮮史研究』제 14집, 조선사연구회, 2005.
- 김도현,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 『역사민속학』2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김도현, 「삼척 邑治 城隍祠의 지속과 변동」, 『박물관지』제12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6.
- 김도현, 「동해, 삼척, 태백지역의 비지정 문화재」, 『강원도 비지정문화재 조사』, 강원도, 2007.
- 김도현, 「삼척시 원덕읍 갈남 2리 신남마을 서낭제」, 『한국의 마을신앙(上)』,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김도현, 「삼척지역 불교문화의 형성과 발전」, 『삼척의 불교미술』, 삼척시립박물관, 2007.
- 김도현, 「준경묘·영경묘 수축의 의미와 풍수지리」, 『조선왕조 창업 터의 재조명과 지역자원화 방안』, 강원대 삼척캠퍼스·삼척시, 2006.
- 김도현, 「삼척시 미로면 천은사의 역사와 목조아미타불 복장」, 『박물관지』13집,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 김도현, 「삼척시 근덕면 현대사·근덕면 동제」, 『근덕면지』,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삼척시 근덕면, 2010.
- 김도현, 「울진 망양정」, 『울진 길의 문화 시나리오』, 포스터 미디어, 2010.
- 김도현, 「삼척지역의 효자·열녀·효부 연구」, 『제 2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 논문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2011.
- 김도현, 「준경묘·영경묘 수호활동과 제향」, 『박물관지』제 20호, 2013.
- 김도현, 「강원도의 옛길과 문화」, 『강원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4.

- 김도현, 「삼척도호부 관아건축의 배치 특징」,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의 활용 및 보존방안’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년 4월.
- 김도현, 「悉直國의 역사성 연구」, 『강원지역의 옛나라』, 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4.
- 김도현, 「삼척지역 공양왕 관련 지명 고찰」, 『강원문화연구』33집,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4.
-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제 32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 김도현, 「울진과 울릉도 공동체신앙의 관계성 검토」,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I』, 영남대 독도연구소·울진군, 2015.
- 김도현, 「동안 이승휴의 불교 인식과 看藏寺」, 『이사부와 동해』제10집, 한국이사부학회, 2015.
-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 음식문화 연구」, 『박물관지』22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6년 2월.
- 김도현, 「신라의 국가 제사와 삼척」, 『이사부와 동해』12호, 한국이사부학회, 2016. 8.
- 김도현, 「삼척 기줄 제작과 전승 현황, 그리고 과제」, 『삼척기줄다리기 원형 고증 학술 세미나 자료집』, 삼척시·삼척문화원, 2016.
- 김도현, 「동안 이승휴 선생의 생애와 관련 유적」, 『박물관지』23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7년 2월.(「이승휴의 생애와 관련 유적」, 『이승휴와 제왕운기』, 동안이승휴사상선양사업회, 2004.)
- 김도현,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김도현,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역사민속학』 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 김도현, 「『帝王韻紀』에 수록된 ‘天王’ 기사 분석 - 〈檀雄神話〉에 보이는 天王의 성격을 중심으로 -」, 『2018년 동안 이승휴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2018.
- 김도현, 「민속으로 본 이사부와 삼척」, 『삼척, 아사부와 동해 -학술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사)한국이사부학회·(재)국강고고학연구소, 2019.

-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 의생활 연구」, 『박물관지』24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8년 1월.
- 김도현, 「환웅신화에 보이는 天王的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최광식 교수 정년기념 논총)』, 세창출판사, 2018.
- 김도현, 「역사·문화로 본 한강·낙동강·오십천 발원지 고찰」, 『강원사학』 31집, 강원사학회, 2018.
- 김도현, 「신앙과 산림문화 -산에서 모시는 신령과 의례-」, 『세시풍속과 산림문화』, (사)숲과 문화연구회·산림청, 2018.
- 김도현, 「강원도 삼척·동해·태백지역 독립유공자와 이의 교육적 활용」, 『강원지역독립운동사』, 강원도교육청, 2018.
-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의 주거 문화 연구」, 『아시아강원민속학』 제31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9.
- 김도현, 「코클, 화티」,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주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19.
- 김도현, 「마을 천제의 구조와 성격」, 『한국민속학』 69호, 한국민속학회, 2019.
- 김도현, 「삼척지역 내수면 어업 민속 고찰 - 연어·은어잡이, 민물김 채취를 중심으로 -」, 『박물관지』 27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21.
- 김도현, 「삼척 향교 省牲石과 望燎石函[望瘞石函]이 지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삼척향교 내 석조물 및 봉황산 미륵불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원대학교, 2021.
- 김선평, 「삼척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민속학』8집, 민속학회, 1975.
- 김승희, 「강원도의 불교회화」,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술총서』Ⅱ, 월정사 성보박물관, 2001.
- 김일기, 「三陟의 기줄다리기」, 『삼척공전논문집』14집, 삼척공업전문대, 1981.
- 金駟起, 「三陟 葛夜山 出土 新羅 土器」, 『江原史學』4집, 江原大 史學會, 1988.
- 김일기, 「삼척지방의 원시신앙」, 『실직문화논총』 제 1집, 1989.
- 김일기, 「태조 이성계는 강원인의 핏줄」, 『실직문화논총』 제 1집, 1989.
- 김종욱, 「공양왕릉 소재지 고찰」, 『실직문화』1집, 삼척문화원, 1990.
- 김창균, 「영은사 괘불탱화에 대한 연구」, 『영은사 괘불 탕화 수리보고서』, 강원도·평창군청·오대산 월정사, 2003.

- 김호동, 「삼국시대 신라의 동해안 제해권 확보의 의미」, 『대구사학』65집, 대구사학회, 2001.
- 박옥생, 「新興寺 阿彌陀後佛幀」, 『오대법보』5·6월호, 오대산 월정사, 2002.
- 박옥생, 「新興寺 阿彌陀後佛幀」, 『오대법보』11·12월호, 오대산 월정사, 2002.
- 배일환, 「본적사지 답사기」, 『태백문화』제 20집, 태백 문화원, 1999.
- 배재홍, 「동해·삼척의 역사와 문화」, 『강원 영동 남부 지역사회의식』, 삼척대 지역사회연구회·삼척시·동해시·삼척MBC, 2005.
- 배재홍,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조 목조 이안사와 삼척」, 『조선사연구』 제 12집, 2003.
- 배재홍, 「남구만과 약천사」, 『동해학』, 동해문화원, 2018.
- 원영환, 「목조의 활동과 홍서대고」, 『강원사학』 제9집, 1993.
- 유재춘, 「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三陟 沃原驛城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제 3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 윤명철, 「金異斯夫, 于山國 정복의 역사적 가치와 21세기적 의미」, 『이사부 그 다이나믹한 동해의 기억, 그리고 내일』, 2008 삼척 동해왕 이사부문화축전 발표 요지, 2008.
- 이근우, 「고대 동해안의 해상 교류와 이사부」, 『이사부 그 다이나믹한 동해의 기억, 그리고 내일』, 2008 삼척 동해왕 이사부문화축전 발표 요지, 2008.
- 이은희, 「삼척 영은사 불화에 대한 고찰」, 『문화재』27집, 문화재관리국, 1994.
- 이익주, 「이승휴의 사상」, 『삼척의 불교미술』, 삼척시립박물관, 2007.
- 이창식, 「술비통과 줄다리기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3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84.
- 이창식·김도현, 「김이사부의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이사부 그 다이나믹한 동해의 기억, 그리고 내일』, 2008 삼척 동해왕 이사부문화축전 발표 요지, 2008.
- 이청희, 「6세기 초에 鬱陵島를 정벌한 실직주 군주 이사부 장군」, 『실직문화』18집, 2007.
- 정운혁, 「삼척 심씨 시조 심동노」, 『실직문화』11집, 2000.
- 최영희, 「공양왕릉」, 『실직문화논총』 제 1집, 1989.

최장순, 「삼척산간지역 두령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7, 대한건축학회, 2004.

한명희, 「이승휴의 시문학 세계」, 『삼척의 불교미술』, 삼척시립박물관, 2007.

洪永鎬、金道賢, 「三陟市 未老面 天恩寺의 佛像 考察」, 『강원지역문화연구』제 2호, 강원지역문화연구회, 2003.

디지털삼척문화대전(<http://samcheok.grandculture.net/samcheok>)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uljin>)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필자 현지 조사 : 2001~2023년

□ 저자 소개

· 저자 : 김 도 현(金 道 賢)

-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현재)
-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자문교수·강원도 문화재위원 (현재)
- 강원대학교 외래교수·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역임)
- 민속 신앙, 불교 의례, 전통 지식, 시장 민속, 그리고 이승휴와 『제왕운기』, 삼척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 주요 저서

: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삼척 공양왕릉』,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 『삼척기줄다리기』, 『《제왕운기》의 산실, 천은사』, 『삼척 준경묘·영경묘』, 『한국의 마을 천제(天祭)』 外 다수

· 주요 논문

: 「울진 12령 셋재[鳥嶺] 城隍祠와 祿負商團」, 「신앙과 산림 문화: 산(山)에서 모시는 신령(神靈)과 의례(儀禮)」, 「환웅신화에 보이는 天王의 성격」, 「마을 천제의 구조와 성격」, 「강원도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山神)의 성격」, 「동해안지역 마을신앙의 구조와 성격」, 「太白山에서의 天祭, 그리고 산신·천왕·용왕 모신 전통에 대한 歷史民俗的 고찰」, 「영산재와 수륙재의 설단 비교 연구」, 「삼척 상두산 산맥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外 다수